



5

1977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77. 5호

(루게 355)



◆◆◆◆◆◆◆◆◆◆ 차 례 ◆◆◆◆◆◆◆◆◆◆

당의 유일사상을 주체문학건설에 더욱 훌륭히 구현하자!.....	2
조국해방의 불멸의 기치여!.....	6
보통강, 락원의 기슭에서	7
초가집의 력사가 있었기에	8
신념	9
나의 수기	16
조국의 시간은... ..	25
이 땅을 사랑하라.....	26
아름다운 대화록	35
조국의 철길우에서.....	36
미더운 길동무들과 함께	39
선경으로 꽃피는 땅	42
탄부들의 맹세	44
네 가슴 샘처럼 맑고 깨끗해.....	45
봄 들판 사랑의 들판에.....	46
바쁜 날은 기쁜 날.....	47
별빛	48
금별이 빛난다	57
못잊을 그리움에 너를 부른다	57
해가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58
조국은 멀고 멀어도	59
동화창작에서 환상의 진실성문제.....	60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 관철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싸우는 전사들이 우리 문학의 주인공이다	63

당의 유일사상을 주체문학건설에 더욱 훌륭히 구현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1967년 5월, 당사상사업부 문일군들앞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 데 대하여 강령적인 교시를 하신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갔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기본원칙을 밝혀주고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는 당건설에서뿐만 아니라 혁명적문학예술건설에서도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게 한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되었다.

사회주의문학예술건설에서 유일사상체계를 똑바로 세워야 제국주의문화침투와 온갖 반혁명적문예조류의 침습을 물리치고 주체를 똑똑히 세울수 있으며 조선혁명에 복무하고 조선인민의 민족적비위와 감정에 맞는 진정으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창조할수 있다.

그러므로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사회주의 문학예술의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지난 10년간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자기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그것을 창작에 빛나게 구현한 결과 우리 문학예술을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주체의 문학예술로 개화발전시킬수 있었다.

오늘 우리 당앞에 나서고있는 무거운 혁명과업은 문학예술을 포함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적전위부대인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를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온 사회를 하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한다는것은 매우 높은 요구이며 어려운 과업입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이룩해나

가기 위한 투쟁이다. 그것은 다시말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하기 위한 투쟁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본질에 있어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시키는것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전투적강령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과업이다. 그러므로 당사상사업의 일익을 담당한 우리 문학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을 자기의 기본과업으로 내세워야 하며 그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학에 당의 유일사상을 더욱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을 우리 문학에 철저히 구현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훌륭히 형상하는것이다.

우리 문학은 지난 10년동안에 위대한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모시고 영원히 따라배우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소원을 담아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총서 《불멸의 력사》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문학작품들에 정중히 수놓아갔다. 그리하여 장편소설들인 《혁명의 려명》, 《1932년》, 《고난의 행군》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어린 시절을 서사시적화폭으로 보여준 장편소설들인 《만경대》, 《배움의 천리길》, 《동트는 압록강》 등을 내놓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우리의 태양 **김일성**원수》를 비롯한 서사시문학과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를 비롯한 충성의 송가적가사문학, 《맑은 아침》을 비롯한 단편소설문학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매한 덕성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마음속으로부터 진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며 자나깨나 항상 그이를 흠모하고 뵈우고 싶어하는 우리 인민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창작된 이러한 충성의 혁명적작품들은 사람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교양하는 힘있는 무기로 되었을뿐 아니라 로동계급의 혁명문학발전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끌어올린 리정표로 되었다.

우리 문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심화되는 오늘의 현실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문학의 모든 부문에서 더욱 정중히 형상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의 밝은 앞길을 열어놓으시였으며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불멸의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제침략자들에 의하여 세게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이 땅에 세상사람들로부터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불리우는 주체의 조국을 일떠세우시였으며 지난날 정치박에서 멸시와 수모만 받아오던 우리 인민을 은혜로운 한품에 안으시여 그들모두에게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고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심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의 력사이며 그것은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하여오신 탁월한 령도예술가의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혁명적의리와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으로 수놓아진 불멸의 서사시이다.

오로지 혁명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한평생을 다바쳐 싸우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위대한 혁명가, 공산주의자의 최고 귀감이신 어버이수령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문학작품에 수놓아가는것은 천대만대를 두고도 다 할수 없는 크나큰 력사적사업이다.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

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문학의 각 부문에 격조높이 구가하는것보다 더 큰 영예와 행복이 또 어디 있겠는가.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형상하는것은 실로 우리 작가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의무이며 지상의 요구이다.

우리 작가들은 티없이 깨끗한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문학작품에 더 정중히 모시기 위하여 최대의 심혈을 다 기울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형상한 작품은 그이의 혁명업적을 감명깊은 예술적화폭으로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수 있도록 사상적으로나 예술적으로 가장 완벽한 높이에 이르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모시는 작품창작에서는 사상에예술적요구성을 끝없이 높여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의 일단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실을 묘사하는 단편소설을 창작할 때에도 그것을 통하여 능히 그이의 혁명사상의 위대성과 불패의 진리성, 령도의 현명성을 심오하게 보여줄줄 알아야 하며 그이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은덕을 노래하는 한편의 서정시창작에서도 그것이 절절한 진심에서 북받쳐 흘러나오도록 해야 한다. 매 구절, 매 문장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의 열도에서 우러나온다면 어찌 그런 작품이 사상에예술적으로 최상의 높이에 이르지 않을수 있겠는가.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해석선전하는 사업도 더욱 심화발전시켜야 한다. 한편의 문예론설을 쓸 때에도 수령님의 문예사상상을 전면적으로 폭넓게 그리고 그 진수를 파악한데 기초하여 원리적으로 심오하게 통속적으로 전개해서 누구나 쉽게 리해하고 설득시킬수 있게 하여야 할것이다.

당의 유일사상을 우리 문학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과 함께 그이의 혁명적가정을 형상한 작품을 훌륭히 창작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은 그이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의 력사적터전이며 조선혁명의 뿌리가 내린 혁명의 요람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을 따라배

우는것은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깊이 체득하고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우리 문학은 지난기간 장편소설 《력사의 새벽길》(상) 전기소설 《조선의 어머니》를 비롯한 문학의 각 부문에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을 훌륭히 형상한 경험을 쌓아놓았다. 우리는 이에 기초하여 이 사업을 더 높은 사상에술적수준에서 보장함으로써 전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을 따라배우고 대를 이어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혁명전사로 만들도록 하는데 이바지해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을 우리 문학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끝없는 충성심을 깊이있게 형상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키우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데서 기본으로 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교양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온몸에 주체형의 맑은 피만이 끓어넘치게 해야 한다.

주체형의 피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그이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유일사상체제가 선 주체형의 혁명가의 사상정신적특질은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자기의 세계관으로 하고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자기의 제일생명으로 하고있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과학적인 세계관을 가질수 있고 모든 행동과 사고를 수령님의 의도대로만 해나가는 그이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될수 있다.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으로 된다는것을 감명깊이 형상함으로써 혁명하는 사람들의 사상정신도덕적풍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문학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옹계 형상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혁명을 하려는 사람들의 숭고한 혁명적본분으로 된다는것을 깊이 보여주어야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에 의해서만 개척되고 승리의 길을 걸으며 수령의 유일적령도에 의해

서만 성과적으로 완성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서만 완성될수 있다.

그러므로 조선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받들고 그이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는것은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해 투쟁하는 혁명전사들의 숭고한 의무이며 혁명적본분으로 된다.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혁명전사들의 숭고한 혁명적본분으로 보여줄뿐아니라 또한 그들의 드물지 않는 혁명적신념으로, 억센 의지로 형상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과학리론적으로 터득된 진리일뿐아니라 준엄한 조선혁명의 폭풍을 헤쳐오는 실천행정에서 참다운 조선혁명가들의 심장속에 뿌리내리고 역세여진 신념이며 의지로 되었다.

조선혁명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길에서만 조국의 무궁한 번영도, 혁명의 종국적승리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리론적으로뿐만아니라 실천을 통하여 자각한 주체형의 혁명가들이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곧 법으로, 지상의 명령으로 접수하고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것이 혁명전사들의 세계관으로, 본분으로, 생활의 신조로 된다는것을 옹계 보여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혁명전사들의 숭고한 혁명적의리로 부터 흘러나오는 고상한 감정으로 형상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을 망국노의 처지에서 구원해주시고 주체조국의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시였으며 육체적생명보다 더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으로써 누구나 참다운 삶의 보람을 누리며 값있게 살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사람의 가치와 존엄은 그가 가지고있는 돈이나 물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상의식을 가지고있는가에 의하여 좌우된다.

우리 인민은 누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와 배려속에서 혁명가로서의 참다운 삶의 보람과 긍지

를 느끼며 살고있다.

그러므로 우리 문학은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은인이신 수령님께 충성다하는것은 그이의 품속에서 참다운 혁명가로 자라나고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는 혁명전사들의 고상한 혁명적의리감에서 스스로 흘러나오는것으로 감명깊게 형상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의 모범은 항일유격대원들에게서 찾아볼수 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반만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전설적영웅이신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 어떤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변심을 모르고 일편단심 수령님만을 믿고 따라 싸운 주체형의 혁명가들이었다.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끝없는 충성심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우리 문학으로 하여금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구호를 실현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귀중한 본보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을 우리 문학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또한 매시기 제시되는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해야 한다.

당정책에는 매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문제들이 반영되어있으며 그이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를 풀기 위한 방도가 제시되어있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그이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를 풀기 위한 당정책을 관철하는 실천투쟁속에서 표현되어야 한다.

우리 문학은 당보의 사실처럼 당정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정확하고 민감하게 반영함으로써 현실보다 앞서나가면서 인민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선전선동자로 되어야 한다.

우리 문학이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그이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영예로운 사업이며 인민들의 지향과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

당정책은 언제나 현실생활에 토대하고 혁명의 요구와 인민의 념원을 집중적으로 반영하여 제시된다.

그러므로 당정책을 모르고는 인민의 전진운동을 정확히 리해할수 없고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들끓는 현실생활을 작품에 진실하게 묘사할수 없다.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보람찬 투쟁을 반영함에 있어서 현시기 특히 중요한것은 3대혁명소조원들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하는것이다.

우리 문학은 어버이수령님의 친위대인 3대혁명소조원들이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투쟁을 어떻게 힘있게 돕고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도 어떻게 단련되고 혁명화되어나가고있는가를 그들의 생활의 전모를 통해서 폭넓게 진실하게, 생동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을 우리 문학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작가들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워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 주체적문예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자기 뼈와 살로 하여야 한다.

우리 문학 건설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운다는것은 결국 모든 창작활동이 당의 유일사상,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된다는것을 의미하며 모든 문예작품에 주체형의 피만이 흠어넘치게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창작의 기초로, 창작전과정의 지침으로, 창작총화의 기준으로 함으로써 문학작품창작의 전과정이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의 요구대로 진행되게 해야 하며 모든 작품에 오직 주체형의 피만이 맥박치게 해야 한다.

한사람의 몸에는 오직 한가지 형의 피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 문학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그이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일관된 주체형의 맑은 피만이 흘러넘쳐야 그것이 진실로 주체사상교양의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다.

우리는 문학건설에서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사대주의와 도식주의, 형식주의와 같은 온갖 잡색형의 피가 우리 문학에 조금도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 문학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의 혁명문학으로 꽃피워나가야 할것이다.

차균호

조국해방의 불멸의 기치여!

류국진

하늘이 있어도
머리 들 하늘이 없고,
땅이 있어도
삶의 씨앗을 묻을 땅이 없던
자유와 권리를 빼앗긴 인민이었다

사나운 채찍에 멍든 가슴들이
일제의 칼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깜깜한 하늘에 두손을 뻗치며
눈감지 못한채 바라고 바란것은
그 이름 부르고싶던 조국이였다!

아, 억눌린 가슴가슴에 새힘을 주고
희망을 안겨주던 동강의 봄!
사령부의 불빛이
깜깜한 조국의 하늘에 빛나던
위대한 력사의 그날이여!

1936년 5월 5일
저 멀리 백두성산
혁명의 사령부를 우러러
온 민족이 환희로 들끓으며
가슴설레던 그날-

민족의 태양 **김일성** 동지께서
조국광복회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실 때
철쇄가 울던 식민지대륙우에
높이 휘날린 통일전선의 기발
인민들은 그 기발아래
조국해방의 발걸음을 맞췄나니

세기의 어둠우에
수령님 높이 드신 주체의 해불로 밝혀진
조국광복회 10대강령!
그것은 찬란한 해발로
인민의 머리우에 쏟아져내렸어라.

그 빛발은
한숨과 설음속에 신음하던
이영삭은 초가집 문창들에 비껴들고
모진 고역에 쓰러지던 흐린 눈동자들에
소생의 빛을 안겨주었어라.

그 빛발을 안고
해방의 봄빛 넘친 하늘에 머리들며
인민은 항일전에 힘차게 일어서고

혁명조직들은 혈맥처럼
조국땅에 즐기차게 뻗어내렸거늘

백두산을 향하여
인민을 투쟁의 한길에 세워주던
조국해방의 위대한 선언이여!
수령님 높이 드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
그것은 조선혁명의 성스러운 기치!

그 기치아래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식량이 있는 사람은 식량을 내고
기능과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능과 지식을 내고
모두다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일제를 쳐부시는 피어린 투쟁속에서
거세차게 자라난 조선의 힘!
신념으로 다져진 인민의 의지!

그 기치 높이 드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우리 인민은 오직 한길
혁명의 길 승리의 길우에
강대한 주체조선을 일떠세웠어라!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손발을 엮어매며
싸움의 전구를 넓혀가는 오늘도
반제전선의 해불로 타오르는 그 기치
백두에서 시작된 영광의 그 길을 이어
철의 대하, 불의 대하를 안고 누리에 휘날리고있어라

어둠에 잠긴 하늘엔
서광을 펼쳐주고
피눈물로 가득찬 땅우에선
해방의 힘을 사람자신에서 찾아주며
세계를 반제전선으로 부르는 혁명의 기치!

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
조선이 가고 세계가 가는
위대한 주체의 길을 열어주시며
이 세상 처음으로 높이 드신
자주의 성스러운 기치여!
조국해방의 불멸의 기치여!

보통강, 락원의 기슭에서

신형길

5월이라 록음길은 강기슭

꽃향기에 취하여 나는 걷는다

오가는 사람들의 물결속에

군복 단정히 입고...

세월은 흘러 멀리 왔어도

청춘의 강 보통강이여

너의 아름다움은 변함이 없구나

이 나라의 맑은 정기 비껴담고

기슭에 넘쳐나는 행복의 노래를 싣고

너의 품은 언제나

홍성이는 명절이구나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저리도 가벼웁고 얼굴엔 미소가 어리었구나

대학생도 늙은이도 젊은이도

소리없이 미끄러지는 려객선 타고

좋아라 손뼉치며 노래부르는 아이들의 눈동자에

고이 간직된 은혜로운 사랑의 해빛이여

보통벌에 몸소 첫삽을 뜨시여

영원한 사랑의 봄빛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영상이여

아, 그 사랑 심장속에 안고 내

원썴치는 싸움터에 달려갔어라

그 사랑의 은정속에 피어난 행복이여

그 행복 언제나 따라섰더라

멸적의 발걸음 번개치는 남진의 길에

사선을 헤치며 불타는 가슴으로

한치 또 한치 뚫아오른 습격의 밤길에

해마다 감탕물 사품치던

토성랑의 거칠은 상처 가시여주신

뜨거우신 그 사랑 그 은정 지니였기에

준엄한 격전의 그날에 원썴를 무찔러

승리자의 영예 떨치지 않았던가

아, 이 땅우에

천만년 세월이 흘러가도

수령님을 높인 모신 성스러운 혁명의 한길에

보통강, 너 락원의 강이여

너는 영원한 생의 길동무

너는 조국의 끝없는 노래

정녕 보람찬 그 길

충성의 길이 있어

꽃피는 이 행복

끝없는 이 노래

그토록 한없이 소중하구나

단 하나 나의 생명과도 같이

흘러라, 보통강이여

춤추며 어리광치며 흘러흐르라

위대한 사랑의 빛발아래

나날이 넘쳐나는 너의 노래

심장속에 세찬 불길 지펴주나니

기슭에 꽃피나는 행복이 클수록

더더욱 굳세여지는 수호자의 맹세여

초가집의 력사가 있었기에

정화수

총련회관 높은 집에 찾아들 때면
언제나 숭엄하게 안겨오는 그 모습
만경대의 추녀 낮은 마음의 고향집

사위에 온갖 꽃이 다 피어도
조국땅에 산악같은 집채들이 솟아올라도
언제나 나직이 앓은 그 모습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시던
그때의 추녀 낮은 그 초가집

초가집의 력사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 집들
하늘을 찌르며 솟아나거니
우리의 피가 흘러 스미던 이 땅에

피나리보짐에 설음을 담아지고
류랑의 거리를 헤멜 때는
지친 몸 맞아줄 방 한칸이 없었더라
낮에는 낮이 없는 천길 지하에 물리우고
밤에는 통나무목침에
메뚜기궤미마냥 목덜미가 걸렸더니

만경대 초가집의 력사가 있었기에
오늘의 조국을 생각할수 있어라
구름을 뚫고 솟아난 집채들이
초가집에 뿌리박고 뻗어났더라
전야를 누벼가는 기계군단은
가난을 뒤지다가 달빛지고 돌아오던
농쟁기의 념원답아 달리는가

곳곳에 쏟아지는 비단의 폭포도
실물레, 벼들의 구슬픈 노래 씻어흐르며
집집마다 소복소복 넘치는 뒤횈에
돌절구 향아리의 념원을 담았더라

조선의 모든 가난 고역을 다 겪으며
찌그러진 독에다 장을 담그던 초가집
많은 식구 비좁은 방에
찾아오는 혁명가마다 때식을 마련하며
숭고한 애국의 념을 길러온
그 사랑 그 정성 그 념원이
오늘의 사회주의대가정을 펼치였나니

5천년 유구한 인민의 력사에
위대한 태양을 받들어
새시대의 려명을 가져다준
혁명의 요람
유서깊은 만경대의 초가집

총련회관 높은 집을 찾아올 때마다
잊을수 없어라
일본땅 곳곳에
하늘을 찌르며 솟아오른 총련의 집들
어디서 줄기찬 뿌리를 이어온것인가를

그때마다 엄숙히 다지고 다지노라
내 언제나
만경대의 고향집을 심장에 새겨
오늘의 이 행복 이 영광을
영원히 간직하리

신 념

강복래

리철숙지배인은 어느덧 앞머리가 성글어져갔다. 세월의 흐름이 남겨준 자취인듯 눈가장자리며 입모서리엔 부채살같은 잔주름이 퍼졌다. 그렇건만 이 녀인의 동그스름한 얼굴에는 오랜 지도일군다운 심중성과 로동속에서 자란 사람의 소탈하면서도 너그러운 인정미가 그렇듯 자연스럽게 한데 어울려있었다.

그는 요즘 자기 가정의 아침전경에 대해서 즐겨 이렇게 말하곤했다.

《요샌 아침마다 어찌나 집안이 소란한지 탁아소에 가는 우리 인옥이까지 먼저 서둘러대니 누가 더 바쁜지 분간을 못하겠어. 우리 철호녀석은 할머니 하구 경쟁을 한다면서 덤비는데 내가 져야지 이겼다가 야단이요.》

우스개소리처럼 하는 지배인의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그를 잘 아는 사람들은 지배인이 이제야 가정의 행복을 알며 또 그 행복을 매우 귀중해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전쟁초에 남편이 전사한후 그는 아들 하나를 데리고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다. 1958년 6월,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가 있은후에 일용품공장 지배인이 된 그는 일밖에 모르는 사람, 일에 모든 것을 바쳐온 사람이었다.

녀인들을 이끌어 빈터우에다 공장을 세웠고 소달구지로, 손수레로 쇠붙이를 날라다 기계를 만들었다. 인민학교에서 돌아온 그의 아들애는 언제나 공장마당에서 놀다가 어머니의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고 자기 어머니대신 다른 어머니들이 해다주는 밥을 먹는 일이 더 많았었다. 그래서 공장옆에 있는 지배인네 집은 언제나 빈집처럼 자물쇠가 잠겨있었다.

그러던 그의 집이 오늘은 얼마나 흥성거리는가.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아침이면 누구나 바깥지만 집안에는 활기와 웃음, 단란한 가정의 행복이 있었다.

오늘아침도 철숙지배인은 아침상에서 물러나 바빠 출근할 차비들 하는데 인민학교 1학년에 다니는 손자녀석이 책가방을 든채 문밖으로 나가며 장해서 뽐냈다.

《할머니, 내가 먼저 나가요.》

《철호야, 너 책가방은 왜 들고나가니.》

《나가서 뽐래요.》

철호의 목소리는 벌써 문밖에서 울렸다.

《원 녀석두 할머니한테 질가봐 책가방도 안메고 달아나누나.》

허를 찌는 철숙지배인의 얼굴에는 손자를 대견해하는 할머니의 흐뭇한 미소가 어려있었다. 아들이며 며느리의 얼굴에도 할머니와 손자의 경쟁을 재미있어하는 즐거운 웃음이 떠올랐다.

엇그제 눈이 내린뒤여서 날은 쌀쌀하고 추웠다. 바빠 걷는 사람들의 입가에서 연기같은 입김이 날렸다.

학교로 갈라지는 갈림길모퉁이에서 여러가지 고운색갈의 솜옷을 입고 책가방을 멘 어린 사내아이들이 빙 둘러 서있었다. 철부지들이 학교 늦는것도 모르고 장난에 팔려있는줄 알았던 철숙지배인은 뜻밖의 광경을 보았다. 얼마전에 공장에 파견되었던 3대혁명소조원 엄재식이 빙 둘러선 어린이들속에 쭈그리고 앉아 누구의것인지 끊어진 책가방끈을 손질해주고있는것이였다. 그런데 소조원앞에는 방금전에 집에서 가방을 들고 뛰어나갔던 손자녀석이 서있었다. 책가방은 철호의것이였다.

《아니 철호야, 가방끈이 끊어졌니?》

지배인의 목소리를 듣자 소조원이 고개를 돌렸다. 추위에 언 불깃한 얼굴에는 인사를 대신하는 웃음이 피어났다.

《지배인동지, 철호가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추워서 손이 시리겠는데도 가방을 들고 그냥 달아나려는걸 겨우 붙잡았습니다.》

철숙지배인은 손자에게 언짢은 소리를 했다.

《네 손에 들어가서 견디는게 없구나. 가족으로나 해줘야 남아있겠는지?》

철호는 불만스러운듯이 할머니를 힐끗 쳐다보며 툭 내뱉었다.

《체, 평양에서 사온건 안끊어져요.》

《이너석 장난을 좀 작작하렴.》

소조원은 끈을 다 손질한 책가방을 철호의 어깨에 메워주었다. 끈이 좀 짧아졌다.

《자, 빨리 가라, 학교가 늦겠다.》

철호는 고맙다는 인사대신 엄재식을 쳐다보며 별쭉 웃고는 아이들과 같이 뛰어갔다. 엄재식은 달리기나 하듯 와 떠들며 뛰어가는 아이들을 보고 즐겁게 웃었다. 그자신이 어린아이가 된듯한 순진한 웃음이었다. 살결이 희고 길쭉하게 잘 생긴 그의 얼굴

은 그 웃음때문에 더 환해보였다.

《엄동무가 공연히 수고했수. 애너석이 어찌나 세찬지 그 손에 들어가서 남아나는게 없다우.》

이렇게 말하던 철숙지배인은 엄재식이 발앞에서 기계부속들을 켜 쇠줄을 쳐드느것을 보았다. 그제야 지배인은 엄재식이 끼고있는 까맣게 기름물은 장갑이며 작업복 솜옷차림을 훑어보았다.

《아침부터 어델 갔다오우?》

마침 앞으로 휙 불어오는 숨막힐듯한 찬바람때문에 엄재식은 지배인이 묻는 말을 못들었는지 기계부속을 켜 쇠줄을 어깨에 메고 걸음을 옮기며 이렇게 말했다.

《지배인동지, 여긴 추위가 빨리 서두릅니다.》

《엄동무는 마치 여기 사람이 아닌것 같구만.》

친근하고 다정한 사람에게 하듯 지배인은 말했다. 《오래 떠나있다와서 그런지 추위도 다 생소해졌습니다.》

엄재식이 변명하듯 먼구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니 여기 사람들을 다 잊었겠지.》

《왜 잊었겠습니까. 어머니 지금도 늘 그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보배동무야 못잊겠지. 그러나 젊은사람들이야 모르니까...》

지배인의 음성은 조용했다.

부모들이 간고한 시련속에서 이룩해놓은 그 풍만한 터전우에서 자라 행복만을 아는 젊은이들에 대한 부모의 자부심이 풍기고있었다.

엄재식이 곧 진지해졌다.

《우리 젊은사람들일수록 그대를 알아야지요.》

철숙지배인은 옆에서 성큼성큼 걷는 엄재식의 의젓한 모습을 대견히 쳐다보았다. 사실 요즘 철숙지배인은 이 공장 창설초기에 함께 일해온 전사자가 죽인 보배의 아들, 공장유치원에서 험하기로 이름났던 그 장난꾸러기가 어느새 이렇게 의젓하게 자랐는가고 믿음에 찬 시선으로 엄재식을 바라보곤하는 때가 많았다.

엄재식이 3대혁명소조원으로 공장에 파견된 사람이 아니라면 아들처럼 이름으로만 부를수도 있겠으나 철숙지배인은 그를 깎듯이 소조원동무 혹은 엄동무라고 불렀다. 그는 벌써 지배인과 같이 혁명의 한 대오에 서있었으며 혁명소조원으로 공장에 파견되어온것이다.

공장의 노동자들과 지휘성원들은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서 결린 문제의 본질을 예리하게 파악하는 그의 분석력앞에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철숙지배인은 이런 엄재식이 자기의 아들처럼 대견하였으며 그럴수록 더욱 어렵게 대하게 되는것이였다.

《아침부터 어델 갔댔소?》

지배인이 다시 물어서야 엄재식이 웃으며 대답했다.

《어제밤에 기계종합공장에 가서 발포로 송풍기 설계를 수정해주고 옵니다. 갔던김에 부속품들도 좀 얻었습니다.》

《밤에 갔댔소? 너무 무리하는게 아니우? 그러다가...》

엄재식은 철숙의 말을 중증무이했다.

《지배인동지, 힘든걸 생각할새가 있습니까? 이 가방끈을 보니 빨리 새 설비들을 만들어서 제품의 질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재식의 손에는 그때까지 철호의 가방끈에서 잘라낸 해진 비닐끈조박이 들려있었다.

철숙지배인은 그 비닐끈조박을 바라보았다. 그는 엄재식의 말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수 있었다.

《발포로제작에 쓸 산형강때문에 어제도 중국에 전화를 걸었는데 강재는 년초에 계획에 물리지 않았기때문에 힘들구만.》

엄재식이 좀 심중해졌다.

《그럼 새해까지 발포로로체틀제작을 미루어야 합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설비들도 다 미루어야 합니다.》

철숙지배인은 혁명소조원의 방조로 공장의 낡은 설비들을 갱신하고 새로운 설비들을 보장하는 일이 벌어지고있는 이때 그의 앞에서 사정을 터놓고 말할수 없었다.

《다시 알아보지요. 무슨 방도가 생기겠지요.》

공장마당에 들어서자 두사람은 갈라졌다. 엄재식은 자기 사무실이 있는 공장 뒤마당쪽으로 가고 지배인은 정문옆에 있는 로라직장으로 향했다.

1호로라가 돌아가는 덜커덩소리는 작업장 문밖에서도 들렸다. 마치 《빨리 수리를 해주시오. 빨리 수리를 해주시오.》하고 애원하는듯한 그 덜커덩소리는 지배인의 가슴에 못처럼 박히는것 같았다.

지배인의 발길은 1호로라앞에서 멎었다.

만든지 오래된 기계여서 불품도 없고 수리공들의 손도 많이 가야 하지만 지배인은 이 기대앞에 설 때마다 만아들을 보는듯한 그런 심정을 느끼군했다. 빈터우에 공장을 세운후 파고철을 뒤횈기도 하고 다른 공장에 뛰여다니며 부속들을 얻어오기도 하면서 처음으로 만든 기계가 바로 이 로라였던것이다.

《저걸 빨리 수리해야 래년도 레자생산에 만부하를 걸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자 지배인의 마음은 초조해졌다. 년말 생산과 새해 생산준비에 모든것을 집중해야 할 때에 공무작업반원들이 염화비닐발포로제작에

물두하다보니 기계수리에 미쳐 손을 쓰지 못하는 것이다...

철속지배인은 외투를 입은채 공무작업반으로 갔다.

공무작업반에서는 수리공 경수가 혼자서 발포로 제작에 쓸 도면을 철판위에 놓고 줄을 긋고있었다.

《경수동무, 저 1호로라는 언제쯤 수리를 하겠어요.》

얼굴이 납적하고 관골이 나온데다 두눈이 억실억실한 경수는 지배인을 돌아보고 심드렁해서 말했다.

《지배인동지, 그놈의 1호로라가 정말 해를 맥입니다. 수리공들이 내내 붙어있어야 되니. 정말 답답합니다.》

푸념같이 하는 경수의 말을 듣자 철속지배인은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타이르는 어조로 말했다.

《동무네 심정을 알아요. 그렇다고 아직 새 로라는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로라 5대가 다 돌아가도 완성직장에선 레자가 팔리는데.》

이때 문이 열리고 업체식이 들어섰다. 기계종합공장에서 오던 그대로 작업복에 기름묻은 장갑을 손에 끼고있었다.

그는 밖에서 경수와 지배인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작업장에 들어서자 경수쪽에 대고 스스럼없이 말했다.

《경수동무, 로라를 수리합니다. 새것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낡은것이라구 들어내면 그새 생산은 무얼루 하겠습니까.》

경수는 아무말도 안하고 얼굴이 좀 불긋해서 서 있다.

철속지배인은 업체식이 그렇게 타일러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소조원동무, 왜 좀 쉬지 않고 나왔수...》

지배인은 충혈진 소조원의 눈을 보자 미안한 생각이 앞서 변명하듯 말을 이었다.

《모두 이렇게 애쓰는데 자재랑 제때에 해결해주지 못해 안됐어요. 아무리 총국에 줄라도...》

업체식은 좀 정색해지면서 지배인을 바라보았다.

《지배인동지, 다른 방법으로 예비를 찾아볼수는 없을가요. 총국에 없는거야 자꾸 줄라댄다고 생기겠습니까?》

철속지배인은 업체식의 말에 선뜻 대답을 못했다. 그는 생각한끝에 이렇게 말했다.

《예비가 어데 있겠수. 지금은 파고철을 뒤질 때두 아니구-하여간 좀더 알아보자요.》

지배인은 작업장을 나서면서 경수에게 다시 당부했다.

《경수동무, 로라수리를 빨리 해야겠어요.》

사무실에 돌아온 철속지배인은 사업일지에다 설비수리문제라고 쓰고 그 밑에 산형강문제라고 더 썼다. 그리고 산형강이라는 글밑에 빨간줄을 그었다.

지배인이 나가자 업체식은 벽쪽에 있는 장의자에 주저앉았다. 무엇인가 마음이 허전했다.

전에 이 공장보다 뒤떨어졌던 다른 공장들이 벌써 오래전에 설비들을 갱신해서 제품의 질이 올라가고있는데 이 공장은 여전히 낡은 설비들을 가지고 생산물을 내고있다. 지배인동지는 앞선 공장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애써야했는데 우에서 해결해줄 것만을 기다리고있는게 아닌가. 공장을 새로 세우던 그때의 열정은 로쇠와 함께 다 사라졌단말인가...

이런 생각이 든 업체식은 전날의 지배인을 볼수 없는 그것때문에 마음이 허전해왔던것이다.

업체식은 의자에서 일어나 경수의 발앞에 놓인 메를 들었다. 경수가 업체식의 손에서 메를 빼앗았다.

《소조원동무에게 힘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두 그렇게 일하고 견대내겠어요. 어제밤에도 밤을 밝혔겠는데.》

업체식은 벽에 세워놓은 메를 또 들고왔다.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인들 못하겠소.》

이윽고 두사람이 내려치는 세찬 메질소리는 그들의 무거운 마음을 그대로 헤쳐놓는것 같았다. 모든 낡은것들을 놀래워 멀리 쫓아버릴듯 탕탕... 메질소리는 공장안을 요란하게 울렸다.

× ×

지방총국에서 열린 지배인들의 회의는 끝나가고 있었다. 일용품공장에서 계획된 새해의 생산과제는 아름답다. 금년보다 훨씬 늘어난 새학년도 아이들의 책가방 생산을 원만히 보장하자면 년초부터 설비에 만부하를 걸어야 했다. 철속지배인의 마음은 온통 새해의 그 아름다운 생산수자에 집착되고있어서 하마트면 발포로제작에 쓸 산형강문제를 잊어버리고 돌아갈번했다. 시내의 지방산업공장 지배인들은 회의가 끝나자 철속지배인이 자재담당 부국장실에 들어갔다가오는것을 보자 알만하다는듯 미소를 지었다.

《일용품 로친은 무얼 또 줄라대느라고 뛰어다니오?》

《그래 뭘 좀 얻어냈소? 일용품 로친도 이젠 부국장동지방에 자주 드나든다니까.》

그런 룡담은 받을 사이가 없다는듯 철속지배인은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누구네 산형강이 좀 없어요? 있으면 좀 꾸어주오. 새해에 물어줄테니.》

지배인들은 년말인데 어디에 산형강이 남아있겠는가고 하면서 지금 그걸 찾는 철숙지배인을 되려 나무랐다. 하긴 어느 누가 일용품공장에 주겠다고 산형강을 보관해두었으리 없을것이였다. 철숙지배인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산형강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발포로제작은 새해에 강재가 들어오면 다시 시작할수밖에 없었다. 산형강이 없는바하고는 차라리 있는 설비들을 더 잘 정비해서 생산에 힘을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

지배인이 공장마당에 들어서는데 웬일인지 1호 로라의 덜커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자기 사무실로 향했던 지배인은 의아해서 로라직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1호로라는 해체되어있었다. 소조원동무와 경수가 로라를 수리하고있었다. 경수가 더 불평없이 로라수리에 착수한것이 지배인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엄재식의 일이 고마웠다.

《소조원동무, 수리는 우리 동무들한테 맡기라고요.》

《산형강이 해결되면 경수동무가 바쁠것 같아서...》

엄재식의 말에 지배인은 소조원에 대한 미안한 생각을 금치 못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말을 하지 못했다. 그는 한참이나 서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소조원동무, 아무래도 산형강은 새해에 들어가서야 해결될것 같네요.》

지배인은 대답을 기다리듯 소조원을 바라보았다. 엄재식은 일손을 멈추었으나 대답은 안했다. 지배인은 잠간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소조원동무와 의논하려던 참이에요. 산형강이 없는바하고는 차라리 생산에 력량을 집중해야겠는데, 경수동무를 당분간 설비수리에 돌렸으면 하는데...》

엄재식은 고개를 들어 지배인을 바라보았다. 그런 제기까지 할줄은 몰랐다.

경수야 협의회에서 전적으로 설비제작에 돌린 사람이 아닌가. 안타까웠다.

《지배인동지, 설비제작을 미루어서야 되겠습니까? 당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인데... 기대수리가 제기되면 우리 힘을 합쳐 곧 수리하도록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소조원의 드팀없는 립장과 설득력있는 말에 철숙지배인은 잠시 대답을 못하다가 자기생각을 되풀이

하였다.

《산형강이 있어서 발포로제작을 그냥 내밀수 있으면야 오죽 좋겠나요.》

나는 지금 산형강이 당장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배인동지, 산형강문제를 더 탐구해보자요. 혹시...》

지배인은 의자에서 일어나며 한숨을 쉬었다.

《모든 일이 마음먹은것처럼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수. 그러나 어데 일이 그렇게 돼야지요.》

엄재식은 대답을 안했다. 너무도 컸던 기대가 무너지는 허전함때문이었다.

지배인이 나가자 그때까지 말이 없던 경수가 두덜대기 시작했다.

《지배인동지 말대로 늦추기 시작해보세요. 그뻔 또 다른 리유와 구실이 생기지 않나. 전에도 늘쌍 그 조건때문에 기술혁신은 말뿐이구 장창 늑은 시대만 수리하고있었어요. 그러다나니 제품의 질이 높아질게 뭘예요. 다른 공장들은...》

《경수동무! 그만 두오.》

엄재식은 경수의 불평을 더 들을수가 없었다. 경수와 같은 젊은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지배인, 사람들의 지향을 아랑곳없이 공장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지 않으며 모든걸 우에서 해결해주기만을 바라는, 그리하여 전진하는 시대를 따르지 못하는 지배인에 대한 비난의 말이 가슴아프게 들려왔던것이다. 그러나 경수의 비난이 부정할수 없는 진실이기때문에 엄재식은 더 듣기가 괴로웠다. 그는 혼자 작업장을 나왔다. 밤은 깊었다. 방금 공장의 모든 기계들이 멎은듯 공장구내는 조용했다.

밤하늘의 별들이 무엇을 속삭이듯 유난히 반짝이였다. 쌀쌀한 바람이 옷자락을 흔들었다. 엄재식은 얼굴을 들어 시원한 바람에 이마를 식히였다. 다정한 별들과 끝없이 속삭이고싶은 밤이였다.

엄재식은 생각에 잠겨 공장마당을 걸어갔다.

지난날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인민을 위해서 그렇게도 많은 일을 해온 지배인동지가 아닌가.

어버이수령님께서 아이들 쓰는 책이며 연필이며 색종이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것을 마련해주겠는가 하여 깊이 심려하고계신다.

그런데도 지배인은 손자녀석이 장난이 심해서 가방의 멜끈이 끊어졌다고만 생각한다. 철호는 평양에서 사온 책가방은 끈이 안끊어진다고 대답한다.

엄재식은 가슴속에 가득찬 이 모든 말을 지배인에게 그대로 터놓고싶었다.

그래서 그의 걸음이 자기도 의식하지 못한채 지

배인실앞에 와서 멎었는지 모른다.

불이 환히 켜있는 지배인실창유리에 등을 돌려대고 서있는 지배인의 모습이 비꼈다. 피로한듯 약간 고개를 숙이고 서있는 지배인의 모습을 보자 자기 말이 지배인에게 아프게나 들리지 않을까 싶어 주춤거렸다. 자기를 아들처럼 안아주고 업어주던 지배인어머니에게 아픈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문고리에 손이 가지 않았다. 그러나 말해야 한다.

채식은 지배인실문을 열었다.

《밤에 어떻게... 자 여기 앉아요.》

지배인은 어쭙게 웃으며 의자를 당겨 자리를 권했다.

엄채식은 지배인이 내놓는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지배인도 그와 마주앉았다.

순간 침묵이 흘렀다. 좀처럼 입이 열려지지 않았다. 어색한 분위기가 돌았다.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그러다가 몸져 누겠어요.》

지배인이 먼저 어색한 분위기를 깨뜨렸다.

《고맙습니다. 지배인어머니!》

채식은 이렇게 대답하고도 생각했던 말이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공연히 손뼉눈만 들여다보다가 조리있게 한다는 말이 생각한것과는 전혀 다르게 나갔다.

《지배인어머니! 우리 공장에서도 평양상품 못지 않는 제품을 생산합니다. 철호의 책가방끈이 다시는 끊어지지 않게말입니다. 저는 지금 1호로라의 덜커덩소리가 어쨌지 이 공장을 처음 세우고 기계를 만드느라고 달구지를 끌고다니던 그 덜커덩소리처럼 들립니다.》

엄채식은 제가 한 말을 되새기자 무엇인가 문득 생각되어 지배인에게 건성 인사를 하고 나와버렸다.

지배인도 의아한 표정으로 채식을 쳐다보았다.

엄채식은 발길을 돌려 공장뒤마당에 있는 자기 사무실쪽으로 향했다. 천천히 걸어가는 그의 눈앞에 아득히 지나간 어린시절의 추억들중에서도 지배인어머니가 자기를 안아주고 업어주던 그 비내리는 밤이 그렇듯 생생히 떠올랐던것이다.

...어두운 밖에서는 비가 내렸다. 공장유치원방안에서는 어머니가 데리러오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놀고있었다. 놀다가 누구든지 어머니가 오면 그 아이는 기뻐서 달려가는것이였다. 채식은 어머니가 자재지도원으로 일하기때문에 언제나 제일 늦게야 유치를 나서곤했다. 그날밤도 다른 아이들은 다 가고 채식이 혼자 있다가 언제 잠이 들었는지 알지 못했다. 채식은 지기 몸이 공중 들리는것을 느껴 눈을 떴다.

《엄-마》

그러나 그를 안아올린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지배인이였다. 채식이 어리둥절해하자 지배인어머니는 채식을 품에 꼭 안았다.

《엄만 이제 온다. 우리 집에 가서 저녁이나 먹자. 너의 엄만 기계종합공장에 뭘 좀 얻으러 갔는데 비가 와서 못오는게구나.》

지배인어머니의 따뜻한 품과 다정한 말은 채식의 마음을 포근히 감싸주었다.

지배인은 채식을 데리고 비오는 문밖에 나서자 쓰고왔던 보를 채식의 잔등에 씌워주고 그를 닦아엮었다. 채식은 부끄러웠다. 아이들이 보면 애기처럼 엮혔다고 놀려줄것이다. 그러나 어쩌나 기분이 좋은지 내리고싶지는 않았다.

공장에서 지배인어머니네 집까지 그는 그렇게 업혀다녔다....

이 잊을수 없는 추억은 엄채식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면서 지배인에게 말을 해야 한다는 리성의 목소리를 눌러버렸던것이다. 나에게는 어머니나 다름없는 아니 어머니보다도 더 존경하던 지배인동지에게 어떻게 아픈말은 한단말인가. 엄채식은 공장뒤마당을 오래동안 거닐었다. 어머니나 다름없이 다정하고 존경하는 지배인동지에게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게 될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였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책상우에 연구소에서 가지고 온 발포레자 견본과 철호의 책가방끈에서 잘라낸 흰 비닐끈 조박이 한데 놓여있는것을 보았다.

앞으로 발포로가 되면 생산하게 될 레자견본품과 지금까지 이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레자가 뚜렷한 대조를 이루어 엄채식의 눈에 비쳤다. 엄채식은 그 어떤 분발심같은것이 솟구쳤다. (아니다. 말해야 했다. 내가 단순한 인정선에 끌려서 어버이수령님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지 못하고 지배인을 따끔하게 일깨워주지 못했단말인가. 너는 소조원이 아니냐. 수령님께서 과견해주신 혁명의 전위...)

엄채식은 지배인방에서 그냥 나온것을 오래도록 후회하였다.

×

×

어떻게 할것인가. 새해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배인의 말대로 기다릴가, 아니다. 그럴수 없다. 기다리다니... 그렇게 되면 공장에서는 전애와 다름없는 덜커덩소리가 울려나올것이며 여전히 질이 낮은 레자가 나올것이고 철호는 벨가방이 아니라 낚가방을 가지고 또 한학년도에 올라갈것이였다.

이렇게 되면 지배인은 자신을 돌이켜보지 않게 될것이며 현상유지나 하고 그날그날 머물어물해서 지나갈것이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지난날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많은 일을 한 지배인동지가 언제나 변함없이 어버이수령님께 충성다하는 대오의 앞장에 서서 나가도록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말하기 어려운 인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지배인동지가 뉘우칠수 있도록 말해야 한다. 잊저녁에 하지 못한 말을 꼭 해야 한다.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이 이 땅우에 활짝 꽃피도록 하기 위한 길에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끌어 주는것이 혁명소조원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충동이 엄재식을 건설자재상사로 이끌었다. 자재과장이라는 나이 지긋한 사람앞에서 엄재식은 일용품공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다. 그리고 들고간 가방을 열고 발포레자 견본과 철호의 가방끈에서 잘라낸 비닐조박을 꺼냈다.

《과장동지, 이걸 좀 보십시오. 여기 일용품공장에서 이런 염화비닐발포레자를 생산하려고 지금 설비를 만들고있습니다. 이 레자를 좀 보십시오.》

엄재식은 철호의 가방끈에서 잘라낸 흰비닐조박을 내보였다.

《여기 일용품공장에서 생산하는 레자는 이렇습니다. 이걸 불품도 없지만 질기지도 못합니다.》

자재과장은 물론 방안에 빙 둘러섰던 사람들도 어안이 병병해서 엄재식의 이야기를 듣고있었다.

엄재식은 힘을 내어 더 열렬하게 말을 이었다.

《우리 아이들이 레자의 질이 낮아서 가방끈이 자주 끊어지니까 메고다니는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다닙니다. 이 고장인민들에게도 좋은 일용품이 차례지고 인민들의 생활이 더 좋아지면 어버이수령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산형강이 없어 설비제작이 늦어지고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엄재식의 이야기를 다 듣자 창고장인듯한 한사람이 자기네 창고에 쓰지 않아 두어둔 산형강이 좀 있다고 했다. 그는 창고장을 따라갔다. 산형강을 보았을 때 엄재식은 기쁨의 눈물이 핑 돌았다.

엄재식이 그달음으로 공장에 돌아온것은 날이 어두운후였다. 그는 곧바로 지배인실로 갔다.

지배인은 소조원동무가 찬랭기와 함께 방에 들어서자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데 갔댔수? 시소조책임자동지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설명절엔 모두 집에 가서 쉬도록 토의됐단만. 보배동무가 기뻐하겠소...》

엄재식은 지배인의 말을 못들은듯이 반갑게 말했다.

《지배인동지, 산형강을 얻었습니다.》

《산형강을?! 어데서?》

《건설자재상사에 산형강이 있습니다.》

《…………》

말없이 소조원을 쳐다보는 지배인의 눈에는 저으기 놀라는 빛이 떠올랐다.

《빨리 실어와야 하겠습니다.》

《그런걸 나는 총국에다만 독촉을 했군요.》

이렇게 말하는 지배인을 엄재식은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소조원은 심중한 낯색을 지으며 자리에서 앉았다.

《지배인동지, 말이 난김에 솔직히 말하면...》

소조원은 다시 한번 지배인을 쳐다보고서 말을 이었다.

《지배인동지는 달라졌습니다. 그전에처럼 공장일에 애쓰지 않고 모든걸 우에서 해결해주기만을 바라고있습니다.》

철숙지배인은 희끗희끗한 머리를 쓸어올리며 재식을 쳐다보았다.

공장과 함께 20여년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은 여전히 공장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해온 그였다.

《지배인동지, 전 어머니한테서 지배인동지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지배인동지는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인민들에게 일용품을 넉넉히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1호로라를 만들 때 광산에 가서 전동기를 실어오던 그 밤의 이야기를 어머니는 늘 들려주곤합니다. 어머니는 그때의 지배인동지의 마음을 피로혀주었다고 지금도 뉘우치곤합니다.》

철숙지배인은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섰다. 창문으로 다가갔다. 멀리 지나간 시련속에 투쟁을 충만했던 그 시절의 자기를 엄재식은 돌이켜주었던것이다.

...미국놈들이 던진 폭탄에 파헤쳐졌던 흔적이 아직도 가시지지 않은 달구지길, 억수로 퍼붓던 비, 수렁에 빠져서 움직이지 않던 달구지, 사람도 소도 달구지우에 실은 전동기도 다 젖었는데 어둠은 짙어가고 길에는 자동차의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다. 두 녀인은 안간힘을 쓰며 달구지바퀴를 수렁에서 굴러내려고 애썼으나 보람이 없었다.

《철숙동무!》 갑자기 뒤에서 보배가 찾았다.

《철숙동무, 광산에서 래일이면 자동차를 주겠다는걸 괜히 떠났어요. 정말.》

보배의 말에는 푸념이 섞여있었다.

철숙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보배까지 이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다니... 그러나 철숙은 그에게 자기 생각을 말할수 없었다.

그는 소고삐를 놓고 달구지뒤로 갔다.

《보배동무, 동무나 나야 미국놈에 대한 원한이 가슴에 사무친 사람이 아니요. 어려울 때마다 남편들의 원수를 갚는 마음이 되자요. 그분들이 목숨바쳐 지켜낸 이 땅에 우리는 훌륭한 생활을 꾸려놓자

요.》

보배는 흠칫 놀라듯 했으나 아무말도 안했다. 얼굴로 흐르는것이 눈물인지 비물인지 뜨겁고 찻찻한 것이 그냥 입으로 흘러들었다. 그 어떤 초인간적인 힘이었던가. 두 녀인은 끝내 달구지를 수령판에서 끌어냈다...

아- 그때의 그 열정과 의지를 내가 못가졌단말인가?

《지배인동지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그 신임에 보답하려는 열정이 없습니다.》

《뭐라구!》

지배인은 무서운 그 무엇을 발견한듯 눈을 크게 떴다.

《그렇습니다. 달구지를 끌고 비속을 뚫고오던 그 마음이 지금은 없습니다. 달구지가 없으면 등에 지고 머리에 이어서라도 공장을 꾸리겠다고 아글타글 하던 그 열정이 없습니다.》

《그만 해요, 소조원동무!》

지배인은 돌아섰다. 창밖으로 공장안을 하염없이 바라보고있었다. 그의 어깨숨이 세차게 내뿜리고 있었다.

《우리 일꾼들이 일을 잘못해서 아버지수령님께 심령을 끼쳐드리고있습니다.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가 제대로 가닿지 못하고있습니다.》

《소조원동무!》

철속지배인은 재식을 부르더니 천천히 돌아섰다. 《은연중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는데는 모르지만 하여간 고마와요.》

철속지배인은 무엇인가 접수되지 않는것처럼 이렇게 말하고는 입을 열지 않았다. 재식이기도 침묵을 지켰다.

이때 문이 벌럭 열렸다. 얼굴에 기름자국이 묻은 경수가 털모자를 빼다하게 쓰고 병글거리며 들어섰다. 산형강을 얻었다는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기뻐서 들어선 그는 엄재식의 손을 짹 잡으며 떠들썩했다.

《소조원동무! 수고했어요. 사무실로 가세요.》

엄재식이 경수에게 끌려나가며 지배인에게 부탁했다.

《지배인동지, 래일아침 자동차를 뛰게 조직해주십시오.》

두 젊은이가 밖으로 나갔으나 철속지배인은 한동안 멍히 서있었다.

지배인의 번거로운 생각은 전화벨이 울려서 끊어졌다. 수화기에선 일용품공장인가고 묻고는 3대혁명소조원을 바꿔달라고 했다. 그러더니 상대방에서 먼저 소조원을 찾는 사연을 말했다. ... 낮에 광업자재상사로 일용품공장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이

와서 산형강때문에 몹시 안타까와했는데 창고에 알아보니 산형강이 있다는것이다.

(그럼 엄동무는 그 먼 자재상사에도 갔단말인가.)

지배인은 상대방의 말에 응대하는것조차 잊고 생각에 잠겨있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상대방에서 다시 찾았을 때야 그는 펄쩍 정신이 들어 대답했다. 그는 수화기를 천천히 놓았다.

뼈아픈 자책은 더욱 그를 파고들었다. 지배인은 자기의 모든 생활을 날날이 돌이켜보고싶은 그런 강한 충동에 사로잡힌채 사무실을 나섰다.

소조원을 다시 만나보고싶었고 그자신의 이야기를 더 듣고싶었다.

지배인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엄재식이 지배인을 반갑게 맞았다.

《지배인동지 어떻게? 앓으십시오.》

철속지배인은 조용히 의자에 앉으며 느닷없이 이렇게 말했다.

《보배동무가 여기일을 알면 지배인을 얼마나 욕하겠소. 가슴아파할거예요.》

엄재식은 지배인과 마주앉으며 기쁜 얼굴로 말했다.

《우리 어머니 제가 일을 쓰게 못해서 지난날 그렇게도 많은 일을 하신 지배인동지를 잘 도와드리지 못했다고 가슴아파할겁니다.》

철속지배인은 고개를 들어 엄재식을 처음 보기도 하는듯이 바라보았다. 눈곱이 뜨거워 얼른 고개를 돌렸다.

×

×

맵짠 추위를 몰아온 찬바람은 뽀얀 눈가루를 공중으로 말아올렸다.

철속지배인은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젊은이들과 산형강을 싣고있었다.

한참 일하던 경수가 허리를 펴고 지배인을 바라보았다.

《지배인동지, 우린 아침에 오다 학교앞에서 철호를 만났어요. 소조원동무가 이제 우리 공장에서도 평양책가방같은 좋은 책가방을 만들게 된단니까 철호는 할머니가 그런 말을 안했다면서 믿지 않아요.》

《그녀석이 오늘아침에도 할머니한테 이기겠다고 먼저 달아빠는바람에 내 손자녀석한테 보고를 못했다고요.》

《보고를요? 하하하...》

지배인은 젊음이 되살아나는듯 젊은이들과 함께 유쾌하게 웃었다.

나의 수기

김성관

나의 희망은 항해사가 되는것이였다. 조타를 익 세계 틀어쥐고 산갈은 파도를 헤가르며 대양멀리 큰 배를 몰아가는 항해사의 일이야말로 얼마나 보람찬것인가!

내가 일찍부터 이런 용감하고 억센 항해사로 되기를 원한것은 바다가를 제집마당처럼 뛰어다니며 어린시절을 보내였고 파도소리에 잠이 들고 깨어나면서 파도소리와 더불어 자라왔기때문만은 아니였다.

청년시절엔 하루 사이에도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혁신자가 되고 이 세상 으뜸가는 영웅호걸까지도 다 되여본다지만 나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나역시 영웅이 되고 교수가 될 꿈을 꾸었다면 그것은 바다의 영웅, 바다의 교수가 될 꿈이였다. 그리하여 나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자 상급학교에 가기를 마다하고 무전수를 지망한 애숙동무와 함께 창포수산사업소로 오게 되였다.

7월의 무더운 바람이 숨막히게 훅훅 불어오는 어느날이였다.

나는 한달동안이라는 안전교양과 기능전습끝에 원양프랄선 53호에 배치받게 되였다. 내가 선박에 도착하자 나를 제일 반갑게 맞아준 사람은 박대범 선장이였다. 그는 키가 꺾죽한 중년이였다. 흰 반소매상의에 항해복인듯한 날이 선 검은 바지를 입었는데 그것으로 해서 사람이 매우 단정해보였다. 이마가 좀 벗어진듯한 둥글한 얼굴이 검실검실하게 타서 퍼그나 똑하고 뻑뻑해보이는것이 그의 특징이라고 할가? 그는 별로 독특한 생김새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선장 박대범이요.》하고 자기 소개를 한 그는 내 손을 줌안에 넣고 꺾 잡아흔들어주었는데 나는 그의 억센 팔뚝힘이라든가 결결하고 굵은 음성에서 그가 정말 산이라도 움직여나갈수 있는 대범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받게 되였다.

《선장아바이, 리영호라고 합니다. 많이 배워주십시오.》

《아하, 영호동무! 내 미리 말해두지만 우리 배엔 아바이가 없소. 모두가 동무란말이요, 알겠소?》

내가 얼굴이 벌개지자 그는 꺾 꺾 웃으며 앞장서서 선장실로 올라갔다.

선장실은 정결하였다. 폭신한 침대머리맡에 편수책상이 하나, 그우에 하늘색 갓을 씌운 탁상등이 놓여있었고 침대 맞은편벽에는 경위도가 가로세로 건너간 해구도가 걸려있었다.

《영호동무, 이젠 제집에 왔으니 마음놓고 편안히 앉소.》

하며 나에게 의자를 권한 그는 침대에 가서 앉았다.

그는 처음부터 아무 가식없이 나를 《동무》로 대해주었는데 나에게에는 그것이 도리어 어색하였다.

나는 그날 시간가는줄도 모르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바다와 바다의 무진장한 자원에 대해 들었고 먼 북방의 어장에 대해서도 들었고 그곳으로 가는 과정의 신비한 이야기도 들었다.

《저기가 그 얼음산구역이요. 그곳을 지나면 물개마당이 있소. 그리고 저긴 난파구역이요. 아무리 잔잔한 날에도 저기엔 파도가 산갈소. 노을이 류다르게 아름다운곳도 있소. 바로 저기 푸른 반점이 많이 박힌 저 옷쪽이요. 우리 동무들은 그곳을 노을이 아름다운곳이라 해서 노을밭이라 부르지. 이제 동무가 직접 체험하게 되겠지만.》

나에게는 듣는것이 모두 새롭고 동화적인 환상의 세계처럼 신비하였다. 학교시절에 나는 바다에 대해 별의별 환상과 의혹을 다 가지고있었지만 그것은 주로 장수의 무훈담 비슷한 그런 표상에서 오는 것이였지 현실속에 이런 세계가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것이다.

《바다란 환상의 세계요 미지의 세계지... 피끓는 청춘시절에 한가슴을 내대고 나서볼만한곳이지!》

하며 창문의 문장을 한열으로 밀어놓은 그는 둥그런 창너머로 파도우에서 어롱어롱 뒤흔기는 고기비늘같은 햇빛을 내다보고있었다.

《청춘시절! 참으로 좋은 때요! 꿈이 많은 시절이지.》

하며 몸을 돌린 그는 두눈귀를 약간 쪼프리며 장난기가 어린듯한 유정한 눈으로 나를 찬찬히 바라보았는데 그 표정은 차라리 천진스럽다고 할만치 공상가의것에 가까웠다. 뻑뻑하고 똑해보이던 첫인상과는 달리 그는 다감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어째서 예로부터 하늘과 바다우에 있는 물체를 가리켜 말할 때 동의어를 써서 《떠있다》고 하겠는가? 이것은 하늘과 바다사이에 그 어떤 공통성이 있다는것을 말해주는 증거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땅우에 있는것을 떠있다고 하는 법이야 없지 않는가. 다 아는 일이지만 바다밑에도 땅이 있다. 그럴진대 《떠있는》 물질과 두 《땅》 사이에 차있는 매질을 두고 말해볼 필요가 있을것이다. 물에서는 그것이 공기일것이요, 바다에서는 물일것이다. 이

런 의미에서 그는 바다를 하늘과 같은 하나의 공간적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어떤 공간인가? 대기권이요 성층권이요 하는 그 비밀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공간이 아니라 아직 무진장한 비밀을 간직하고있는 미지의 공간이라고 상상해보라. 암흑속과도 같은 어느 수천길 바다밑에 눈알이 초롱불같은 물고기들이 밤거리를 누비는 승용차들처럼 줄을 지어 천천히 헤엄쳐다니는 《수중거리》가 있을지 누가 알랴.

《그래서 나는 왕왕 그 미지의 공간을 개척하는 바다사람을 하늘을 나는 비행사보다 앞자리에 놓곤 하오. 그렇지 않소? 영호동무! 물론 이것은 내 개인의 주관이지만... 영호동무, 어쨌든 바다로 오기를 잘했소. 참말 잘했단말이요!》

그날 대법선장은 나의 전망문제를 두고도 많은 조언을 주었다. 나는 몹시 감동하여 그에게 항해사가 될 나의 희망을 서슴없이 이야기하였다. 그역시 내 포부를 적극 지지하여주었다. 욕심대로 한다면 나는 항해사가 되기 위하여 당장 조타수로 일하겠다고 했을 것이었다. 그러자면 일정한 전문지식과 기능이 있어야 했으므로 그것만은 차마 말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무슨 일을 하겠는가고 묻는 대법선장에게 아무것이든지 시키는대로 하겠노라고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선박의 어머니가 되어주오. 그래 취사원을 해보지 않겠소?》

그는 나의 의사를 물듯이 한동안 말미를 주기는 하였으나 나는 그의 억양이라든가 표정에서 그 문제는 벌써 확정적이라는 위압감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너무도 예상외의 일이였기때문에 무슨 대답을 했으면 좋을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이것은 내가 로동의 귀천을 가린다거나 좋은 일만을 바라서가 아니었다. 다만 내가 아직 한번도 항해사와 취사원을 결부시켜 생각해본적이 없었기때문이었다. 요리학과 항해학이 털끝만치라도 비슷한데가 있는가?

《허허허, 마음에 없는 모양이군. 그렇지만 한번 해보오. 재미있소. 보람도 있구. 명절때면 음식을 쟁기느라 한밤을 꼬박 새우면서도 행복에 잠기는 어머니의 심정그대로지. 펄펄 뛰는 생선이 늘 있겠다 그저 동무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 동무들의 입이 노상 향아리처럼 벌어지게 할수 있소!... 아마 동무들이 잘 도와줄거요. 누구나 한번씩은 취사원을 해보았으니까.》

이쯤 되니 나는 울며 겨자먹기로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의 깊은 심중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는 육체적면에서까지 나를 아껴주려했던 것이었다.

처음 바다에 나오면 제일 귀한것이 잠이다. 그물을 한번 넣으면 두시간동안 끝다가 다시 꺼올리는

데 그 두시간사이에 어로공들은 잠을 자야 한다. 그러다보니 영 통잠을 잘수 없는것이다. 나와 같은 신입어로공들에게는 이것이 제일 참기 힘든 문제였다. 그러나 유일하게 통잠을 잘수 있는 사람은 취사원이었다. 밤에는 폭 잘수 있으니까.

그래그런지 배에서는 어로공이 새로 오면 취사원부터 시키는 관습이 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나는 이것이 신입어로공들을 아끼는 오랜 어로공들의 말없는 동지적인 배려라는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랬던것만큼 나는 그저 나의 앞길이 막히는것처럼만 생각했던것이다.

X X

항해사가 되려던 나의 바다생활은 수레바퀴같은 타륜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조타실이 아니라 뜬김이 뽀얀 취사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나의 머리에는 바오리같은 금띠가 돌리운 운두높은 둥글모자가 아니라 하얀 밀가루빵같이 동실한 위생모가 씌여졌다. 앞은 번번하고 뒤가 쪽 짜개진 취사복의 좁다란 소매에 팔을 꿰기란 정말 죽기만큼이나 딱 질색이었다. 그래서 차마 취사복은 입지 못하고 한심해서 쌀케우에 앉아있는데 대법선장이 취사실로 왔다.

남의 속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는 오자바람으로 걸걸하게 웃으며 룡담을 하였고 꺼리낌없이 위생복을 입고 팔소매를 걷어올리더니 밥을 지으면서 어석버석해하는 나에게 이것저것 대주기 시작했다.

쌀은 몇번을 씻되 너무 더운물에 씻으면 지방질이 다 빠져나간다는것, 밥이 잦은 다음에는 폭 띄워야 구수하다는것, 물고기회는 어떻게 치고 가재미 생구이는 어떻게 하고 깍두기는 어떻게 담그고 방어로는 무엇을 해야 제 맛이 나고 붉은도미로 음식을 할 때에는 어떻게 다루어야 제 빛같이 살아서 먹음직스럽다는등 별별것을 다 알려주었다.

칼도마장단을 맞추어가면서 배추를 썰는 솜씨역시 보통이 아니었다. 손바닥처럼 납작한 식칼조차 그의 손안에서는 얼마나 나긋나긋하게 구는지 나에게서는 그저 황홀할 지경이었다.

《부럽소? 처음에는 나역시 취사원노릇을 했소.》

그는 병긋이 웃음을 짓고 나를 돌아다보며 솜씨가 어떠냐고 묻기도 했다.

모를 일이었다. 그가 취사원을 했다는것은 믿기 어려웠지만 손에 폭 익은 요리솜씨를 보면 사실인것 같기도 했다.

학교시절에 나는 학급의 축구선수로부터 학교축구부에 뽑히워간 일이 있었다.

나는 그때 벌써 일정한 경기경험을 가지고있었다. 그럼에도 학교축구지도원은 달리기요 뛸뛰기요 하는 예비훈련만을 시키더니 닷새후부터야 나를 경기에 출전시켰던것이다. 닷새! 꼭 닷새동안이었던것이다.

나는 내가 취사원을 하게 된것도 이런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 마음이 좀 가벼워졌고 취사복을 입기가 한결 험해지었다.

나는 첫날에 벌써 취사원이란 대범선장에게서 들었던것보다는 흥겨운 일이 못된다는것을 깨달았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게 생각되었던것이다. 그렇지만 취사원을 하면 배동무들과 빨리 친숙해질수 있다는 그의 말은 전적으로 옳았다. 사흘쯤 지나서부터는 벌써 매 사람의 성격과 취미같은것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짹짹한것을 좋아하는 사람, 매운것은 좋아하는 사람, 뜨거운것을 좋아하는 사람, 빨리 먹는 사람, 데리러 가야 오는 사람, 《특식이 뭐 좀 있나?》 하며 배식구를 기웃이 들여다보는 사람, 《어, 날씨두 되게는 물쿠는데》 하며 탄전을 쓰는 사람, 지어는 식당에 들어서자바람으로 《어머니, 나 배고파! 빨리! 빨리!》 하며 설레발을 놓는 사람... 그야말로 스무명의 배사람이 어찌면 그리도 다 제각기인지 몰랐다.

무전수동무는 식당으로 들어갈대신 언제나 취사장문을 슬며시 열군하였는데 내 등판을 철썩 갈기는 사람이 있어 흠칫 놀라 뒤를 돌아다보면 틀림없이 줄이 간 내의를 입은 그가 입을 하 벌리고 웃어대는것이였다. 나이에 비하여 나의 몸도 그리 약한 축은 아니였으나 그와 마주설 때면 씨름군앞에 어린 아이가 선듯한 느낌이 들군하였다. 뚱뚱한 몸에 너부죽한 얼굴과 서글서글한 눈과 덩실한 코로 하여 인심이 후해보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첫날부터 식사를 제때에 하지 않아 내가 몇번씩 데리러 가면서 애를 태운 일도 있었다.

한번은 입항하자바람으로 집에 들어갔던 그가 다음날아침 늦게 나온 일이 있었는데 대범선장이 《우리 작곡가동무가 장가를 일찍 들더니 늦잠이 많아졌어.》 하며 놀려주자 기관장이 또 《빨리 송아지같은 아들을 봐야 그 새서방때를 벗어.》 하고 맞장구를 치는통에 한바탕 웃은 일도 있었다. 하여튼 배사람들은 그를 이름대신 《작곡가》라 부른다는가 《새서방》이라고 놀려대기를 좋아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두가지 별명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작곡가》라는 별명을 두고 말한다면 원래 내가 음악보다는 체육을 좋아하였기때문에 그가 음악을 좋아하건말건 거기에는 흥미가 없었고 《새서방》이라는 별명을 놓고 본다면 지난해에 장가를 든 사람더러 아직도 그렇게 부르니 너무 낡았다는 의미에서 나의 비위에 거슬렸던것이다. 매일 아침 수많은 새 소식과 새로운 이야기로 교실안이 터지게 떠들어대던 나에게 있어서 지난해의 이야기같은것이 흥에 겨울리 없었다.

내가 무전수를 몇번씩 데리러 가면서 애를 태우던 그 첫날아침에 그는 설것이를 다 끝낸 다음에야

손풍금을 뱅뱅거리면서 식당에 나타났다. 나는 식사가 뒤틀려 거들떠보지도 않고 식사를 내주었다. 그런데 조금후에 배식구로 빈 식기가 불쑥 들어왔다.

《뭐예요?》

나는 물었다.

《생선국 한그릇 더!》

《없어요.》

사실 너무 늦게 왔으니 국이 더 있을리 없었다.

《하, 이 친구 처음이 돼서 잘 몰랐구만! 나는말이야, 국 한그릇을 먼저 먹고 다음그릇부터 밥을 먹어. 알았지?》

하며 난처한듯 입을 하 벌리고 배식구를 들여다보던 그는 반죽종게 작은 눈을 한번 꿈쩍해보이기까지 하였다.

(흥, 늦잠잔 주제에 곱배기는 잘두 청한다. 그리구보니 저 친구는 곱배기대장이로구나!)

그리하여 나는 무전수에게 《곱배기대장》이라는 새로운 별명을 붙이게 되었다.

조기장 의준동무는 무전수와는 판판 달랐다. 그는 맨밥 한그릇에 짹짹하게 절구어 구운 이면수한 토막이면 그만이었다.

그는 몸집이 비교적 작았고 기관실에서 해빛을 많이 보지 못하여 그런지 얼굴이 해쓱하였다. 그는 늘 채양을 뜯어버린 누런 모자빵만을 쓰고다니었다.

모자엔 얼룩덜룩 기름이 묻어있었지만 풀기운이 뻗뻗한 곤색작업복은 기관을 다루는 사람답지않게 언제나 말쑥하였다. 그가 세모진 눈으로 한번 쏘아볼 때에는 참대가시로 얼굴을 꼭꼭 찌르는것 같은 느낌이 들군하였다.

《의준동무는 원칙이 강하지. 의로운것을 지키라고 이름까지 그렇게 지어준 모양인데 정말 의준이답단말ियो. 배울 점이 많은 동무요.》

대범선장은 청년들을 나에게 소개할 때 이런 말을 들려주었었다. 그만큼 그의 생활에서는 거친대가 없었다. 식당에서만 보더라도 식사를 다한 다음해는 식기를 깨끗이 가시여 배식구로 내보내주었고 《잘 먹었어.》 하는 인사말을 남기군하였다.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그를 《꼭지딱》이라고 불렀다.

나는 이런식으로 열흘도 못되는 사이에 《설레발》이요 《꽃고추》요 《생선국》이요 《통배추》요 하는식으로 식성에 따라 동무들의 특징을 기본적으로 새겨두었다. 어찌다가 국을 못끓인 때에 《생선국》이 식당으로 들어서면 나는 제풀에 등이 달아 《국을 못끓였어요!》

하며 뿌루통해서 말하군했다. 그러면 동무들은 《오늘같은 파도에 국을 어떻게 끓여! 밥지은것도 다행이지. 우리 어머니 수고했어!》 하고 언제나 너그럽게 대해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에게는 그 너그러운 조차 웅당한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하였으며 어쩌다가 동무들이 이것저것 반찬을 찾는 때면 그들의 요구대로 다 내보내주면서도 속으로는 (아무거나 자실노릇이지) 하고 비꼬인 마음을 먹곤하였다.

아닌게아니라 밤낮으로 출렁대는 바다우에서 스무명의 식사를 보장하기란 고스란히 책상물림을 한 나에게는 그리 수월한 일이 못되었다. 아침설것이를 마치면 인차 점심차비를 서둘러야 했다. 랑장고에 들어가 통배추며 무우를 꺼내다가 씻어놓고 물고기도 손질해야 하였고 밀가루반죽 같은것도 미리 해놓아야 했는데 파도때문에 배가 항상 기울거리다보니 배에 발이 잘 붙지 않아서 자칫하면 취사장 바닥에 버치를 엮질러놓기가 쉬웠다. 제일 딱한것은 밥물을 제대로 맞출수 없는것이였다. 밥물이 가마안에서 대구 이글렁거리는바람에 츠렁하게 많아 보이기도 하였고 하얀 쌀이 건둥 드러나서 적어보이기도 하였기때문이였다. 가마속을 들여다보며 애쓰다못해 나중엔 화가 나서 나는 그만 가마뚜껑을 콕 달아버리곤했다. 그리고는 아궁에 와락와락 불을 지피곤했는데 이럴 때면 나의 속심을 미리 알고나 있었던것처럼 언제나 대법선장이 문가에 나타나서 병긔이 웃곤하였다. 나는 부끄럽기도 하고 약이 오르기도 하여 괜히 잘 타는 아궁속만 들추어 내굴을 피워놓곤하는데 그것때문에 눈이 알찌근해지고 눈물이 줄줄 쏟아지면 그때에는 정말 후끈 달아 투덜대곤했다.

그래도 대법선장은 아무 소리 없이 문설주를 짚고 서있곤했다. 나는 그가 웃고있는것인지 성을 내고있는것인지 알수가 없었는데 그럴수록 내 립장은 점점 웅색해지기만 했다.

《이런 날씨엔 밥물맞추기가 조련치 않소. 손등을 잠그어봐야지.》

결결하고 우선우선 한 목소리로 미루어 나는 그가 웃고있다는것을 알수 있었고 다소 웅색한 마음을 풀곤하였다. 그러나 나는 조타실로 올라가는 그의 구두발소리가 상갑판위로 두벅두벅 멀어져갈 때에야 비로소 자루속에서 풀려나온 사람처럼 팔소매로 이마의 땀을 뻑 문대며 안도의 숨을 내쉬곤하였다. 그러나 이것쯤은 문제가 아니였다.

《떠었-다!》

《풍어기 올라라!》

하는 갑판장동무의 범같은 고향소리가 찌영 울리고 뒤이어 어로공들이 와당탕거리며 갑판우를 돌아치고 《들고 놓고! 들고 놓고! 들고 놓고!》

하고 어깨바람을 일구며 1번로라수를 지휘하는 부선장의 호각소리가 가락맞게 울어댈 때에는 벌써 내 마음은 갑판에 나가있었다. 그럴 때면 가마속에서는 《못나가, 못나가, 못나가.》하며 취사복자락

을 붙잡듯이 단김을 뿔어대며 밥이 벌렁벌렁 끓었고 밥가마를 부추기듯이 아궁에서는 장작불이 불티를 탁탁 튕기며 활활 타오르고있었다. 나는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안이 달아서 환창으로 밖을 내다본다. 아니나다를가 수백마리의 갈매기가 왁자그르르 모여든 바다우에 수십톤의 정어리가 가득 든 허연 그물꼬리가 물속에서 고무공이 솟아나듯 등실 떠올랐다. 풍어다! 대풍어다! 대풍어의 기쁨이야말로 바다사람만이 누릴수 있는 특전이다. 벌써 이쯤되면 바다물속에라도 풍덩 뛰어들고싶도록 마음이 뚱뚱 떠올라서 손이고 발이고 다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무썰이가 손가락이 되는지 팔뚝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다급한 마음에 쫓기듯 송덩송덩 썰어서 국가마에 폭 쏟아붓고는 바람처럼 갑판으로 날아간다.

갑판에서는 벌써 산대질이 한창이다. 산대수가 포충망처럼 생긴 큰 산대를 그물아구리에 깊숙이 밀어넣으면 부선장의 신호에 따라 로라수가 데리끼줄을 감아올리고 그와 동시에 산대수가 산대자루를 앞으로 쏙 끄당기면 두툼은 실히 되게 물고기를 퍼담은 산대그물이 갑판으로 허궁 들려올라온다. 밀줄수가 재빨리 달려들어 데롱거리는 그물을 안고 돌아가며 그물밀을 움아맨 밀줄을 힘껏 나꾸어채면 삽시에 그물밀이 탁 터지면서 펄쩍펄쩍 뛰는 물고기들이 사태져 쏟아진다. 구수한 물고기냄새에 폭 파묻혀 웃고 떠들다가 문득 밥생각이 들면 그때야 나는 바빠나서 취사장으로 달려간다.

한낮의 쨍벌이 갑판우에서 자글자글 끓는 어느날이였다. 우리는 그날도 산처럼 퍼올린 물고기더미속에 무릎까지 빠지면서 바빠 돌아치고있었다. 그런데 이때 대법선장이 희색이 가득하여 조타실란간에 나타나더니 전보지 한장을 내흔들며 굵은 음성으로 소리쳤다.

《동무들! 모선에서 보내온 소식이요. 우리 배에 경사가 났소! 귀를 기울이구 모두들 듣소!

<무전수 배창수동무에게.

생남을 축하함. 속히 이름을 지어보낼것.

종업원을 대표하여 지배인.>》

바다우에 갑자기 환성이 터졌다. 청년들은 우르르 무전실로 달려갔다. 나오지 않겠다고 애들처럼 버둥거리든 무전수를 떠메고 갑판으로 나온 그들은 그를 모두거리로 허궁 들어올리였다.

《새서방때 벗었다. 영차!》

《아버지가 되였다. 영차!》

《영차! 영차! 영차- 아!》

웃음과 박수와 떠들림속에서 대법선장의 웃는 목소리가 또 한번 쩡 울리였다.

《자 또 있소!

<아주머니가 너무 기뻐서 돌아앉아 울었대요.

무전수 정애숙.>》

《돌아앉아 울었다? 건 왜?》

《애아버지가 갑자기 미워졌든게지.》

《하하하.》

《허허허.》

배사람들은 눈물이 글썽하여 허리들을 그러쥐고 바다가 들썩거리게 웃어댔다. 나역시 웃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때 배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떠들며 좋아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다보니 남들과 같이 무전수를 떠메고 돌아가지는 못하였다. 곱같은 사나이들이 비늘물은 고무옷채로 덩굴며 돌아가는것이 그저 재미있어서 나역시 유쾌하게 웃고 손뼉을 쳤다.

갑판에서는 무전수를 둘러싸고 떠드는 소리가 그칠없이 들려왔다.

《무전수 그 친구 아들까지 봤겠다. 흥분한김에 또 한곡 써내겠는데...》

× ×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은 바다우에도 세차게 타번지였다. 우리의 프랄어선대는 일망무제한 바다 한복판에 모여 북방의 어장을 개척할데 대한 열기모임을 가지였다. 어로공들은 저마다 대형가공모선 《백두산》호의 갑판에 뛰어올라 하루빨리 새 어장을 개척하여 다가오는 당창건기념일까지 년간물고기잡이계획을 150프로로 넘쳐수행하고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리자고 가슴을 두드리며 열변들을 토했다. 그리하여 우리 프랄어선대는 그길로 《백두산》호를 앞세우고 북방의 새어장을 찾아 먼길을 떠났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에 우리는 난과구역에 도착하였다.

수평선은 갑자기 지옥처럼 시꺼매졌다. 배머리에서는 집채같은 물덩어리들이 무시무시하게 굴러다니었고 그너머로는 잔뜩 겁을 먹은 토끼새끼모양의 매지구름꼬리가 뼈죽이 내다보였다. 폭풍을 예언하는 물까마귀들이 《파우 파우》 소리치며 그 꼬리사이로 황급하게 날아다니었다.

우리는 대범선장의 지시에 따라 배우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것들을 뽕뽕 동여매었고 어창우에는 물이 숨새어들어가지 못하도록 고무천을 씌우고 비끄러웠다.

그날밤, 나는 배가 난과구역을 통과할 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누워있었다. 그냥 자고싶었다. 이튿날 아침식사를 치른 나는 빨리 설것이를 하고 자리에 누우려 했다. 그런데 식사시간이 퍼그나 지났는데도 무전수가 나타나지 않는것이였다.

나는 그를 기다리다못해 (하긴 심분을 기다리는 것도 한시간으로 어겨졌으니까) 무전실로 찾아갔

다.

몹시 마음이 언짢았으나 애써 그것을 누르고 무전실문을 두드렸다.

《식사하랴요.》

안에서는 대답대신 손뽕소리가 들려왔다.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안으로 걸었는지 열리지 않았다.

《국이 식어요, 빨리 식사하랴요.》

나는 곱지 않은 말투로 재촉했다.

《가만 내 조금 있다 가겠어. 지금 뭐 좀 떠올라서 그런다니...》

한참후에야 이런 소리가 들렸다.

(영이 또 작곡이야.)

나는 그만 화가 나서 《마음대로 하랴요!》 하고 짜증을 내고는 침실로 곧장 돌아와 침대에 몸을 던지고 누웠다.

《바다사람이 무슨 그런 가느다란 정서에 빠져서 헛 참.》 나는 속으로 혼자 중얼거렸다. 졸음이 살췌이 밀려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꿈결에서처럼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다. 조기장 의 준동무가 와서 나를 불러냈다. 그를 따라 식당으로 들어갔다. 땡땡그런 식당안에는 걸이 꾸덕꾸덕해가는 밥과 싸늘하게 식은 국과 반찬이 땡그렇게 놓여있었다.

《이거 가마안에 넣어두면 못써? 늦게 오는 사람 비판은 후에 하더라도 따뜻하게 덮혀놓으면 안돼? 왜 그렇게 자기 하는 일에 영예감이 없고 동무들을 생각할줄 몰라! 영? 동무는 아무래도 비판 좀 받아야겠어.》

(이것두 내 잘못인가?)

나는 막 속이 끓어올랐으나 의준동무의 눈총이 무서워서 짹소리 한마디 못했다.

나는 그날밤에 사로청모임에서 되게 비판을 받았다. 그날 우리 배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결의실행정형에 대한 총화모임이 있었는데 총화뒤끝에 사로청원들만 의준동무의 기관실에 따로 모였던 것이다.

나는 왜선지 마음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답답했다. 의준동무가 일어났다. 평시에 것처럼 가느다란 웃음이 다정스레 담겨있던 그의 눈이 깔끔해지면서 불찌가 툭툭 튀어나오는것 같았다.

《영호동무에게 조직적인 방조를 좀 주어야겠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 사업에 대한 영예감이 없는가? 그것은 우리 배를 그저 고기배로만 보고 자신을 그 고기배의 취사원이라고만 생각하기때문입니다. 어째서 그럴것인가? 우리 프랄 53호는 적어도 나라의 수산전선을 맡아나선 조국의 한 구역이란말입니다. 영호동무로 말하면 그 구역의 주방책임자란말입니다.》

의존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지었다.

《그런 자각이 없다보니 영호동무는 동무들을 위해 일할줄도, 동무들을 아끼고 사랑할줄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뭘라구?!)

순간 나는 이상한 반감에 문득 머리를 들었다. 내 앞에는 줄간 내의를 입은 무전수가 고개를 수긏하고 앉아있었는데 어째서인지 갑자기 큰 눈이 둥그래지고 너부죽한 얼굴이 붉어졌다. 놀란것 같기도 하고 성난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다음순간 그가 성을 낸다고 단정하였는데 이것은 내가 53호에 온뒤 그에게서 두번째로 보게 된 성난 표정이었다.

한번은 내가 무전수동무에게 그의 고향에 대해 물은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는 낯빛이 달라지면서 지금과 같은 표정을 지었던것이다. 나는 무전수동무의 남모르는 아픈곳을 찔러놓은것 같아서 공연한것을 물었다고 자신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그때와는 정반대가 아닌가. 그런데도 나에게 도리어 성을 낸단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니 내가 받는 비판이 순전히 무전수때문인것 같이 여겨졌고 내가 바로 취사원을 하기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것처럼 생각되었다.

(더는 못참겠어.)

이쯤되니 공감되는듯하던 의존동무의 옳은 비판도 더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자 나는 억울한 마음을 안고 기관실을 나왔다. 등뒤에서는 시궁시궁하며 돌아가는 폭가라앉은 기관소리가 마치도 《참아, 참아》 하며 나에게 권고나 하듯이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그것이 시끄러워 서둘러 갑판으로 나서는데 무전수가 나를 불러세웠다.

《영호!》

《왜 그래요?》

나는 불시에 내뺨듯이 툭 쏘아붙였다. 그러는 나를 섭섭한듯이 멧치는 웃음을 짓고 멧하니 바라보던 그는 잠시후 나에게서 물려서며 시뭇하게 말했다.

《후에 말하자.》

(뭘 잘했다구 후에 말해! 동무하고는 말안하겠어.)

나는 울김에 조타실로 올라갔는데 조타를 교대했는지 선장은 없고 부선장만이 있었다. 다시 선장실로 갔다. 손기척도 없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니 대범선장이 밤색내의바람으로 탁상등이 환한 책상에 마주앉아 흥얼흥얼 코노래를 부르고있었다. 박력있게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발장단으로 박자를 맞추어가던 그는 나를 보자 모든 동작을 똑 그치고 반쯤 내게로 몸을 돌려앉았다. 화빨이 잔뜩 돌린 내 얼굴을 잠시 놀란 표정으로 들여다보던 그는 《무슨 일이 있었소?》

하고 물었다. 방금 조기장 의존동무에게서 들던 그런 날카로운 목소리도 아니였고 송곳같은 눈총도 아니었다.

나는 대범선장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은근한 눈길에서 후더운 인정을 느끼는 순간 눈물이 왈칵 치받쳐 머리를 숙이었다.

《비판을 받은 모양이군. 그런데는 어쨌단말인가? 고치면 그만이지. 안그렇소? 난 영호동무가 룡될 감인가 했더니 이제보니 미꾸라지도 못되겠구만.》 하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의 일을 너무도 하찮게 대해주는것만 같은 그가 못마땅하였기때문이었다.

《자, 판생각 말고 이리 와 앉소.》

하며 내 손을 끌어 침대에 앉힌 그는 이제껏 자기가 보고있던 종이장을 내앞으로 끄당겨놓았다. 16절지에 줄을 긋고 써나간 곡이었다. 그 밑공백에는 두글두글한 글씨로 쓴 가사가 있었다.

《우리 배에서 예술가가 자라고있소! 대견한 일이지. 무전수동무가 시를 쓰고 곡까지 붙였거던, 어디 한번 보오.》

조국을 그리는 노래였다. 나는 비로소 아침에 무전수가 왜 그렇게 대답도 하지 않고 손공금만 붙들고있었던지 알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미 무전수에 대해 옥땀하던 마음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다.

《이 가사를 좀 읽어보오. 조국을 그리는 감정이 좋거던. 우리 식이야. 우리 마음 그대로란말이야. 여기에 또 곡을 붙였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요. 영호는 이 노래를 빨리 한번 불러보고싶지 않아요?》

대범선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잠시 창밖에 시선을 던졌다. 배는 조국을 점점 멀리하며 북방의 어장을 찾아 쿵쿵거리며 씩씩이 달리고있었다.

《우리 무전수동무가 아들을 보았거던... 왜 시가 안나오겠소. 조국의 맑은 하늘을 그리며 그밑에서 사는 귀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시를 쓰고 노래곡조를 붙였을거란말이요... 아마 지금쯤 무전수동무의 아들이 포근하게 잠을 자고있을지도 몰라. 우리가 다 보고싶는데 그 동무야 오죽하겠소. ... 참 행복한 세대지. 좋은 세월에 태어난 복덩어리지... 아버지는 조국에서 멀리 떨어진 망망대해우에서 복둥이를 그리며 노래로 짓구, 복둥이 엄마는 너무 기뻐서 돌아앉아 울구...》

대범선장의 눈귀에 때없이 즐편하게 물기가 내배였다.

《왜 돌아앉아 울었겠소?》

하며 상반신을 돌린 그는 천진스러운 어린애처럼 나의 얼굴을 뻗히 쳐다보았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왜 생각해보지 않았소?》

《언제 그런것까지 생각할 짬이 있어요!》

통명스러운 나의 대답에 흠칫 놀라듯 《저를이

없다?》 하고 되뇌인 대법선장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다.

《음...》

어느덧 그의 이사이로 신음소리 비슷한것이 숨새어나왔다. 얼마후에는 벌써 그의 낮빛이 컴컴하게 굳어지였다.

나는 가슴이 섬뜩했지만 차라리 잘되었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될수록이면 진지하고 엄한 분위기속에서 나의 취사교대문제를 제기하고싶었던것이다.

《알겠소.》

나의 제기에 대한 선장의 대답은 이 한마디뿐이었다. 무엇을 알았단말인가? 도무지 표정을 보고서는 대중할수 없었으나 나는 말을 꺼낸김에 끝장을 보려는 심산에서 인계준비를 서둘렀다. 우선 취사장과 식당을 말끔하게 정리하였다. 그러느라고 실똥하여 돌아치고있는데 대법선장이 나에게 사업에 참고가 될것이라고 하면서 수첨만한 책 한권을 가져다주었다. 책을 본 순간 나는 그저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막히는것 같았다. 이렇게도 나의 심정을 몰라준단말인가. 그 책은 《료리상식집》 이였다.

나는 지금도 선장에 대한 그때의 내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지 알수 없다. 나는 그저 대법선장마저 나에게서 떠나가버린것 같은 야속한 심정에 사로잡혀있었다. 버랑을 뚫아오르다가 바줄이 끊어져 다시 낭떠러지밑으로 굴러내린것 같기도 했다. 해는 지고 어스름이 깃드는 절벽밑에 홀로 섰는듯한 고독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것은 다시 울분이 되고 발버등으로 변했다. 선장동지는 옳지 않다! 청년들이 아파하는것엔 눈을 감고 포부를 아껴줄줄 모르고 제기는 짓밟아버리고 자기의 의사만 내려먹이고... 그래 나를 영영 가마뚜껑에나 비끄러매놓고 걸핏하면 비판이나 할셈인가? 마음대로 하라지! 마음대로 하라지! 뭐가 마음대로야? 이건 관료주의다! 관료주의! 관료주의와는 투쟁해야 돼!

나는 울상이 되어 위생모를 뺄 벗어 취사장바닥에 집어던지고 《료리상식집》을 휘딱 줍안에 구겨 쥐었다. 어디든 대고 한바탕 해보고싶은 우뚝거리는 뺨머리를 누르지 못해 나는 그저 몸부림을 쳤다. 불길이 황황 이는 아궁이가 편똥 눈에 띄었다. 그러나 나는 차마 아궁속으로는 집어넣지 못하고 아무데고 힘자라는것 획 뿌려던졌다. 천정에서 탁 부딪치는 소리가 나더니 다시 찬장이 있는 구석쪽에서 툇썩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러나 한순간의 흥분과 반발이 지나가자 나는 울적해지기 시작했다. 말하기가 싫었고 사람들과 마주서기가 싫었고 누가 묻는것조차 귀찮게만 생각되었다. 갑판에도 드물게 나갔으며 침실 아니면 취사장에서 하루를 보내기가 일쑤였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외로와하였다. 나는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뽕뽕 묶어놓았고 그것으로 해서 자기 고독에 잠기

는 때가 많았다.

우리 배에서는 나 한사람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지였다. 동무들은 나를 측은한 눈매로 혹은 언짢은 눈매로 바라보기 시작하였으며 나를 조심히 해주었다.

×

×

우리 프탈어선대는 안개벼랑이며 얼음산구역도 무사히 통과하였다. 그곳을 지날 때면 마스트며 조타실이며 갑판에 얼음이 자꾸 얼어붙어서 우리는 가끔 도끼를 들고나가 얼음을 깨내야 하였다.

운동장만큼씩한 번번한 얼음덩이우에 주둥이가 희고 온몸이 새까만 고무차루같은 물개들이 한가하게 누워있는 물개마당을 지날 때에는 우리는 모두 갑판에 나와 물고기도 던져주었고 사람을 모르는 그놈들을 향하여 회파람도 불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조금도 맑아지지 않았다.

어느날이었다. 그날밤도 나는 쓸데없는 번민속에 잠겨 이불을 뒤집어쓴채 밤새도록 얹치락뒤치락하였다. 밤이 얼마나 깊었던지, 나는 이불깃새로 담배냄새가 솔솔 들어오는바람에 정신을 번쩍 처리였다. 언제 들어왔는지 대법선장이 허리를 꼴긋이 편채 침대머리맡에 있는 책상에 등을 기대고 앉아있었다. 방안은 캄캄하였다. 형체를 알아볼수 없는 어둠속에서 담배불이 빨강게 타들 때마다 수심에 잠긴듯도 하고 성이 난듯도 한 대법선장의 기름한 얼굴이 흰히 드러나군하였다. 담배가 다 타면 새 가치에 불을 갈아대면서 그는 말없이 앉아있었다. 이불을 꼭 뒤집어쓴 나를 묵묵히 바라보기도 하고 달리는 선창으로 줄줄이 흘러가는 하늘의 별무리를 이윽도록 내다보기도 하였다.

생각깊은 밤이었다. 선장동지는 나때문에 잠들수 없었고 나는 자기 고뇌에 다쫓기느라 모대기였다. 나는 꼼짝하지 않고 죽은듯이 누워있었다. 그러하니 피로왔다. 몸도 피로왔지만 마음이 더 쓸쓸하였다. 내가 프탈 53호에 처음 배치될 때만 하여도 그처럼 흥금을 터놓고 이야기했던 그 선장앞에서 왜 이렇게 죽은듯이 누워있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 저도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처음으로 어머니가 그리워졌고 아버지가 그리워졌고 속을 터놓고 밀려다니던 동무들이 못견디게 그리워졌다. 그리움을 참느라고 입술을 악무니 갑자기 설음이 치밀어 건딜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선장이 듣지 못하도록 이불귀로 입을 꼭 틀어막고 소리없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것은 나로서도 어찌할수 없는 일이었다.

《영호! 왜 우는가?》

드디어 대법선장의 추상같은 고함소리가 나의 숨길을 꺾 막는듯했다.

《우리는 동무가 학교에서 배운대로 훌륭한 바다사람이 되리라고 믿었소. 그런데 동무는 뭐요? 동

무들을 위해 일할줄 모르구 생각할줄 모르구 몸바칠줄 모르구 동무들을 아낄줄도 사랑할줄도 모르구... 무전수동무가 아들을 보았다고 남들은 다 기뻐하는데 동무만은 우울해서 온 배간을 설렁하게 만들구!》

사실 나는 그때 스무명의 배성원들이란 바다라는 엄청난 대자연과의 투쟁에서 운명을 같이하는 한 가정이며 바로 그것때문에 자기집 막동이가 감기에 열이 조금 나도 온 집안이 걱정애 잠겨 깊은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것처럼 나 한사람의 고독함이 그렇게 즐겁던 우리 53호를 건잡을새없이 설렁하게 만들었다는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던것이다.

《진정으로 영호동무가 동무들이 웃을 때 같이 웃구 그들이 울 때 같이 울어보았던말이요? 조국이 아끼고 조국이 믿는 그런 동무들과 같이 숨쉴줄 모르구 그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느낄줄 모르구 그들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맛볼줄 모르구 시대를 모르는 동무가 항해사가 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해 배를 몰겠소? 누구를 위한 항해사가 된단 말이요? 조국은 그런 항해사를 바라지 않소!》

대범선장은 억이 막히는지 여기서 말을 툭 끊었다.

《무전수동무만 해도 가슴속에 납덩이같은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이요. 동무가 만약 그것을 알려고 했더라면...》

하며 더 말을 잊지 못하는 그의 목에서 가래끓는 소리가 났다.

《이제는 동무가 학생이 아니요! 응석을 거둘 때 가 댔단말이요! 이 배의 주인두 동무들이구 이 바다의 주인두 동무들이란말이요! 다시한번 그따위로 물어보지!》

그는 문을 텅 닫고 나갔다. 나는 지금도 그가 성이 나서 나갔던지 가슴이 아파서 나갔던지 알지 못한다.

그가 나가자 나는 속이 후련한것 같기도 하고 억울한것 같기도 하여 이불속에서 실컷 울었다. 왜 우는지도 모르고 울음이 울음을 불러와서 그저 울었다.

이튿날아침에 나는 날이 밝아서야 잠을 깨었다. 깨고보니 밥이 또 늦었다. 아, 늦잠을 자다니, 욕먹어 싸지, 싸! 글썽 욕을 먹고도 또 늦잠을 자다니, 아아 늦잠을 자다니... 나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벌떡 일어나 의복 입을 생각조차 미처 못하고 내의바람으로 취사장에 달려갔다. 그러나 나는 취사장앞에서 온몸이 굳어져 말뚝처럼 서버렸다. 말끔히 정돈된 취사장안에서 대범선장이 밥을 짓고있는것이였다.

정신을 못차린다고 또 욕을 하겠지? 애군이라고 화를 내겠지? 에이참 욕하라지! 내가 교의적으로

그랬나?

나는 모순된 감정과 싸우면서 괜히 발가락만 움지락거리면서 그것을 남의 발처럼 내려다보면서 서있었다.

《왜 벌써 일어났소. 오늘은 마음놓고 푹 쉬라구! 눈두덩이 부석부석했구만.》

갑자기 측은하고 부드럽고 애정에 넘친 그의 은근한 목소리가 한결음 앞에서 들려왔다. 그 소리에 왜 그런지 그만 눈곱이 후끈해져서 입술을 꼭 깨무는데 대범선장이 찬장우에서 채면지가 뽀얗게 오른 책 하나를 집어들더니 그것을 툭툭 털며 말했다.

《먼지가 올랐구만!》

언제인가 내가 쥐여쭈린채 감감 잊어먹었던 《료리상식집》이였다.

순간 나는 자기의 혈육을 배반한것 같은 수치감 때문에 온몸의 피가 발밑으로 쭉 뿜혀나가는것 같은 현훈증을 느꼈다. 그러다보니 내 얼굴이 몹시 창백해졌던 모양인지 그는 너그럽게 웃음을 지으며

《잘 익혀두오!》

하며 그 책을 나의 손에 쥐여주었다.

나는 그 책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른다.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섰채 조타실로 올라가는 선장동지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입술만 지그시 악물었을뿐이 었다.

료리학과 항해학!

얼마전까지만 해도 그렇게도 하늘과 땅처럼 서로 달라보이던 그 두 개념이 이제 와서는 왜 그런지 뻔해야 뻔수 없는 하나의 분야로만 여겨졌다.

그리하여 나는 이날부터 항해학을 공부하는 심정으로 《료리상식집》을 익혀나가기 시작했다.

한달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조국에서는 한장의 긴 전보문이 날아왔다.

아, 그때의 기쁨, 그때의 환희를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우리 배사람들은 조국에서 오는 하나의 평범한 전보문도 대수롭게 대하지 않는다. 목마른 사람이 시원한 샘물을 만나듯이 우리는 자그마한 조국의 소식 하나하나를 기쁨과 감격으로만 대한다.

더우기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을 실고온 그 전보문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안았는가 하는것을 상상해보시라!

나는 그 전보문을 여기에 소개한다.

《머나먼 북방의 어장을 찾아 수고하고있는 그리운 동무들, 사랑하는 동지들, 기뻐하오! 기뻐해주오!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사업소에 다녀가시였소. 이 행복과 이 영광을 동무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는 이 지배인의 심정은 그저 괴롭소.》

여기까지 읽고난 대범선장은 벌써부터 감격에 젖어드는지 두눈을 습쩍거리며 우리를 한번 빙 둘러보고서야 계속하였다.

《...동무들이 당창건기념일까지 년간물고기잡이 계획을 넘쳐수행할 충성의 결의를 안고 북방으로 떠났다는 말씀을 들으시자 그이께서는 대견해하시며 동무들을 높이 치하하시었소.》

배는 파도에 조용히 흥떡이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내 책상우에 놓인 편지들을 주의깊이 살펴보시다가 봉투에 넣으려던 한장의 사진에 시선을 멈추시었소. 그 사진을 집어드신 그이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고 유심히 뜯어보시는것이었소.

<수령님, 프탈 53호 무전수동무의 첫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보고싶어하겠기에...>

<그럼 이 애는 아버지가 바다에 나가있을 때 출생하였겠구만.>

내가 그렇다고 말씀드리자 아버지수령님께서 창가로 다가가시여 잠시 출렁이는 바다를 내다보시며 생각에 잠기시는것이였소.

<음-또 우리 어로공이 생겨났소. 그놈 참 복스럽게 생겼구만. 빨리 자라서 한몫 단단히 해야지... 잘 생각했소. 좋은 사진이요.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싶겠소.>

내가 가족들의 편지며 그리운것들을 넉넉히 싣고 나가 동무들과 같이 바다에서 명절을 쇠려고 한다는 말씀을 올리자 그이께서는 미소를 거두시고 멀리 수평선쪽을 바라보시는것이였소. 그리고 해안가에 높이 서있는 어로공들의 아빠트어로 시선을 옮겨가시는것이였소.

이윽고 아버지수령님께서 부드러운면서도 근엄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소.

<이것 보오, 지배인동무! 우리는 이번 명절을 우리 근로자들이 충분히 휴식하고 즐겁게 보내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로 마음을 쓰고있소. 온 나라에 웃음이 꼭 들어차게말이요! 그 웃음속에는 웅당 우리의 먼바다 어로공들이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웃는 웃음도 섞여있어야 하오. ...몇통의 편지를 가지고 가족들의 상봉을 대신할수야 없지!》

다시금 먼 수평선을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힘주어 말씀하시었소.

<지배인동무, 어로공동무들을 설복해서 다 입항하도록 하시오! 우리는 명절을 즐기는 먼바다어로공동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듣고싶소! 몇백톤의 물고기보다 그 웃음이 더 귀중하오!>

그이께서는 떠나시면서 <배가 다 들어오거던 행복한 이 북동이네의 가족사진이나 한장 보내주시오.>

라고 하시고는 꼭 배가 다 들어오게 하라고 거듭 당부하시었소!

선장동지들! 그리운 동무들! 대범동무! 창수동무! 부디 성공을 바라오. 그리고 명절에 늦지 않도록

입항날자를 지키시오.

지배인.》

대범선장의 두볼을 타고 샘줄기같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무전수동무는 종시 참아내지 못하였다. 그는 갑자기 그 큰 몸집을 나에게 실으면서 나를 자기의 몸에 꼭 껴안았다.

《영호! 나를 욕해라. 너 나때문에 괴로왔지. 네가 나때문에 비판을 받을 때 난 정말 가슴이 아팠다. 언젠가 너 우리 고향에 대해 물은적이 있었지? 내 집은 당의 품이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미국놈들이 학살했다. 나도 죽이려고 했다. 내 어린 가슴에 총알을 박으면 너무 행복하게 죽는다고 그래서 놈들은 나만은 쏘지 않았다. 쓰러진 어머니의 젖가슴을 허비며 울다울다가 목이 타죽으라고 쏘지 않았다. 그러나 난 죽지 않았다! 원한 품고 쓰러진 내 어머니의 그 부드러운 젖가슴에 손톱을 박고 난 살았다! 그 원수놈들을 눈앞에 두고, 그 원수를 갚지 않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원한을 풀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죽을수 있겠니? 난 학원에서 조국의 사랑만을 받으며 자라났다. 그런데도 난 동무들을 사랑할줄 몰랐다! 너에게두 성화를 시키구, 애를 말리구... 영호! 용서해라. 자 이 못난 가슴을 마음껏 두드리구, 나를 원망하구, 욕하구, 그리구 용서해라! 난 나쁜놈이 아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나만을 생각했어. 내가 동무들을 생각할줄 몰랐어. 정말 내가 잘못했어!)

누구인가 나의 옆에 와서 후끈하게 달아오른 부드러운 손으로 내 손을 꼭 감싸쥐었다.

조기장 의준동무였다.

나는 삽시에 그의 따뜻한 체온이 내 몸으로 스며드는것 같은 훈훈함을 느꼈다.

그의 눈은 뿌옇하게 흐려있었다.

이것역시 내가 처음으로 보게 된 그의 눈이었다.

북방의 날씨치고는 몹시 따스하고 잠잠한 저녁이었다.

비단결같이 부드럽고 거울같이 맑은 수면우에 연한 운무속에서처럼 불그스레하고 누르무레한 엄청난 큰 둥근해가 둥, 두-웅, 가락늑게 변죽을 울릴듯이 흐느적이며 떠있었다. 드디어 우리는 북방특유의 정서를 자아내는 노을발에 들어선것이였다.

대범선장은 모자를 벗어들고 노을을 향해 숙연히 서있었다.

동실한 얼굴, 어딘가 희숙해보이는 귀밑머리...

어린시절이었다. 나는 자주 숙제도 하지 않고 마을의 조무래기들을 휘동해가지고 남의 집 채마밭에 숨어들어가 도마도를 따먹곤하였는데 그러다가 붙잡혀 매를 맞고 울면서 돌아오면 아버지는 아무 소리 없이 토방에 앉아 담배만 태웠고 어머니는 내

옷깃을 바로잡아주면서 눈물이 글썽하여 한숨을 짓곤 하였다.

《이게 언제야 사람구실을 하겠는지…

애 영호야! 너 왜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동리 어른들 말밥에나 오르구 그렇게두 애간장을 말리느냐. 너 아버지를 좀 바라. 너때문에 저렇게 머리가 다 희여지지 않니.》

그러나 오늘은 선장동지의 그 희숙한 귀밑머리가 나의 가슴속에 뼈아픈 추억으로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

나는 선장동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고개를 숙이었다.

(선장동지! 용서하십시오!)

그후 북방의 어장을 개척하고 힘찬 어로전을 벌리던 우리 프롤어선대는 명절을 얼마 앞둔 어느날

조국의 품을 향해 배머리를 돌렸다.

나의 수기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아직 취사원이자. 나는 아직 조국이란 무엇이며 그 사랑의 품의 넓이가 얼마인지를 다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조국의 진정한 일군으로 될수 있는가 하는것을 초보적이거나 깨달을수 있었다. 그것은 두말할것없이 동지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동지들의 기쁨과 아픔을 자기의것으로 느낄줄 알며 거기서 진정으로 조국을 느낄줄 아는 그런 참된 인간이었다.

일군이 되기전에 이런 참된 인간이 되라!

나의 길지 않은 바다생활은 나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었다.

현실은 나의 어머니였다.

조국의 시간은…

리영백

기관차에 오른 그날로부터
통표여, 너와 함께 달려온 길 얼마던가
가닿고 떠나는 역마다
너를 넘겨주고 넘겨받으며
해를 이어 달을 이어 투쟁의 궤도를 누벼왔다만

너를 넘겨주는 순간이면
너를 받아안은 순간이면
내 마음 언제나 뜨거이 설레인다.
내 달려온 길 달려갈 길을 바라보며…
조국이 다달은 새 리정표를 안아보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시에 울린 그 기적소리가 너에게 있고
차판마다 가득가득
조국이 없어준 억만재부의 무게가 너에게 있나니

조국이 부르는 모든곳으로
가닿고 떠나온 역과 역들처럼
험한 령 높은 산 넘고 또 넘어왔어도
정지의 계선은 단 한번도 없었기에
달리는 차창가에 설레이는
풍요한 황금벌과 치솟는 철탑들을
흐뭇이 바라보는 기쁨이 여기에 있는것이 아니라

달려가자, 통표여,
조국이 정해준 그 시각에
너를 넘겨주고 넘겨받으며 나는 본다.
아버이수령님의 자욱을 따라
장강을 멈춰세우며 솟는 언제의 높이와
쇠돌을 장입하는 용광로의 거센 불길을…
멀고 먼 외진 산촌, 섬마을에서도
제 시간에 신문을 받아보는 할머니들의 그
웃음을…

아, 언제나 투쟁의 보람을 안겨주며
전투의 출발선에 세워주는 통표여,
너는 비록 작아도
조국을 안고, 시대를 안고, 노래를 안고
충성의 구간으로 날마다 커지고
충성의 무게로 날마다 무거워지거니

이 세상 한끝까지 달리고 또 달려간다해도
이 세상 모든 무게를 엮고 또 엮는다 해도
오직 정시 무사고의 기적소리로
아버이수령님께 기쁨만을 드리며
너를 넘겨주고 넘겨받을 때
조국의 시간은 언제나 비약의 궤도우에 흐르리라

이 땅을 사랑하라

리순우

새날이 푸름푸름 밝아오고있었다.

방금 기차에서 내린 송유순은 역사앞에 있는 소공원의 긴의자에 가방을 내려놓고 잠시 검은 머리를 매만졌다. 해맑은 얼굴의 처녀였다. 지금 그는 언제건설장으로 내려오는길이었다.

현장에서 채석장문제와 함께 설계예산을 증가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설계사업소에서는 채석장설계의 주공을 담당했던 전도유망한 신진설계가 유순에게 현장실태를 료해하고 예산을 다시 타산하라는 중대한 임무를 맡겼었다.

험치않은 일이다. 은근히 위구심이 스며들었다. 하나 새 임무가 주는 량만으로 유순의 가슴은 벅찼다.

공원에서 나온 유순은 걸기로 작정했다. 도시사람들은 흔하게 볼수 없는 산천풍경을 뺄스에서 흘러보내고싶지 않았다.

먼산은 안개속에 잠겨 들쭉날쭉한 봉우리들만 아련하게 바라보인다. 아침이슬에 함치르하게 젖은 길가의 나무잎들에서 작은 물방울이 구슬져 떨어졌다...

아침안개는 마을앞에 줄지어 늘어선 대추나무가지들에 흰 장막처럼 가볍게 걸려있기도 하고, 끝없이 펼쳐진 보리밭우에서 빙빙 돌기도 했으며, 동심한 야산을 뒤덮은 사과밭우에서 물물 피여오르기도 하였다. 유순은 마을의 포근한 아침정서에 함뻑 취해버렸다.

그때 까치의 자지러진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유순은 정신을 차렸다. 강기슭에 높이 선 백양나무우의 까치둥지를 향해 한 아이가 다람쥐처럼 바라오르고 밑에선 세 아이가 고개를 잔뜩 젖히고 올려다보는 모양이 뻔안개속에서 바라보였다.

갑자기 안개속에서 웬 사람이 불쑥 나타나더니 아이들옆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얼굴생김새는 분간할수 없었으나 키가 후리후리하고 어깨가 퍼진 건장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애들아, 어미까치는 너희들이 둥지를 텅다구 성이 낫구나.》

《까치두 성이 나나요뉘.》

아이들은 깔깔거렸다.

《그럼 성이 나잖고, 제 집을 터는데 성이 왜 안나겠니.》

그 사람은 하늘을 빙빙 날아도는 까치들을 측은하게 올려다보았다.

《...아마 까치들이 노여워서 여기를 떠나면 다시 오지 않을게다.》

《.....》

《너희 마을은 나무랑 많고, 강도 있고, 산도 있는 좋은곳인데 까치가 없으면야 무슨 좋은 마을이 되겠니.》

나무로 바라오르던 아이가 아래에 대고 불만스럽게 소리쳤다.

《아저씨 몰라요. 여긴 채석장이 되기때문에 백양나무를 찍어야 된대요.》

아이의 말은 바늘끝에 찔린것처럼 아프게 유순의 귀에 들려왔다. 그는 도면우에 표시된 마을앞 강기슭의 채석장이 눈에 섰었다. 오랜세월 강물이 모래와 자갈을 백양나무밑에다 묻어둔 골재원천장이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또다시 날아왔다.

《애들아, 까치는 좋은 사람들을 알아보거든. 아마 까치는 너희들한테는 찾아오지 않을게다.》

《.....》

아이들은 말문이 막힌 모양이었다.

《두고보렴. 내 말이 틀리는가.》

그 사람은 한 아이의 빼돌어진 모자를 바로잡아 씌워주고는 성큼성큼 걸어갔다. 등뒤에서 전투가방이 건들건들 춤을 추었다.

유순은 수군거리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그는 마음이 어쩐지 개운치 않았다. 언제건설장까지 20리길이 갑자기 더 멀어진것 같기도 하고... 채석장이 되기때문에 백양나무를 찍어도 된다면 아이들의 말이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애들이야 나무 한그루, 밭 한뼉기마저 살리기 위해 고심하며 점을 찍고 선을 긋는 설계가들의 심정을 모를테지...)

유순은 이렇게 조용히 변명해보았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은 밝아지지 않았다.

유순은 기사장실 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이게 누구요?》

기사장은 방에 들어서는 유순을 무척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들은 언제건설을 통해 이미 친숙해진 터였다.

《…원, 기별두 없이 바람처럼 나타나다니. 전화를 걸면 역에 차를 보낼건데.》

기사장은 유순이를 자리에 앉히자마자 설계실동무들의 이름을 꼽아가며 안부를 물었다. 그리고 며칠전 텔레비전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봉화》라는 제목으로 언제건설장이 소개됐다는것을 은근히 자랑하였다.

책상우에서 전화기가 다급히 울렸다.

《혼합직장이요?…》

전화를 받는 기사장의 얼굴이 흐려졌다.

《…자갈이 떨어졌단말이요? 혼합기를 멈춘다… 어떻게든 혼합기를 멈추면 안되오… 뭐라구? 은봉산?… 여보! 지금 은봉산에 신경을 쓸 경황이 있소?》

기사장은 전화를 끊더니 다시 급한 음성으로 운수중대를 찾았다.

《…혼합에서 자갈이 떨어졌소. 자갈이! 곧 후방과 자동차까지 동원해서 채석장에 출동시키오. 자동차사업소에도 두 지원을 요청하오.》

기사장은 수화기를 덜컥 내려놓았다. 유순이쪽으로 돌아앉는 그의 입에서는 느닷없이 한숨소리가 흘러나왔다.

《골재가 문제요… 채석장은 팔키로나 되지, 외통길 하나로는 자동차들의 순환이 잘 안되지, 게다가 도로까지 나쁘니 원…》

기사장은 못마땅한듯 얼굴을 찡그렸다.

《참, 이번에 설계측과 합의되면 예산을 더 받아 복선도로두 놓고, 자동차두 증가해서 일을 좀 밀어보자는게요.》

유순은 기사장의 의견을 가슴 무겁게 받아들였다. 그는 언제건설로 유명한, 상당한 높이의 기술적권위를 가진 사람의 의견이라 해서 그대로 소화할수 없었다. 결코 자존심은 아니지만 현장에 조성된 난국을 예산증가방법으로는 풀고싶지 않았다.

기사장은 유순의 흐릿해지는 기분을 감촉하자 슬쩍 다른 말을 꺼냈다.

《설계예산이 너무 많아서 대폭 줄이자는 의견도 있소.》

그리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어떤 방안입니까?》

유순의 눈에는 생기가 피어났다. 그 제기가 유순의 골재장설계보다 더 경제적이라면야 그는 지지를

보내야 할것이다.

기사장은 억지로 흥미를 돋구며 은봉산을 합리적으로 리용할 제안이라고 설명하였다.

…앞으로 언제인공호에 수장될 은봉산에서 골재를 채석하자는것이였다. 이렇게 하는것은 복잡한 골재수송공정을 없애고 은봉산이 차지하던 용적만한 물량을 호수에 더 저장하는데 있다. 이렇게만 되면 현존 채석장에서의 강류역의 변형과 앞으로 예견하는 호안공사들이 떨어져나갈것이다.

《어쨌든 대답한 발기예요.》

유순은 흥미를 느꼈다. 발기의 과학기술적가능성을 따지기에 앞서 우선 발기가 실현될 경우의 결과와 의의에 마음이 끌려가는것이였다.

《그 발기는 누가 했습니까?》

《혹시, 알겠는지 정철이란 사람이요.》

《예?!》

유순은 두눈을 놀랍게 치떴다. 그에게는 작년 건설장에 내려왔을 때 잠간 만났던 정철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먼저 기억에 떠올랐다. 그들이 닳을 익히게 된것은 시내가에서였다.

…유순은 현장으로 빨리 나가보려고 지름길인 강변으로 잡아들었다. 건설장이 뻥하게 보이는곳에서 시내물이 앞을 막았다. 건너뛰기엔 넓었고, 다시 돌아가기도 난처했다. 잠시 망설이던 유순은 시내가옆에 무독히 쌓아놓은 막돌무지로 다가갔다. 징검다리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발딛기 좋은 돌을 골라냈다. 그가 막돌을 물속에 푹땡 집어넣었을 때였다.

《거 누구요?》

유순이가 화딱 놀라도록 거칠은 목소리가 날아왔다. 돌아보니 큰일이라도 생긴듯이 웬 사람이 마구 달려오고있었다. 억센 뼈대가 박힌 검승한 얼굴에서 불줄기같은 눈초리가 번뜩했다. 무슨 힘구라도 쏠을것 같은 투박한 입술… 유순은 금시 가슴이 찢눌해왔다.

그 사람은 유순이앞에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대변에 당황해하였다.

《난, 또 우리 사람인줄 알고…》

변명처럼 말하는 그 사람은 자기의 손조차 어디다 건사할지 몰라 찢찢했다.

《그건, 건설장 자재들이 돼봐서…》

《정말, 미안하군요. 몰랐어요.》

유순은 얼굴을 붉히며 물속에 집어넣었던 돌을 꺼내려 하였다.

《아, 옷을 마치겠습니다.》

그 사람은 유순이보다 먼저 물속에 침범침범 들어섰다. 그는 물이 줄줄 흐르는 막돌을 꺼내 돌무지에 던져놓았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언제쪽으로 바삐 걸어갔다. 물을 잔뜩 먹은 신발이 철썩거리며 자갈밭위에 큼직한 발자국을 새겨놓았다.

유순은 그 사람이 멀리 사라질 때까지 오래도록 한자리에 서있었다. 부끄럽기도 하고 난처하기도 하였다.

한개의 막돌까지 것처럼 아끼는 건설자로서의 주어진 량심...

자기는 오늘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유순은 킁킁한 기사장의 목소리에 다시 정신이 들었다.

《은봉산자갈의 초기강도는 아주 좋지만 후기강도는 영 말이 아니요. 때문에 정철기사의 일이 허황하다는거요.》

《.....》

《내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여기서 멀지 않은곳에 왜때때 건설한 병기공장자리가 있다고 하오. 은봉산자갈로 기초를 쳤는데 3년도 못채우고 공장이 주저앉은 사실이요. 이걸 수력구조물에 은봉산자갈을 쓸수 없음을 시사하고있소.》

유순은 심각해졌다. 역시 은봉산은 흥분으로 감수할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은봉산자갈을 직접 분석해보기로 결심하였다.

《우선 정철기사를 만나봐야 하겠습니다.》

《오늘이야 숙소에 가서 푹 쉬시구려.》

기사장은 급히 서두르는 유순을 만류했다. 유순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맙다는 인사를 상냥스럽게 하였다.

큰길은 대형자동차들이 배기가스를 뿜어대며 분주히 오고갔다. 타입공들이 고무옷을 빌걱거리며 지나간다. 또 언제쪽에서 청년들이 떠들썩하며 밀려온다.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조용히 걸음을 옮기던 유순은 《설계기사동무가 아닙니까.》 하는 소리에 머리를 들었다.

청년들속에서 한사람이 성큼 떨어져나왔다. 방금 기사장실에서 화제거리에 올랐던 정철이었다.

《...몹시 기다려드렸습니다.》

정철은 벌췌 웃으며 손을 불쑥 내밀었다.

《미처 몰라봤군요.》

유순의 해맑은 얼굴에는 흥조가 피어났다.

《마침 잘 만났습니다.》

정철은 어찌에 뻗던 전투가방을 급히 뒤졌다.

유순은 까치등지를 털던 아이들을 타이르던 사람의 등뒤에서 흔들거리던 전투가방이 눈에 선했다. 그가 정철이었음을 곧 알아차렸다.

정철은 가방에서 진회색빛 자갈을 한줌 꺼내어 큼직한 손우에 퍼보였다.

《이걸 골재로 써보자는겁니다.》

유순은 자갈을 받았다. 이모저모 자갈을 뜯어보았지만 이미 기사장의 혹평을 들어선지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

《좀, 두고 연구를 해야겠어요.》

유순은 얼굴을 약간 흐리었다.

《어쨌든 골재로 써야겠는데...》

말끝을 맺지 못하는 정철의 검승한 얼굴에는 동정하리만큼 고충의 흔적이 진하게 내배였다.

유순은 너무 일찌기 정철이를 실망케 한것 같아 마음이 씩여졌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사과하듯 너그러운 웃음을 입가에 띠었다.

《어디 힘껏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고맙습니다. 도와주겠다니...》

정철은 어쭙게 웃었다. 그는 가방에서 세멘트물에 얼룩진 두툼한 책을 또 꺼냈다.

《참고가 되겠는지... 시료분석자료입니다.》

타입장에서 날아오는 진동기소리가 조용한 실험실안을 간간히 흔들었다.

유순은 진회색빛 자갈이 수북이 쌓인 실험대에 마주앉아 정철의 시료분석표를 들여다보고있었다.

《...6월 5일... 언제에서 남쪽으로 300미터, 은봉산절벽에서 시료를 채취, 동쪽은 화강암, 서쪽은 석회암의 두 경계사이에 골재가 매장됨. ...경도가 굳고 분말색은 연회색... 중생대에 기원한 변성암류에 속한다고 추측됨. ...콩크리트의 초기강도는 매우 좋고, 세멘트의 부착도 훌륭함.》

유순의 시선은 분석표에서 아쉽게 벗어나지며 창문 너머로 옮겨졌다. 은봉산자갈은 풀기 힘든 수수께끼를 던져주고있다. 은봉산자갈의 초기강도는 훌륭하지만 무엇때문에 후기강도가 파괴되는것일까?...

유순에게는 오늘 무성한 찔방이덩굴을 헤치고 채집했던 옛병기공장기초의 스산한 모습이 눈에 밝혀왔다. 나무뿌리가 박힌 기초콩크리트, 해면을 방불케 하는 공극들, 콩크리트속에서도 좁쌀알같이 부식한 자갈들... 은봉산자갈은 세월이 흐르면서 변한다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는것이다. 이 돌을 골재로 쓰는데 나서는 기술공학상문제를 풀자면 오로지 장구한 시간을 걸친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만 엄혹한 자연의 비밀을 들추어낼수 있을것이다.

그리고보면 과학성과 언제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유순의 채석장설계는 옳았던것이다. 그는 자신의 설계도가 가지는 우월성이 재삼 확증되자 마음이 안정되는것을 느꼈다.

이제는 정철이가 은봉산을 포기하도록 납득시켜야 하였다. 그러나 어쩐지 이런 말을 꺼내기가 주저되었다. 정철의 그 피나는 탐구와 열정을 너무도 매정스레 물어버리는것 같았고 어쩌면 자신이 설계한 채석장의 우월성을 너무 일찌기 전면내 내세우는것 같은 주저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유순은 현재의 분석자료와 연구결과로써 정철이의 지향을 지지하고 받아들여줄만한 근거를 찾을수 없었으며 언제건설과 정철이 그자신을 위해서도 단호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유순은 실험실밖으로 나갔다.

언제건설장은 들끓고있었다. 한창 솟구쳐오르는 언제를 타고왔은 기중기들이 혼합물바가지를 거머쥐고 긴 팔을 창공높이 휘젓는다. 한쪽에서는 신희공처녀가 기발을 흔들고 다른쪽에선 타입공들이 분주히 오고갔다. 발파소리, 진동기소리, 굴착기의 엔진소리... 이 역세고 힘찬 모든것을 이끌어가듯 철탑우에서 대형구호가 격조높이 웨친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유순은 언제건설의 거센 숨결을 가슴벅차게 느끼며 가물막이언제로 향했다. 그가 타입장에 들어섰을 때였다. 배가 불룩한 가마니를 깔고앉아 이야기에 열중하고있는 두 청년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여- 차가 온다.》

큰길쪽에서 자동차가 나타나자 두 청년은 벌떡 일어섰다. 그바람에 가마니가 넘어지면서 자갈이 와르르- 쏟아졌다.

유순의 시선은 땅우에 쏟아진 자갈에 떨어졌다. 그는 은봉산자갈임을 알아보자 흠칫 놀랐다. 청년들이 타입장에 끌어들인것이 분명했다. 엄중한 기술규정 위반이다.

유순은 황급히 청년들을 불러세웠다.

《동무들, 잠간 기다리세요.》

유순은 쏟아진 자갈을 몇개 골라쥐고 어리둥절해 서있는 두 청년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따지듯 물었다.

《이 돌을 누가 쓰라고 승인했어요?》

한 청년이 마뜩지 않게 쏘아붙였다.

《대체 동문 누구요?》

유순은 흥분김에 자기 소개를 잊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인차 자기 태도를 너그러게 고치며 살뜰하게

웃었다.

《전, 설계사업소에서 내려왔어요.》

그제서야 두 청년의 얼굴에 어렸던 긴장이 풀어지며 대뜸 환해졌다.

《오신다더니, 정말 오셨구만요.》

먼저 한 청년이 반색하여 소리쳤다.

《이 자갈은말입니다. 언제의 싼돌을 큼직하게 만드는 정철기사의 실험용으루 지금 은봉산에서 떠오르는겁니다.》

두 청년의 꾸밈없는 말속에서 건설자들의 순박한 인정미가 훗훗하게 느껴졌다.

유순은 자기 속심을 차마 입밖에 털어놓을수 없었다. 청년들의 희망과 기대를 무정하게 꺾는것만 같았다. 하나 그는 앞일을 위해서 단호해야 하였다.

《은봉산자갈은 써서는 절대로 안돼요.》

유순은 이 말을 힘들게 꺼내놓고는 그 자리를 피하듯 인차 돌아서버렸다. 실망한듯한 두 청년의 눈길이 등뒤에서 느껴졌다. 그는 정신없이 강변길로 향했다. 빨리 은봉산문제를 풀어야 하겠다는 그 한 생각만이 유순의 마음속에 움직이었다. 그것은 서로가 난감한 처지에서 벗어날수 있는 유일한 출로 인듯싶었다.

스러져가는 저녁해빛이 강기슭을 불그레하게 물들이었다. 새들이 보금자리를 찾아 숲속으로 날아가고있었다.

《설계기사동무!》

강아래쪽에서 정철이가 급히 올라오며 유순을 멈춰세웠다. 세멘트물이 점점이 박힌 그의 얼굴은 오늘따라 유난히 즐거워보였다.

《오늘 또 은봉산파괴실험을 했는데 성적이 괜찮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

유순은 어떻게 대답을 했으면 좋을지 몰라 난감한 얼굴로 서있었다.

《이젠 강도를 높일 혼화제만 잘 조성하면 되겠는데...》

한시름을 덜은듯이 말하는 정철을 보기가 유순은 괴로웠다. 승산이 보이지 않는 일에 정열을 소모하는 정철이가 딱하였고 그것을 제때에 바로잡지 못하는 자신의 처사도 안타까웠다. 어찌하여 정철이가 은봉산에 그처럼 정신을 빼앗겼는지... 공명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정열에 몸부림하는 그였다. 그렇다고 은봉산들에서 커다란 과학적발명의 실마리를 찾아낸것도 아니였다.

이런 종잡을수 없는 생각에 잠겨있던 유순은 눈

길을 먼산에 던진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금 현장은 말이 아니예요...》

유순은 강경한 태도로 아직 과학성이 없는 은봉산자갈을 끌어들이는 청년들을 레즈으로 현장에 조성된 시공의 무질서를 탓하였다.

《그건 실험용으로 떠오르는 자갈일겁니다.》

《아니예요. 난 그걸 묻는게 아니라 은봉산을 골재로 리용할수 있는 과학적수치가 있는가 묻는거예요.》

정철의 눈에는 믿음을 저버린 사람에게서 볼수 있는 실망의 그림자와 함께 그 어떤 날카로운 빛이 번뜩이였다.

《아직 과학적수치도, 공식도 없지요. 다만 욕망과 믿음뿐이지요.》

《욕망과 믿음은 과학이 아니지요... 오늘 저두 병기공장기초를 가봤어요.》

정철은 어딘가 찢린듯 얼굴을 찡그렸다. 그는 더 입을 열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서로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두 은봉산을 빨리 잊어버려야 해.)

유순은 이런 생각에 잠겨있었다.

이튿날, 타입장에서는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였다. 밤새 타입한 콘크리트표층에 좁쌀알같은 기포들이 생긴것이다. 오작시공이였다. 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시공담당자인 현장기사 정철이였다. 그는 이 무거운 책임을 조금도 회피하지 않았다. 기포자국을 발견하고 대책을 세운 사람은 정철이다. 또 이 사실을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참모부서에 보고한 사람도 역시 정철이였다.

유순이가 기사장실에 들렸을 때였다.

기사장은 뒤집을 지고 창밖을 내다보며 서있었고 한쪽 구석의 의자에는 눈확이 꺼진 수척한 얼굴로 정철이가 굳어져있었다. 아마 정철은 책임추궁을 받고있는것 같았다.

유순은 현장에서 떠도는 무거운 공기를 이 방에서도 숨가쁘게 받았다. 그는 인차 돌아섰다. 뒤따라 기사장의 격한 음성이 방안에서 흘러나왔다.

《...시공오작은 뭘 말해주고있소. 이젠 자기 사업에 대한 동무의 주인답지 못한 태도를 보여줄뿐이요... 동무는 은봉산이요 뭐요 하면서 공연히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있소. 우리는 생산을 책임진 사람들이지 연구원들이 아니란말이요...》

하늘에는 거무칙칙한 구름이 낮게 떠돌았다. 바람 한점 없고 마음만을 울적케 하는 그런 날씨였다.

타입장으로 향한 유순의 눈앞에 정철의 침울한

얼굴이 떠올랐다. 번민하는 얼굴이였다. 그가 측은해졌다. 그가 나무랄기도 했다. 무엇보다문에 은봉산이라는 덧짐을 지고 허우적거리는지 알수가 없었다.

이런 무모한 일에 신경을 쓰다니 오작시공이라는 피치못할 사고를 내지 않았는가. 그리고는 번민하고, 피로와하고... 만약 그가 은봉산에 소모하는 그런 열정, 그런 탐구를 시공기사라는 직분에 고스란히 쏟아놓는다면 건설공사도 빨리 다그칠수 있을 것이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오히려 그편이 나았을것이다. 유순은 요사이 정철이와 사귀는 동안 그가 정열이 있고 진실한 사람이란것을 느꼈기때문에 무거운 책임앞에 머리를 숙이고있는 정철을 동정하고 그와 같이 피로와하는것이였다. 또 정철의 온 마음이 어찌하여 은봉산에 쏟렸는지 이해하려고 무진 애를 써왔던것이다. 그러나 매번 생각은 질서없이 흩어지고 안타까움만이 가슴속에 남았다.

《설계기사동무!》

유순은 탁한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타입장이었는데 유순의 앞을 가로막아나선 사람은 어제 만났었던 청년이였다.

《이거, 억울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시공한게 진짜 오작인지 좀 봐주십시오.》

청년은 뜻밖의 구원자라도 만난듯 유순에게 하소연했다.

유순은 청년에게 이끌려 타입장으로 올라갔다. 콘크리트표층을 세심하게 관측하던 유순의 두눈은 점차 커졌다. 미세한 공극들이 덮여있기는 했지만 심부에는 티검볼같은 흠집도 찾아낼수가 없었다. 오작시공이라 하기에는 억지스러울 정도로 사실이 양호한데 놀랐다.

《정철기사가 정말 판정했어요?》

유순은 대답이 뻔할줄 알면서도 청년에게 물었다. 자신의 실적을 이처럼 랭철하게, 너무도 불공평하게 판정했다는것이 어쩐지 믿기 어려웠다.

《잘못이야 내게 있지요. 어제 혼합직장에 지원갔을 때 콘크리트속에서 생기는 열을 떨구기 위해 열음을 까넣으라는 정철기사의 지령을 귀등으로 들었지요...》

청년의 입에서는 땅이 꺼지게 한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열음을 혼합기에 맥이기 좋게 잘게 까야 할걸 대강 까넣어서 열음배출구가 뚫어요. 시끄러웠지요. 그래두 근기있게 배출구를 뚫어야 할걸 그냥 내버려두어 열음이 혼합물에 골고루 뿌려지지 못해서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청년의 얼굴에는 무거운 자책과 실망이 떠올랐다. 이윽고 유순은 오작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시공을 다시 해도 무방하리라는 검측소견을 말했다. 청년의 얼굴은 대번 환해지며 또다시 익살을 부렸다.

《글쎄 우리 기사는 고지식해서 탈이라니까요. 보고까지야 뭘...》

《무슨 소리예요. 정철기사가 옳았지요.》

유순은 웃음을 띠우며 청년을 가볍게 나무랐다. 그도 가슴이 맑아지며 짐을 덜어버린 것처럼 어깨가 홀가분해졌다.

얼마 지나서 키가 성큼한 청년이 나타났다. 그는 법석 떠들어댔다.

《오늘 산호리에서 정철기사를 찾아온 아바이 있잖아. 그 아바이가 그러는데 요전날 새벽에 정철기사가 마을에 왔드래.》

《그 먼데는 왜 찾아갔대?》

《아무래두 그 아바인 중매서러 온것 같애. 정철기사가 몇살인가. 총각인가구 자꾸 따져묻드라니까.》

청년은 유순을 힐끔 쳐다보았다. 두 청년은 유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마침 저게 정철기사가 오누만.》

가물막이 입구쪽에서 정철이가 어깨를 축 늘어뜨린채 무겁게 걸어왔다. 얼굴은 여전히 어둡고 침침하였다.

두 청년은 약속이나 한것처럼 사다리를 타고 뛰어내려갔다. 정철이와 마주서자 그들은 팔짱, 몸짓으로 무엇인가 부지런히 설명했다. 정철의 얼굴에 잠시 웃음이 피어났다 사라졌다.

이윽고 정철은 두 청년과 함께 타입장으로 올라왔다. 정철은 유순을 보자 조용히 웃어보일뿐 인차 콩크리트에 시선을 떨구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 어떤 강한 충격과 번민과 자책에 모대기는 듯도싶었다.

한동안 머리를 떨구고 못박힌듯 서있던 정철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었다.

《콩크리트프층을 오센치 깎아야겠소.》

《예?!》

두 청년은 청천벽력이 떨어진듯 놀랐다.

《우린 언제를 책임진 주인들이 아니요!》

정철은 멍뭇한 자세로 가슴을 짝 펴며 조용히 말했다.

《깎아놓은 콩크리트가 더 굳기전에 옹벽공사장에 보내오. 내 그리로 가겠소.》

두 청년은 터벅터벅 사다리로 내려가는 정철의 등머리만 멍하니 바라볼뿐이다.

유순의 가슴에는 뜨거운것이 북받치기 시작했다. 그는 깊으면서도 깨끗한 마음, 언제의 주인의 자부심을 본것이었다.

그날 저녁, 유순은 큼직한 수박을 랑팔에 낀 정철이와 과일상점앞에서 마주쳤다. 정철은 거북스레 웃었다.

유순은 《중매아바이》가 왔다는 청년들의 말이 생각났다. 정철의 생활에서 오늘이 그 어떤 의의가 부여될는지 어찌 알랴. 유순은 은봉산에서 파생된 듯싶은 오작시공의 무거운 기분을 그대로 실려보낼 수 없음을 느꼈다. 그를 즐겁게 해주고싶었다.

그들은 어둠이 조용히 내려앉기 시작한 가로수길을 나란히 걸었다. 눅눅한 바람이 가볍게 불어왔다.

유순은 먼저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사람들의 욕망에 과학이 순순히 복종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나요.》

정철은 한동안 말없이 유순의 말뜻을 음미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과학의 포로가 되면 욕망도 비굴해지겠지요. 그러나 과학을 이리저리 움직일수 있는 주인이 된다면야 사정은 달라질수도 있겠지요.》

《그럼, 은봉산도 움직일수 있을가요.》

《.....》

정철은 껄껄 웃었다.

유순은 비로소 정철의 침묵과 웃음 속에는 은봉산을 기어코 성사시키려는 억척스런 기세가 숨어있었음을 알아차렸다. 그의 부드럽던 기분이 삽시에 흩어졌다.

《아마 모험일거예요.》

《모험이요? 언제를 빨리 세울수만 있다면 난 그런 모험은 천번이라도 하겠소.》

유순은 자신의 힘으로 정철을 움직일수 없음을 느꼈다. 정철의 고집은 유순을 급높은 전문연구기관의 설계가라기보다는 한갓 처녀로서만 알고있는데서 오는지도 몰랐다. 분하였다. 유순은 이름도 없는 현장기사에게서 자존심이 모욕당한듯도싶었다. 억울하기도 하였다.

하나 유순은 가슴속에서 부글거리는 이 모든 감정을 모질게 가라앉혔다. 그는 억지스러운 정도로 상냥스런 태도를 지으며 마지막까지 정철이와 같이 걸어왔다.

유순은 설계예산을 다시 타산하기 위한 현장료해에 달라붙었다. 타입장에서 채석장, 다시 타입장으

로 먼길을 줄곧 오르내렸다. 필요하다면 밤에도 걸 줄 몰랐다. 아마도 유순의 샘솟는 분발심은 정철이와 있었던 일로 하여 더욱 솟구치게 했는지도 몰랐다.

오늘도 유순은 날이 밝기도전에 채석장으로 향했다.

보슬비가 내렸다. 비소리는 조용했어도 마음속에는 크게 들려오는 비소리였다.

유순은 뜻모를 허전한 생각에 묻혀 어느덧 버들숲이 늘어선 동쪽길에 들어섰다. 갑자기 돌을 굽는 삽질소리가 들려왔다. 밤사이에 강변 자갈밭이 파헤쳐졌는데 그중 큼직한 구덩이속에서 돌이 섞인 모래가 연방 튀어나왔다. 그속에서 비웃고깔이 볼썽 솟으며 흙투성이가 된 사람이 튀어나왔다. 일순간 두사람의 시선이 맞부딪쳤다.

《아, 설계기사동무가 아닙니까?》

비웃고깔을 훌렁 벗으며 먼저 반색하는 사람은 뜻밖에도 정철이었다.

(또 은봉산이겠지.)

유순은 성큼성큼 다가오는 정철을 땡땡한 눈으로 맞아주었다.

《무슨 일을 또 벌렸어요.》

인사치례의례절이라기보다는 따지는듯한 유순의 목소리였다. 그런것에는 조금도 개의치 않는듯 잠이 모자라 충혈진 정철의 눈에는 생기가 피어났다.

《양수장터를 찾고있지요.》

《큰 일을 하고있군요.》

《이 근방 어딘가 예전에 은봉산돌로 기초를 친 양수장이 있었잖는지 않소?》

유순은 어이없이 정철을 바라보았다. 문득 그 어떤 피물의 잔해와도 같은 병기공장의 스산한 모습이 눈에 밟혀왔다. 정철을 긍정도 해보고 부정도 해보고 반감도 가져보고 동정도 해본 그 모든 감정의 굴곡이 다시금 유순의 가슴을 훑으며 지나갔다. 이제 더는 그와 맞서고싶지 않았다.

《그럼, 수고하세요. 해보느라하면 뭔가 또 알게 되겠지요.》

억지스러운 정도로 부드럽게 울리는 유순의 목소리에는 찬서리가 돌쳐나왔다.

비줄기는 굽어졌다. 숲속을 두드리는 비소리도 커졌다. 목재를 멘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자갈밭에 앉아있던 굴착기들이 팔과 몸체가 분해되어 동쪽너머로 넘어갔다. 자동차들이 꼬리를 물고 드나든다.

유순은 이 모든 전경을 서글프게 바라보았다. 공든탑이 무너지는것 같은 허전한 생각이 복받쳤다. 채석장이야말로 유순의 자량이였다. 신진설계가의 유망한 전도를 확신케 한곳이기도 했다. 석회암지대에서 골재는 철도와 같은 강력한 수단으로 먼거리수송을 필수로 해야 한다는 보수적경향에 짓밟힌 곳이기도 했다.

수력구조물에 지방전재의 도입... 파문, 경탄, 꽃다발... 지금 이 모든것이 유순의 눈앞에서 산산이 흩어져갔다.

유순에게는 채석직장장의 시름겨운 목소리가 또 다시 아프게 들려왔다.

《강에 홍수가 질 땐 채석장은 완전히 <홍년>이지요. 재간없이 타입장의 채석공급량을 줄여야 합니다.》

광란하는 자연을 굴복시키지 못한 채석장설계, 불합리한 골재수송, 홍수의 피해를 면치 못하는 채석장, 타입속도감퇴,... 이 모든것을 헤아려보는 유순의 가슴은 아팠다. 그는 처음으로 부끄러움이 무엇이었는가를 느끼고있는것이다.

《울 아버진 어디 있나요?》

애된 목소리가 등뒤에서 포랑포랑 울려왔다. 인민학교모표가 붙은 새 모자밑에 수수대안경을 쓴 엉큼한 얼굴이 파란 비웃의 고깔에 싸여서 유순을 올려다본다. 분명 공작시간에 만들었을 안경이다. 유순은 어린것을 보자 구겨졌던 마음이 다소 풀렸다.

《아버진 누구냐?》

《굴착기운전수 몰라요?》

사내아이의 대뜸 손에 쥐고있던 학습장을 펼쳤다. 그 애는 빨간연필로 10점이라고 단정하게 쓴곳을 가리켰다.

《여기다 아버지 도장을 쳐야 돼요.》

사내아이의 이발 빠진 입이 헤벌쭙하니 웃었다. 그 아이는 인차 구슬픈 빛을 띠웠다.

《근데, 울 아버진 10점을 못맞은것 같애요. 자갈을 못 파낸대요. 난 두번이나 도장을 못맞았어요.》

유순은 저도모르는 순간 사내아이를 얼싸안았다. 무엇인가 형언키 어려운 걱정이 가슴을 마구 흔들었다.

(애야, 난 네가 아버지와 만날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설계에 반영하지 못했구나. 참말 메마른 사람이었어...)

유순은 이렇게 빌고라도싶어졌다. 웬일인지 눈앞이 흐려왔다. 그는 드디어 여직껏 볼수 없었던 참신

한 생활과 흥금을 터놓고 이야기한듯도 싶었다.

오후부터 창살같은 비줄기가 쏟아져다. 비줄기는 땅우에서 콩볶듯 튀었다. 무겁게 드리운 검은 구름 위로 툭날같은 시퍼런 불줄기가 오고가며 번개가 일었다. 우뢰가 울었다. 광란하는 자연은 하늘과 땅우에서 몸부림쳤다.

《비상경보입니다. 강상류에서 홍수가 밀려올것으로 예견됩니다. 홍수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바랍니다. 비상경보입니다…》

건설장의 고성기들에서 현장방송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연방 흘러나왔다.

채석장에서 현장으로 부지런히 올라오던 유순은 뜻밖의 정경에 부닥쳤다. 정철이가 동쪽우에 쭈그리고 앉아 검스레한 덩어리를 망치로 두드리고있는 모습이 비발속에 바라보였다.

(아니, 어찌문, 저 동무가…)

유순은 걸음을 멈추며 소스라쳤다. 아직도 양수장터를 찾고있다니… 정말 직심스럽고 무서운 사람이였다. 강변 자갈밭을 한입에 삼키고 동쪽밀을 물어뜯는 시뻘건 강물속을 정철이가 헤맸으리라고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해왔다.

그때 정철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는 한자리에 못박혀 서있는 유순을 발견했던것이다.

《은봉산을 찾았소.》

이렇게 소리치며 정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는 물이끼 오른 콩크리트덩어리를 닥침 들어안고 급히 마주왔다.

《자, 이거요. 은봉산돌 기초를 떼냈소.》

정철은 망치자리가 점점이 박힌 콩크리트덩어리를 흔들어보였다. 그는 마치도 최초의 발명을 선포하는 그런 흥분, 그런 희열이 온몸에 차넘쳤다.

정철은 얼굴로 흘러내리는 비물을 연신 훔치며 이제는 흥분을 억누르는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까두 말했었지만 어제 날 찾아왔던 아바이는 병기공장 부역에두 끌려나갔었됐구, 양수장도 건설한분이었소.》

《…………》

《…해방전에 병기공장을 지을 때 사람들은 은봉산돌을 날라오는게 시끄러워 감독놈만 없으면 썩돌같은 잡물들을 닥치는대로 처넣었던것ियो. 그러나 해방후에 건설한 양수장은 골재중에서도 제일 좋다고 인정되는 은봉산돌을 선택해다 기초를 쳤구, 게다가 혼화제까지 만들어 콩크리트의 강도를 높였다구 하오.》

《네?!》

유순은 숨이 콕 막히는것 같은 순간을 느꼈다. 심장이 세차게 뛴뛰었다.

《왜 놀랍니까? 거짓말 같습니까?》

정철은 빙그레 웃었다.

《…보는바와 같이 자기 생활의 주인으로 됐는가 못됐는가에 따라 창조물의 가치도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지요.》

정철의 어조는 부드러웠지만 특별히 마주쳐오는 주인이란 말이 유순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고개를 돌리며 유순은 손가까이 서있는 아카시아나무잎을 저도모르게 훑어서 땅우에 뿌려놓았다.

침묵이 흘렀다.

《강도를 높일 혼화제를 고안했는데 좀 봐주시겠는지? …》

이윽하여 정철은 매우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그는 점차 가늘어지는 비발속에 펼쳐진 수풀이며, 사품치는 강물이며, 멀리 언제건설장과 마을을 눈으로, 가슴으로 들이키듯 정겹게 바라보았다. 산정을 안고 유유히 떠도는 젖빛 안개속에서 뼈꼭새울음소리가 그윽하게 들려왔다.

《설계기사동무!》

사무실 현관으로 들어서서 유순을 붙든것은 기사장이였다. 그는 현장을 돌고 난 뒤끝인지 모자를 벗어 땀난 얼굴에 활활 부채질하며 다가왔다.

《설계예산을 줄입시다. 인차 합의를 보지 않겠소.》

설계예산을 더 받아야 한다던 기사장이였다.

《저두, 동감입니다.》

활기있게 대답하는 유순의 마음은 티없이 맑고 깨끗해지는것 같았다.

《내가 그 똑박새같은 <량반>한테 훌쩍 반해버릴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소.》

기사장은 정철의 성공을 축하해주는 뜻으로 허물없는 웃음을 곁길 터뜨렸다.

유순은 어제저녁 정철이와 같이 실험해본 양수장 기초콩크리트의 분석결과가 또다시 눈에 선해졌다. 유순은 세월의 이끼덮인 콩크리트속에서 해방된 인민의 기쁨, 새생활의 주인으로서의 희열을 느꼈었다. 《…200…》을 넘어서던 강도시험기능금관의 바늘, 혼화제조성법을 탐구해낸 보풀진 수첩, 그 화학기호와 공식 속에서 땅에 대한 사랑으로 몸부림하는 한 인간의 열정이 맥맥히 흘렀었다…

지금 유순은 정철의 건재연구성과를 시급히 세상 에 공포해야겠다고 작정했다.

때마침 숲을 설렁설렁 흔들며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이 얼굴을 간지럽히며 지나가자 유순은 불현듯 신비로운 감촉을 느꼈다.

그때 단발머리 실험공처녀가 사무실앞 트랙에 바람처럼 나타났다. 그는 대뜸 기사장에게 다가오더니 숨찬소리로 정철이가 랭동기실에서 끝재실험을 또 시작했다는것을 알려주었다.

(갑자기 또 웬 실험인가?)

유순은 긴장을 느꼈다.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심각한 기술적착오가 생긴것 같아 가슴이 섬찍하였다.

《일이 뒤틀리는게 아니요?》

얼굴을 흐리는 기사장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스며있었다.

유순은 간다온다 인사말도 할새없이 랭동기실을 향해 줄달음쳤다.

유순은 《출입엄금》이란 표쪽을 단 랭동기실 문을 단숨에 열어젖혔다. 압축기의 음향과 함께 찬바람이 숨막히게 쏟아져나왔다. 문앞에는 뽕안 안개가 서려 돌았다.

랭동기실안은 엄혹한 겨울이 펼쳐져있었다. 천정에는 고드름이 삐죽삐죽 달려있고 벽에는 하얀 성애가 두텁게 덮여있다.

털모자를 푹 눌러쓴 정철은 허리를 구부정한채 온도계를 쫓은 콩크리트시편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털모자며 눈섭이며 옷에는 성애가 하얗게 돋쳐있어 흡사 눈사람같았다. 지금 정철은 콩크리트의 내동성을 검증하는것이였다. 백번이상 열구며 녹이며 팽창과 수축관계를 측정하는 실험이다.

유순은 이 간고한 실험공정을 거치지 않고 계산방법으로도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이였다.

(공연한 일울...)

기술적착오가 생긴줄 알았던 좀전의 긴장이 스크르 풀려나갔다.

《문을 꼭 닫아주시오.》

정철의 단정한 목소리에 유순은 정신이 들었다. 정철은 추위에 퍼렇게 질린 얼굴로 가까이 다가오는 여름차림의 유순을 놀랍게 바라보았다.

《아니, 거 감기들겠소.》

《일감이 없으면 마음이 편치않는가요.》

유순은 몸을 너무 무리한다는 뜻으로 정철을 나무랐다. 그는 못내 서운한 표정을 얼굴에 한가득 담았다.

정철은 어줍게 웃었다.

《언제에 실금하나 만들지 않는다면야 이런 일쯤

은 뭐, 별로...》

《.....》

《억년세월이 지나두 끄떡없는 언제를 세워 경애하는 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기전에야 은봉산이 성공했다고 어떻게 세상에 소리치겠소. 사실 일은 이제 부터지요.》

유순은 가슴이 몽클했다. 은봉산은 완전한 의미에서 성공했다는 유순의 마음에는 실금과 같은 흠집이 아직 남아있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자신이 책속에서만 찾아낸 수자와 공식으로 점을 찍고 선을 그은 도면에는 온기와 숨결이 없었음을 진정 느끼는것이다. 하나 정철이가 땅에서 나무에서 조약돌에서 찾아낸 수자와 공식에는 구수한 땅냄새와 시내물의 속살거림과 온갖 채부로 가득찬 푸른 산림이 숨쉬고있는것이다. 이것이 기사 이름속에 갖추어야 할 뜨거운 심장, 사랑의 눈이 아니겠는가.

(정철동무...)

유순은 이렇게 입속으로 부르짖었다. 갑자기 북받치는 격정이 가슴을 휩쌌다.

정철의 얼굴에는 고요하고 행복스런 미소가 피여났다. 아마도 지금 그는 암반에 뿌리를 박고 하늘에 높이 솟은 웅장한 대언제를 그려볼지도 모른다. 산발을 타고 끝없이 밀려간 송전선을 불것이며 맑고 푸른 언제호수우에 떠도는 흰빛 유람선의 고동소리를 듣고있을것이다. 아니면 언제호가 놀랍기도 하고 신비스럽기도 하여 뚜릿뚜릿 사방을 돌아보는 은봉산 꼬마곰을 사로잡을 천진한 꿈을 꾸고있을는지 어찌 알랴.

출장기일을 마친 유순은 언제건설장을 떠나가고 있었다. 그는 기사장이 차를 내겠다는것을 한사코 만류했었다. 이번에도 걸어가기로 작정한것이다. 그는 예전에는 전혀 알수 없었던 온갖 향기로 충만한 땅냄새와 신비로운 숨결과 웅엄한 목소리들을 느낄수 있으리라. 지금 유순은 하나의 새로운 대학을 졸업하고난듯한 그런 기분이였다.

강에서는 물줄기를 돌리는 작업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다. 이제부터 언제공사가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설것이다.

온 건설장이 펼쳐나온듯 강기슭에는 사람들이 물결을 이루었다. 마을 늙은이들까지 나왔다. 또 아이들... 웃음소리 ... 노래소리도 울려퍼졌다.

갑자기 웨침소리가 강반에 메아리친다.

《강물이 돌아간다.》

드디어 강물은 수천년동안 자기 품속에 감추었던

비밀을 드러내며 새 물줄기를 따라 서서히 흘러가기 시작했다. 수생초와 함께 물이끼 덮인 강바닥이 드러났다. 고기들이 흰몸뚱이를 뒤척거린다. 승어가 뛰고 잉어가 푸들거리고 은어가 물웅덩이에서 부글거렸다.

《와-》

사람들이 환성을 울리며 강바닥으로 밀려간다. 그들은 꼬리를 툭툭 치는 고기들을 종다래끼속에 잡아넣는다. 강반우에 랑만이 끝없이 물결쳐흐른다.

유순은 사람들속에서 고기잡이에 정신이 팔린 정철을 찾아냈다. 유순에게는 헤어질 때 부드러운 정이 느껴지는 웅근 목소리로 꼭 편지를 하겠다던 정철의 말이 소중해졌다. 그는 웬일인지 여직껏 느껴보지 못했던 무엇인가 따뜻함이 가슴속에 살며시 피어올랐다.

《와-》

또다시 환호성이 울려퍼졌다. 사람들은 고기들이 후닥닥거리는 종다래끼를 들고 새 강줄기로 밀려간다. 그렇게 밀려간 사람들은 강물속에 서슴없이 종다래끼를 기울인다. 고기들이 푸른 물속에 침범 침범 뛰어든다. 그것은 천근무게가 느껴지고 엄숙한 뜻이 담긴 조국에 대한 사랑의 화폭이었다. 사랑하는 조국이 영원토록 아름다와지기를 녀원하는 승엄한 선물이기도 하였다.

(훌륭한 사람들!)

유순은 감격에 겨워 눈시울이 뜨거웠다.

저 멀리 백양나무우의 까치둥지에서는 까치들의 울음소리가 즐겁게 들려왔다.

아름다운 대화폭

신국봉

하루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즐겁고 상쾌한 마음 실어보는 강
철의 구내를 감돌아흐르는 직두천에
대형용광로의 쇠물빛 곱게도 비졌구나

해종일 뿜은 쇠물 여기 다 모인듯
흐르고 흘렀어도 아직 다 못흐른듯
그 빛갈 아름다와라
그 물결소리 정다와라

두손 뻗쳐 한웅큼 뜨니
두등실 비쳐들어라
불야성 이룬 철의 대화폭이
내가 선 일터의 장엄한 흐름이

종구나
용점의 불꽃속에 몸을 잠그고
대형용광로를 세워올릴 때
늘어날 강철의 톤수를 헤아리시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김철의 밤하늘을 바라보시는것만 같던 그날

직두천아
너의 흐름 끝이 없듯이

그날의 내 맘도 오늘에도 이어졌노라
그이께서 언제나 지켜보시는 대형용광로에
내가 서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노라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마음껏 펼쳐놓은 이 화폭
말로는 다 그릴수 없어
물을 움켜안고 나는 웃노라

쑥대와 모래만 바다바람에 날려
사람들의 발길 없던 사봉벌에도
이렇듯 행복의 꽃은 피어
아름다운 대화폭을 펼쳐놓았구나!

직두천아, 흐르는 너의 물결우에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보시는
대형용광로의 쇠물빛을 실어보내리니
한순간도 멈춤없이 흘러다오

너의 흐름 하도 고와
이 화폭 놓고 가가 차마 아쉬워
한웅큼 물을 움켜안고
나는 웃고있어라

조국의 철길우에서

서진명

기관사, 나의 노래

운전대를 당기면서도
회중시계 초침을 보고,
속도계를 보면서
따라서는 화차의 행렬을 돌아보는
분명한 승무선

그속에서도 잊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일이 있다.
달리는 차창너머,
탑주들이 뻗어간 산굽이를 에돌아
기관사, 나의 마음은 날은다

날은다, 나의 마음
쇠물 끓는 용광로앞에서
가슴 덥히고,
광산지구의 발파소리에
차굴음소리를 높인다.

동맥을 주름잡아 달릴수록
품을 벌리고 키를 솟구는 땅-
언뜻 스쳐지나도
무심히 볼수 없는 거리와 마을들
부유하고도 웅장하게
이 땅에 솟아나는 전변의 창조물들을
가슴 벌게 안아본다.

끌고가는 짐의 무게에서
강대한 조국의 무게를 헤아려볼줄 모른다면
차창에 안겨오는 조국의 그 모든것에서
아름찬 당부를 받아안을줄 모른다면
내 어찌 선행관의 철길을 달리는 기관사라 하라

기쁨도 커가는 길,
당부도 더 목직이 떠실리는 길
잊고서는 이 길을 달릴수 없는
날로 커가는 조국의 열망은
나의 숨결!

그때문에 이 몸의 한부분인듯
기관차도 만부하를 안고 달리고,
회중시계도, 속도계의 눈금도
조국이 바라는 그 시간에 그 궤도를 가리키며
렬차의 앞길을 재촉해주는것 아니더냐!

아, 조국의 전진속도와 힘을
한몸에 안고 가는 나는 기관사!
끓는 피를 두줄기동맥에 이으며
조국의 심장파 고동을 같이하며
넓어지는 가슴, 담대해진 심장의 노래로
기적을 울려간다 대건설의 모든 초소마다에...

우리는 한선로우를 달려간다

앞길에 내려지는 신호기에서도
그대 손길을 느낀다.
소조원동무여, 그대 함께 있어
더 실패가는 짐이 무겁질 않다.

아버이수령님의 심려를 함께 덜자고
만나자 뜨겁게 나의 손을 잡은 동무
우리는 그날부터
차머리운전실에서 고락을 같이하는 사이

수송계획 앞당긴 기쁨에 들떠
합숙길을 걸을 때
그대는 무엇을 생각했던가
-기관차의 힘에는 한정이 있는가?
내 가슴에 불을 지펴준 그 말을 못잊는다.

도면의 선 하나를 두고서도 논쟁을 하며
수리차고에서 지새운 창안의 그 밤
성공의 기쁨에 취해 웃으니
피곤도 씻은듯 사라져
우리는 서둘러 새벽승무길에 올랐지

동무여, 내 어찌 알았으랴
그대 휴가도 마다하고
수백리 승무구간을 홀로 걸었을줄이야!
철길우에서 비를 맞고 해별에 웃을 말리우며
《표준운전방법》을 무르익힐줄이야!

늘쌍 오가는 낮익은 철길도
새롭게 트이던 그 나날,
한계점을 모르며 솟구치는

정차시간은 짧아도
시원한 샘물로 목을 추기고 가라고
주전자가 넘치게 물을 길어다 준
전철원처너.

처녀와 못나는 인사말도
기적으로 울리며
나는 운전대를 당긴다.
잘 있으라, 중간역

기관차의 새힘을 느끼며
참으로 달리는 보람을 알게 된 그 나날

기관사는 아니여도,
기관차를,
기관차를 움직이는 힘을
새롭게 깨우쳐준
혁명의 전위여!

높낮은 산밭을 딛고 뻗어오른 령길
최고기록을 안은 렬차가 령상에 올랐을 때
어찌하여 그대 눈가에 이슬이 어렸던가
평양의 하늘가를 우러르던 그 눈길을 못잊는다

그대 언제나 함께 있어
어제보다 오늘에
커가는 힘과 속도를 안고 렬차는 달리고
래일의 진군로를 열며
통과신호기들이 내려진다

어려운 일은 말아 풀어주고
기쁜 일은 끝내 나에게로 미루고
아버이수령님께서 바라시는 그 궤도로
언제나 렬차에 앞서
내세워주는 그 마음이어

기적소리는 하나로 높뛰는 우리의 숨결
두줄기 은빛궤도를
3대혁명의 위업이 떠실려흐르는
조국의 진군로로 열며
우리는 한선로우를 달려간다!

가슴에 후더움을 안겨준 동무여!

달려온 길,
지나온 중간역들에서
이렇듯 날 위해준 사람 얼마나 많았던가
렬차의 앞길을 열어주고 받들어주며,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며...

새벽의 산협길이 어려온다.

철길우에서 만나는 사람들

인적없는 산중의 철길우에서
이음목을 조여가던 철길순회원.
흐르는 땀을 씻을념 잊고
신호기를 흔들며 환히 웃던 모습이어

기적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제끼던 산간마을 너인들
어찌하여 그 얼굴들 그렇듯 밝았던가!
공장도시들과 농장의 들길에서
렬차의 긴 행렬을 바라워주며
오래도록 손 흔들어주던 그 마음들이여!

마주앉아 통성을 한적 없어도
말없는 속에서도 오가는 신뢰감이여!
집중화물역을 꾸려주고,
새 화차들을 무어 보내주고

푸른 신호등이 이어져 흐른다
구내선을 흔들며 지나는 렬차
-정시통과!
창호응답을 주고받으며
나는 기관조사와 시간을 맞춘다.

-0시1분!
질풍같은 렬차의 질주에 실려서
이 하루도 저물었다.
도중역마다 싣고간
쇠돌은 철의 흐름으로,
강재는 차륜으로 태어난
뜻깊었던 하루와 작별한다.

달려온 길에
보람 큰 창조물이 다투어 태어나도
우리는 뒤를 돌아볼줄 모른다.
알알이 여물었던 꿈이 현실로 펼쳐지는
새날의 궤도다!

달아오른 차륜들이 소리치고
붉고푸른 색등으로 장식된 중간역들이
숙망의 언덕처럼 지나고 마주온다.
하루길을 단 몇시간에 달리기 습관된
우리 렬차처럼
이 시각 나의 조국은
얼마나 먼 래일의 지점을 앞질러 가는것인가!

달을 앞질러
해를 앞질러
달려 넘었다.
5개년과 7개년 6개년의 봉우리들도...

그것들에 싣고 갈 물동을 담보해주며
한길에서 운명을 같이하는 사람들

수송을 추켜세워
아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려는
그 한마음들이 모여오고 합쳐지는
두줄기궤도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다 나에게 구면, 친근한 동지!

아, 갈 길 먼 승무선에
위훈 없이는 만날수 없는 그 사람들이 있어
가슴 뚫어오른다.
도중역을 가까이하며 기적 울리니
기다려 반겨주는 동무들의 그 손길인듯
앞길에 원방신호기가 내리는구나!

철길우에 날이 바뀐다

완충의 올해에 힘을 키워
우리 그렇게 넘으리라!
휘황한 새 전망년도의 고지들도...

하늘에 은하수로 비낀 별무리들도
렬차가 일으키는 폭풍에 이끌려 흐른다
눈에 띄지 않게 지구가 공전하듯
평범한 시간의 흐름속에
얼마나 크나큰 위업이 떠실려 가고있는것이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한길을 따라
3대혁명붉은기가 나래로 펄럭인다
강산을 흔드는 차굴음소리는
우리의 결심대로 시간이 흐르는 소리
한초에도 수십메터구간을 주름잡으며
속도전의 기세로 새롭게 창조해가는
우리의 시간이 주체의 궤도우에 흐른다.

꽃테프 날릴 공장준공식의 기쁨과
바다가에 엮어질 풍어의 새 노래
새로 조립한 전기기관차의 시동소리와
금나락 실레는 들에 수확의 계절을 부르며
이 하루
조국은 또 얼마나 큰걸음을 내디딜것인가!

아, 오늘을 딛고 넘어
더 힘차게 비약할 조국의 새날로
렬차는 달리고,
철길우에 날이 바뀐다.
행배히 조여가는 그 시간으로
조국의 열망을 앞당겨오며...

미더운 길동무들과 함께

-서평양기관차대 《붉은기》 5093호를 타고-

정준길

내가 취재차로 동승의 길에 오른것은 진논까비가 푸슬푸슬 내리는 3월의 어느날이었다.

완충의 해, 올해를 수송전선을 추켜세우는 해로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날마다 시각마다 새 기적과 혁신의 폭풍을 안아오는 수송전선, 나라의 동맥을 주름잡으며 보람찬 투쟁대오의 앞장에서 힘차게 달리는 수송전사들-바로 이들의 자랑스런 투쟁모습을 직접 보고 듣기 위해 나는 서평양기관차대 천리마 《붉은기》 5093호를 타게 되었다.

신성천역의 구내선들에는 짐들을 가득 실은 화차들이 사회주의대건설장으로 떠나갈 시간을 재촉하며 기관차들을 기다리고있었다. 눈썹리 아득하게 차관들을 련결한 화물렬차들이 끊임없이 와닿고 또 떠나고...구내선은 말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움직임이었다. 나는 이 움직임속에서 기관사들과 이곳 기관차대 일군들의 눈부신 로력투쟁과 충성의 땀방울을 보는듯싶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올해에 무엇보다도 큰 힘을 넣어야 할 전선은 수송전선입니다.

수송전선을 추켜세우는것은 이미 점령한 고지들을 공고히 하며 새로운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구내선에 서있노라니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의 구절구절이 떠오르면서 여기가 과연 나라의 동맥이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스러워지는것이였다. 잠간 서있는새에도 석탄과 세멘트, 철재, 목재, 연유 그리고 여러가지 짐들을 실은 화차들이 수없이 지나갔다.

내가 화차들을 류달리 길게 달고 구내선에 서있는 5093호기관차 운전실에 올랐을 때 기관사와 조사는 이미 출발준비를 다 끝내고 련차차장의 발차 신호만을 기다리고있었다.

《아, 신동무구만요!》 나는 신형진기관사와 벌써 구면이었다.

《허어- 우리 차에 타겠습니까.》

기관사도 방금전 역사령실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듯 즐거이 웃는다.

내가 동승할 기관차를 선정하기 위해 역사령실에서 평양에 있는 기관차대와 철도국담당사령대에 전화를 걸고있을 때였다. 느닷없이 뛰여든 젊은 기관사가 《미안하지만 저 좀 먼저 겹시다. 시간이 바빠서...》 하며 양보를 청하는것이 었다. 꽤히 수화기를 넘겨준 나는 혈색좋은 그의 동실한 얼굴을 호기심있게 바라보았다.

《사령원동지입니까? 1206렬차 기관사 신형진입니다. 평양에서 떠날 때부터 그렇게 부탁했는데 겨우 정량밖에 안됩니다. 좀더 달아야겠습니까... 차 같이가 걸린다구요? 허...제가 하지요 뭐.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마친 그는 싱긋 미소를 지으며 내옆에 앉아있는 역사령원에게 얼굴을 돌리였다.

《차같이할게 있으면 같이 합시다. 어느거요?》

《이사람, 성미두...이거 어디 요구가 불같아서 건더내겠나. 어쨌든 오늘은 안되겠네.》

역사령원이 빙긋이 웃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안되다니?... 짐이 저렇게 많은데...》

《허...많기야 하지, 그렇지만 오늘은 안돼, 밖을 좀 내다보게, 밖에선 눈이 내리고있단말이여.》

역사령원은 문득 얼굴에 엄격한 빛까지 지어보였다. 그를 고집스레 바라보던 기관사의 눈에 언뜻 꺾을수 없는 결심의 빛이 어리는것 같았다.

《알고있네, 눈이 온다구 더 달 짐을 달지 못한다면야 무엇때문에 건인초과운동이 필요하겠나. 자 그러지 말구 나가세.》

《그렇지만...》

《우리 기관차를 한번 믿어보라구.》

《할수 없구만 그저 짐이라니까... 그럼 나가보세.》

역사령원은 부러운 눈으로 기관사를 바라보며 성큼 앞서 나갔다. 기관사는 그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 나는 물론 그가 어떻게 차같이를 하며 무슨 짐을

얼마나 더 달겠는지는 알수 없었다. 하지만 한톤의 짐이라도 더 끌기 위해 뛰어다니며 애쓰는 기관사의 뜨거운 마음만으로도 저도모르게 가슴이 들먹거리짐을 어쩔수 없었다. 이런 기관사와 함께 동승의 길을 가보고싶었다.

(훌륭한 사람이군, 좋은 기관사야!)

나는 속으로 이렇게 외우며 지정해주는 기관차번호를 수첩에 적어넣었다. 그런데 5093호기관차에 올라 바로 그 기관사를 만나다니... 속으로 몹시 기뻐했다.

나는 졸전의 일이 궁금하여 물어보았다.

《기관사동무, 짐을 정량보다 얼마나 더 달았습니까?》

《조금밖에 못달았습니다.》

《몇톤이나 더 달았는지 알고싶습니다.》

내가 취재기자로서 정색한 표정을 지으며 질문을 들이대자 그는 어줍은 미소를 띄우며 겨우 300톤의 짐을 더 달았다고 말했다.

《차갈이가 힘들지 않았습니까?》

《쉬운 일이야 별반 없지요. 차갈이를 한 대여섯 번 했는데...》

《대단하구만요!》

차갈이작업의 내용을 좀 알고있는 내가 놀라는 태도를 보이자 그는 오히려 부끄러운듯 탄데로 눈길을 돌리며 얼굴에 어딘가 서운한 기색까지 드러내는것이였다.

《우리의 목표는 500톤을 더 끄는것이였습니다.》

기관사의 아쉬워하는 심정을 대신하듯 조사가 웃으며 말했다.

《출발!》

《출발!》

이윽고 떠날 시간이 되였다. 그러자 기관사의 얼굴에도 조사의 얼굴에도 긴장한 빛이 병곳 어린다. 격전을 앞둔 전사들의 표정인양 숨엄한 빛이 떠도는 그 얼굴을 나는 이제껏 처음 보는것만 같았다. 이것은 기관차에 동승을 하는 사람들이 볼수 있는 것이리라...나에게도 순식간에 이 기분이 전달되여왔다. 마치도 기관사가 된듯이 나는 곳곳한 눈길로 눈송이들이 내려앉다가는 스득스득 미끄러지는 강철레루를 지켜보면서 쿵쿵 울리는 가슴으로 한초한초의 시간의 흐름을 가늠하러 애썼다.

덜커덩...덜컹! 련결기 마주치는 소리가 들리고

무쇠바퀴들이 은은한 우뢰소리를 내며 두줄기 레루우를 굴기 시작했다. 쇠-쇠- 찬 대기를 헤가르며 기관차가 힘있게 내달렸다. 철길열 전주들이 점점이 다가오다가는 휘-익 굽어들며 옆으로 옆으로 지나가군했다. 눈덮인 전야가 멀리 지평선끝의 어느 축을 중심으로 천천히 돌아가는듯싶었다.

예리한 눈길로 전면감시를 하고 한쪽측면과 뒤를 동시에 감시하고있는 기관사의 얼굴은 눈바람을 맞아 더욱 검푸레해졌는데 거기에서 나는 용감한 사람의 의지를 엿보는것 같았다. 공장과 마을, 학교들과 유치원, 조국의 모습이 끝없이 끝없이 달려오고 바뀌인다. 때로 거창한 사회주의대건설장의 모습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때 기관차우에서 한눈에 그 모습을 굽어보는 마음의 충동은 유별난것이였다.

굽인돌이가 많고 물매사나운 수덕고개에 접어들자 기관사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더욱 긴장해졌다. 그의 얼굴에는 문득 엄격한 빛이 떠돌았다.

기관차는 령마루를 가까이하면서 점점 가쁜숨을 몰아쉬였다. 차바퀴소리가 더욱 무거워지고 전기기관차내부의 전동기소리가 더 높아졌다.

《뒤 이상없음!》

차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렬차의 뒤부분을 감시하던 기관조사의 힘찬 웨침... 렬차의 뒤부분은 걱정 말고 오직 앞으로만 힘있게 몰아가라는 당부인듯 기운을 북돋아주는 목소리가 운전실에 메아리친다.

《뒤 이상없음!》

기관사도 알았다는 응답을 힘있게 한다.

침묵, 침묵속에서 전투는 차츰 긴장해갔다.

기관사는 제어기의 손잡이를 한눈금 한눈금 힘겹게 옮긴다. 불과 1~2초사이밖에 안될 짧은 순간에 수많은 계기들과 앞길을 번개처럼 스쳐보고 전동기소리와 차바퀴소리에도 신경을 쏟으며 손잡이를 또 한눈금 올린다. 차바퀴의 헛돌림이 시작된모양 기관차운전실이 드르릉 울리였다. 그런속에서도 기관사는 침착하게 모래변을 밟는다. 각종 계기들에 스쳐가는 날카로운 눈길, 직렬에서 직병렬로, 직병렬에서 다시 병렬로 손잡이를 민첩하게 옮겨가는 손길, 이 모든것은 점점 고조되여가는 전투정황과 기관사의 치렬한 전투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다.

그의 이마에선 어느새 땀방울이 굴러내렸다. 밖에선 여전히 눈이 내리고있었다.

이들의 긴장한 전투를 직접 목격하든 나는 정량보다 더 많은 짐을 끌고 달린다는것이 얼마나 힘겨

운 투쟁이며 또 그렇듯 어려운 일을 불타는 심장으로 기꺼이 맡아나서는 기관사들의 가슴엔 얼마나 뜨거운것이 간직되어있는가에 대하여 말없는속에서도 너무나 잘 알수 있었다.

기관사를 돕는 조사의 활동도 역시 눈부신것이였다.

기관사의 모든 동작을 놓치지 않고 살피면서 계기관들과 앞길을 그리고 렬차뒤의 차장차를 부단히 감시하고 창호응답을 제때에 조직하며 나타난 정황을 즉시에 기관사에게 보고한다. 기관사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제때에 기적을 울리고 고압실도 살펴본다.

이렇듯 기관사와 조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길다란 렬차를 콧콧이 몰아가는것이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심장을 끓이는 이들, 수송전사들의 뜨거운 열정에 받들리어 중량렬차는 어느덧 물매 험한 눈덮인 렬길을 굽이굽이 에돌아 아득한 렬마루에 올라선다. 숨가쁘게 울리던 기관실의 동음도 씻은듯이 가셔지고 제어기의 손잡이는 다시 0위치에 떨어진다.

《후-》 나의 입에선 어느사이엔가 안도의 숨이 나갔다.

하지만 기관사의 전투는 계속되였다. 내리막길이 시작된것이다. 기관사는 제동변들을 부단히 조절하면서 아래로 미끄러지는 렬차를 조심조심 움직여 간다....

드디어 렬길을 내린 렬차는 수덕과 평남신창, 수양역들을 뒤로 넘기며 기세줄게 내달렸다.

가볍게 머리숙인 차맛이신호기들과 길가르개의 제자리표식판들 그리고 신호기를 갈아 쳐든 길가리원들과 건능길감시원들이 달리는 렬차의 차창으로 반갑게 다가서다가는 정답게 옆으로 비켜지나가군했다. 렬상모판과 강냉이영양단지모판을 만들던 농장원들과 건능길에 기다려선 소년단원들이 렬차를 반기여 손을 쳐든다.

나는 문득 지금 이 시각에 쇠장대를 억세게 틀어진 용해공들과 지하막장의 광부들, 선반공들과 어로공들도 모두 우리의 미더운 수송전사들에게 손을 흔들어주고있다고 생각하였다.

《뽕-》

은산, 봉하역들을 지나 단숨에 순천까지 달려온 렬차는 역구내에 잠시 멎어섰다.

《조사동무! 더 달 짐이 없는가 알아보라구!》

《알았습니다!》

기관사의 속심을 벌써부터 알고있은듯 기관차가 멎기바쁘게 문밖으로 나서는 조사의 대답이 힘있게 울려오는것이였다.

《아니 아직도 힘든 고개가 두곳이나 있지 않소?》

《고개길이 아무리 험해도 마음먹기에 달렸지요...》

놀라서 바라보는 나에게 기관사는 빙그레 웃는 낯을 돌리였다.

나의 귀전에는 문득 몇시간전 신성천역사령실에서 전화를 받을 때 수화기에서 쟁쟁하게 울려오던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려오는것이였다.

《...자기 구간에 있는 짐은 비자루로 쓴것처럼 흩어가지고 오는 주인답고 책임성 높은 기관사입니다. 짐밖에 모르는 사람이지요...》

《지난해에도 160회에 걸쳐 7만여톤의 짐을 정량보다 더 실어날랐습니다. 2월달계획도 보름동안에 끝냈고 3월말까지는 4월달계획을 앞당겨끝내게 됩니다. 언제나 자기 계획을 초과하는 기관사이지요.》

철도국의 담당사령원이 전화로 들려준 말들이였다.

짐밖에 모르는 사람! 언제나 자기 계획을 초과수행하는 기관사!

이 평범한 말속에는 참으로 얼마나 많은 뜻이 담겨있는가!

아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한톤의 짐이라도 더 나르지 못해 아글타글하는 기관사 신형진동무의 그 뜨거운 충성심이 바로 이 《짐밖에 모른다.》는 말속에 숨배여있는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혁신자인 신형진기관사에 대하여 이 이상 좋은 말을 더 찾지 못하리라 생각하였다. 어찌 그 한 사람뿐이라. 한개의 화차라도 더 달지 못하여 아글타글하는 기관사들의 미더운 얼굴을 나는 수없이 보는것만 같다.

이런 불같은 심장들,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들이 나라의 수송전선을 지켜섰으니 수송의 해, 이 해에 우리 조국은 또 얼마나 큰 발자국을 내딛게 될것인가!

미더운 수송전사들을 길동무로 하여 동승의 길을 이어나가는 나의 마음은 자꾸만 흥분에 젖어오르는것이였다. 나는 이들과 함께 동승의 길을 더 멀리 가고싶었다. 이 미더운 길동무들과 함께라면 조국 땅 어디에건 자꾸만 가고싶었다.

선경으로 꽃피는 땅

로은욱

어느 일요일이었다. 책상을 마주하고 그림책을 보다가 나는 한장의 농촌풍경화에 눈길이 뒀었다. 그림의 심오한 필치에 눈이 팔려있는데 옆에서 같이 보던 막내가 이 그림의 제목을 혼자 중얼거리며 읽는 것이었다.

《수령님의 해빛아래 선경으로 꽃핀 금부리》라고 읽다가 무엇인가 깊이 새겨보는 듯하더니 《아버지, 선경이 뭐가?》하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알아듣도록 간단히 말해주었다.

《파수원도 있고... 이렇게 경치가 하두 좋으면 선경이라고 한단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는 눈을 말뚱거리며 내 얼굴과 그림을 번갈아보는 품이 석연치 않아하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온 산에 뒤덮인 파수림을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여기에 꽃감나무도 있는가고 물었다. 아마 지난 설에 설빔으로 사다준 꽃감을 먹던 생각이 떠오른 모양이었다. 감나무를 아직 보지 못했을 이 어린것에게 있어서는 그럴법한 물음이라고 생각되었다.

《꽃감뿐이겠니, 사과, 배, 복숭아, 뽕 나무가 다 있지.》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보니 어린것앞에서 대답을 섰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나라 북변에 있는 금부리땅에 중부이남지대에서 자라는 감나무를 아직은 자라우지 못할 것이었다. 어린것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자책이 왔으나 북변땅에서 감나무를 기르지 못한다고 속단할 수 없는 이상 나는 구태여 자기의 대답을 시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것은 얼마전에 내가 천삼리를 찾았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천삼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고장이었다.

금강산의 맑은 정기를 담아내고 대지의 젖줄기되어 관개수 흘러넘치는 무연한 안변벌 한복판을 가로질러 동해에 합치는 남대천의 흐름이 정겹게 안겨왔다. 양지바른 산기슭마다에 오붓하게 들어앉은 문화주택마을들이 또한 아름답게 조화되어 한쪽의 그림을 보는 듯...

여기가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다녀가신 영광의 땅 천삼리다. 봄갈이에 한창인 트랙트들의 동음이 울리고 새봄의 대지곡을 울리는 관현악소리인듯, 초록색비단필을 펼친듯한 땃상모를 가꾸는 아낙네들로 흥성거리는 풍요한 벌판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한없이 부풀어올랐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모든 농촌이 다 풍요하고 아름다

우며 우리 나라 농촌은 가는곳마다 다 선경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되새기며 천삼마을을 바라보는 나의 눈앞에는 바둑판 같은 논배미, 계단식언덕에 줄지어선 감나무림, 다가서는 모든 풍경이 정말 다 선경이었다.

선경! 산이 좋고 물이 맑아서 선경인가, 아니면 만물이 움트고 소생하는 계절이 와서 선경인가... 생각에 잠겨 설레이는 감나무림을 보고 또 보는 나의 생각은 더욱 깊어만졌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라 일러왔지만 자연 그대로는 제아무리 경치가 좋았어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선경이 될 수 없었고 땅이 제아무리 비옥했어도 자연 그대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였다.

옛적엔 잣아드는 강바닥을 허비는 용드레소리 이 땅에 처량하고, 지지리도 못살던 천삼마을사람들이 지금은 해마다 논농사, 밭농사, 과일동산에 만풍년 들어 기쁨도 큰데 앞뒤산은 온통 감동산을 꾸려놓아 그 경치 아름답기 그지없다. 더구나 이 마을이 감고장으로 알려진 유래는 나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200년세월을 헤아린다고 한다. 고향을 등지고 정처없이 떠난 발길들이 자연 이곳에 떨어 피나리보짐들을 풀어놓게 된 것이 비로 천삼마을이었다.

그때의 천삼은 앞을 보아도 신통한 발뽀기될만한 땅이 없었고 뒤산을 종일토록 헤매어도 과일나무 한그루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그 누가 심었던지 몇 그루의 감나무가 집오래 굴뚝모퉁이에서 자라고 있었다. 아마도 추운 지대에서는 감이 안된다고 하여 굴뚝온기의 덕을 보자는 것이었으리라. 그러나 그 굴뚝모퉁이의 감나무는 2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집오래에서만 땀돌고 있었다.

나라의 큰 정사를 돌보셔야 하실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이 천삼마을을 찾아주시었다. 집오래의 감나무들을 유심히 눈여겨보신 수령님께서서는 감나무는 거름을 안줘도 잘 자라고 벌레가 끼지 않으니 손이 적게 들어 좋고 감은 아이 어른 다 좋아하는 맛 좋은 과일이라고 하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이 고장기 후풍토에 대한 자세한 형편을 헤아리시고 감나무를 굴뚝모퉁이로부터 산으로 옮겨 온 산을 비우지 말고 감나무림을 조성할데 대한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그러시고는 막대한 국가적인 물질기술적방조를 주도록 배려하여주시었다.

이 고장사람들은 어버이수령님의 한량없는 은정

에 목이 메어 울었고 좁은 시야를 넓혀주신 그이의 가르치심을 기어이 관찰하리라고 아이, 어른 온 마을이 달라붙었다. 굴꼭모퉁이의 감나무들은 벌을 지나 산으로 오르기 시작하였다. 낮은 산으로부터 좁 높은 산, 그다음은 더 높은 산으로 옮겨갔다.

정각산과 실봉산기슭도 개간하고 손전등과 양지말의 산들에도 계단식으로 밭을 만들어 백수십정보의 감나무밭을 조성하고 집집마다 10그루이상의 감나무를 가꾸어놓았다.

지금은 해마다 수백톤의 감을 따들여 군과 도안의 인민들에게 공급하고있으니 사람들은 이 한 마을의 전변을 놓고 과연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인민이 사는곳이면 그 어떤 험한 산간벽지에도 찾아오시여 그들이 잘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지극한 사랑이 가슴 뜨겁게 안겨온다. 한평생을 하루도 쉬시는 날 없이 기울이시는 거룩한 로고를 떼어놓고 오늘의 이 전변을 생각할수 있으랴.

천삼마일이 생겨 장구한 세월이 흘렀으나 그 누구도 오래 감나무를 한적하게 비어있는 산으로 내어다 감동산으로 꾸러놓을 생각을 못하였으니 산은 옛 그대로의 벌거벗은 산이었다. 더구나 이 고장 사람들은 자연의 맹목적인 횡포와 번덕을 길들이지 못하여 감을 대대적으로 산에다 기른다는것을 힘들게만 여겨왔었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이 고장사람들은 자연의 맹목적함에 예속되지 않았으며 그것을 자기들의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갔던것이다.

이 마을사람들이 힘들인 보람이 커서 지난해 10월 어버이수령님을 자기 마을에 모시는 영광의 날을 맞이하였다.

마침 감철이어서 감나무이파리는 몽땅 떨어지고 새빨강게 익은 감만이 붉게 타는 아침노을인양 앞뒤산을 물들이고있었다. 이 아름답고 풍요한 행복의 동산을 마련해주신 어버이수령님께 감사드리는가 감동산은 더욱 붉게 무르녹아 그 황홀경을 자랑하며 설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 풍만한 감작황에 만족한 웃음을 담뱃 담으시고 이곳 정각산기슭 감동산에 오르시였다. 그이께서 다부지게 열린 한 감나무옆에 이르시였을 때 농장의 한 일군이 말쑥올렸다.

《수령님께서 15년전에 오셨을 때 보신 나무입니다. 그때 수령님께서 이 나무에 감이 몇알이나 달렸겠는가고 물으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짐작으로 400알, 500알, 700알, 지어 1,500알까지 달렸을것이라고들 하였습니다. 그때 수령님께서서는 <아니요, 800알이요.>라고 찍어서 말씀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돌아가신후 저희들이 따서 세여보니 803알이였습니다.》

이 소박한 말을 들으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얼마나 호탕하게 웃으시였던지 그 큰 웃음소리가 산

울림되어 린근의 강산을 진감하였다. 동행한 일군들은 조금이나마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렸다는 행복감에 젖어 눈곱이 뜨거워지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어버이수령님의 그 큰 웃음속에 논농사 밭농사 만풍년들고 감농사 또한 대풍들여 감동산 행복의 동산에서 잘사는 이고장 농민들을 축하해주시는 자애에 넘치신 어버이사랑이 가슴뜨겁게 안겨와서 눈시울 또한 뜨거워지는것이였다.

농사군은 세밀해야 하며 농사일이란 알알이 헤여보는 습성이 있어야 한다고 늘 타일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이시다. 전국의 농사를 포기농사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주체농법의 탁월한 창시자이신 경애하는 수령님!

이 땅우에 인민의 기쁨을 키워주시기 위하여 견고 걸으신 그토록 숭고한 로고와 심혈의 자욱우에 어찌 금부리와 천삼리만이 오늘의 선경으로 꽃피었으랴.

멀리 항일의 간고하였던 적과의 치렬한 싸움의 나날에도 조국의 사과를 맛보지 못한 아동단원들에게 돌려주신 어버이사랑이 잇닿아 중부이남지대에서만 자란다는 감나무도 오늘은 산으로 오르고 북으로 북으로 뻗어 자기의 분포도를 넓혀가고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포화속에서 백리과원을 마련하여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계시여 우리 나라는 방방곡곡 이르는곳마다에 백과 주렁지는 청춘과원이 펼쳐졌다.

대자연개조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손길아래 바다도 밀려나가 금과만경이 바다처럼 설레이고 흐르던 물도 거슬러올라 구름으로 허리 감긴 다락밭에 생명수 넘치는 판개의 나라 되어 자연본래의 경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였다. 고삭은 초가집들은 자취를 감추고 변화한 도시를 따라 다층건물과 문화주택들이 즐비하여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한층 돋구어주고있다.

하기에 우리 나라에 왔던 한 외국손님은 조선에서 자동차를 타고 먼길을 여행하여도 그냥 새롭고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기때문에 그 경치에 눈이 팔려 피곤한줄을 모르겠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를 찾아오는 모든 외국손님들이 다 이렇게 한결같이 감탄을 자아내며 《그림같이 아름다운 나라》, 《선경으로 꽃피는 조선》이라고 하였다. 그렇다. 참말로 우리 나라는 그 어디를 가보나 가는곳마다가 다 선경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덕으로 이 땅우에 부강한 사회주의공업의 나라, 곡창의 나라, 과수의 나라로 전변된 경치 좋고 살기 좋은 지상락원이 펼쳐졌다. 우리 나라는 오늘의 선경도 좋지만 래일의 조국은 더더욱 아름다운 선경으로 될것이다. 그날을 그려보는 나의 가슴은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하여 더욱 뜨거워졌다.

탄부들의 맹세

김병두

해빛 밝은 선전실에서
입껌을 앞두고
탄부들은 맹세다진다
어버이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가장 뜨거웁고 깨끗한 충성심으로
승엄히 다져가는 맹세의 마디마디
가슴을 친다, 심장의 벽을 올린다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속에
충성의 첫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탄부들
어제보다 오늘은 더 통이 큰 생산목표로
오늘보다 래일은 더 높이 세운 석탄고지로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자고
이 아침도 결사전에 나가는 전사의 마음으로
맹세다지는 심장의 목소리여!

불타는 저 맹세를 안고 가는곳에
하루계획 세네배로 넘쳐하지 않고는
강박으로 나서지 않는 탄부들의 일터가 있고
3대혁명기치를 가슴에 안고
수억톤의 탄층을 밀어가는 탄부들의 웃음이 있어라

저 맹세의 마디마디 심장에 고동치는곳에
암층의 물주머니 터졌어도
어깨와 어깨가 방파제로 솟았고
순간도 멈출수 없는 벨트의 흐름을
어깨우로 흘려보낸 탄부들의 충성이 있어라.

걸어온 길보다
걸어갈 충성의 한길을 두고

심장으로 다지는 맹세의 마디마디
가슴에 끓는 불사신의 용맹되어
무조건성의 신념이 되어
어버이수령님께서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도록
하늘높이 쌓아가는 석탄산이여!

공업의 첫 공정을 지켜선
탄부들이 다지는 맹세의 마디마디
새 기적과 비약을 낳으며
어찌 석탄폭포로만 되랴
쇠물폭포되어 나라의 만년초석을 다져가고
비단폭포되어 생활의 웃음꽃 피워가거니

천길지하막장에 일터를 두었어도
탄부들이 다져가는 맹세의 마디마디
넓고넓은 땅우의 모든 초소에서 듣고있다
용해공들은 쇠물보다 뜨거운 마음으로
방직공들도 이슬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불보다 뜨거운 그 맹세 지켜가자
그 어떤 엄혹한 시련의 날에도
가장 높은 충성의 노래를 안고
주체형의 혁명전사된 보람찬 삶으로
빛나는 위훈의 하루하루를 이어...

어버이수령님의 바라심대로
언제나 승리자의 보고만을 올리며
충성의 맹세를 지켜가는 이 길우에
탄부의 이름 온 세상에 높이 울려라
탄부의 영예 이 강산에 붉은노을로 불타라

네 가슴 샘처럼 맑고 깨끗해

한기운

산기슭 맑은 샘물

푸른하늘 꽃을 안고 비껴 더 맑아보이듯

농장의 크고작은 일 다 비껴들어

소조원-너의 마음 더 아름답고

쉬지 않고 솟는 샘줄기같이

농장일에 깊은 생각 끝이 없어

너의 마디마디 말밑에선 언제나

우리 생각 못하던 새 일감 펼쳐지더라

때로 제하는 일에 들떠 흐려진 가슴들에도

아끼고 사랑하는 너의 마음 흘러들어

밝아지는 그 얼굴들엔 용기 일더라

웃음에 젖어 노래넘쳐...

네 마음 하도 맑고 깨끗해

네 하는 생각 하도 깊고 다감해

산기슭엔 층층다락밭 펼쳐지고,

새우는 과일동산 가지마다 첫꽃이 피고...

당정책학습의 밤에도

포전의 휴식참에도

너의 목소리 것처럼 진정에 불타서

사람들 가슴마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 더 깊이 뿌리내려.

네가 농장에 온해 봄부터

움트는 새싹들 봄서리를 모르고

뜨락또르도 못오르던 더기에 올라

주체농법의 새길을 활짝 열어가거니

아! 가슴속 주체형의 맑은 피

비가 와도 흐리지 않는 샘처럼 살자고,

눈보라쳐도 얼지 않는 샘줄기 되자고

대학을 떠나던 날의 첫걸음

만경봉의 샘물로 가슴적신줄

어찌 너의 일기책만 알아두랴!

품은 그 마음,

이른새벽, 늦은밤 이슬젖는 그 걸음

자애로운 수령님의 심려 덜어갈 한 생각뿐

주체형의 피만 끓는 가슴속 맑은샘

오늘은 온 농장원들 가슴에 하나로 이어져 흐른다

혁명전위-너를 따르는 그 걸음들에

3대혁명소조원-너를 닮은 그 마음들에

봄 들판 사랑의 들판에

리광선

봄바람 꽃향기 신고서 오는
열두라삼천리 넓은 벌판에
풍년모 꽃으러 달려온 처녀
얼굴처럼 마음도 티없이 고와
온 벌이 사랑하는 공장의 처녀

오늘도 온 벌을 안고
넓은 벌에 푸른 모를 쫓은 그 손을
농장마을처녀들 함께 붙잡고
저녁노을 피어나는 들길로 돌아오네
아, 이런 때면 공장처녀의 가슴은
작아도 설레는 황금의 바다

모내는기계를 몰아가던 운전수들도
그 숨씨에 반해서 그 숨씨가 놀라와
어쩌면 그리도 빨리
모를 심는가 물을라치면
선반기앞에서 피워가던 불꽃을
만풍년의 봄들판에 심어간다네

곱게 피는 노을속에 웃음을 엮고
맑게 흐르는 시내물에 봄꿈을 신고

농장마을처녀들 부르는 노래
선반공처녀도 함께 부르는
모내기철 들판은 온 나라가 사는 땅
위대한 수령님 불러주신
사랑의 봄들판에

기계를 신고 웃음을 신고 달려온 처녀
처녀의 발걸음은 만풍년을 수놓는 충성의 마음

아, 눈내리는 날엔 트랙또르 부속을 꺾고
꽃피는 봄날에는 푸른 모를 심어주며
선반기의 불꽃도 벼꽃처럼 피워가는
공장처녀의 그 모습

농장마을처녀들 닮아가는 그 모습

모내는기계들 달려가는 땅이
만풍년의 푸른 빛으로 덮여가듯이
공장처녀의 마음
농장마을처녀들의 마음
꽃피는 봄들판 사랑의 들판에서
충성의 열매를 한빛으로 익혀가네
언제나 벌에 사는 마음 함께 있으며...

바쁜 날은 기쁜 날

리근지

눈오는 날 흙갈이해준 아득한 별
아지랑이 웃는 봄날 검붉은 가슴 펴고
눈서리 찬날 랭상모판에 뿌린 벼씨
종다리 우짖는 날 푸르러 설레일 때면
-봄날 하루는 가을날 열흘인줄 아오

가슴에 숨벤 그 소리 되새기며
새벽이슬에 젖어 모내리 갈 때는
하루하루가 천금 같아 바쁜 날
하루하루가 가을날에 있어 기쁜 날

말말아 여름도 삼복
피약별은 등을 데워도
달디단 물을 빨며
우썸우썸 한뼘씩 마디 뽑는 벼포기
-풍년이 와요 황금가을이 와요-속삭일 때는

웃음도 많아 노래도 많아
새별이고 나와 달지고 돌아들어도
다시금 별로 나와 훨훨 농약을 뿌려가는
여름도 벼들이 꽃시샘할 때는 바쁜 날
풍년꽃이 피는 삼복철은 더더욱 기쁜 날

땅처럼 깊고 성실한 마음들이
3대혁명 불길로 가슴태우며

드넓은 농장별을 꿈결에도 안고사는
농민만이 느끼는 드높은 긍지가 있어
눈비바람에 얼굴은 끄슬려도
나날이 풍년이 웃으며 찾아드는 농장별은
날에날마다 기쁜 날

하늘땅이 황금으로 온통 웃는 가을
봄내 여름내 스며벤 피곤을
향긋한 난알향기로 씻어주는 벌가운데
땀젖은 가슴 열어젖히고 서보아라

-어버이수령님 은덕으로 내가 찾아왔소!
튀겨나게 영근 이삭들 속삭이는 소리에
마음속의 기쁨을 하늘땅에 터치며
뜨는 해 지는 달 안고 벌에 살아도
풍년가을은 바쁜 날중에도 바쁜 날
벼이삭은 베어도 베어도 끝이 없어
풍년든 가을은 기쁜 날중에도 기쁜 날

아, 어버이수령님께 바쳐가는 충성심을
포기포기 심어 가꾸어가는
내 사는 드넓은 농장별은
일년열두달
나날이 명절처럼 기쁜 날

별 빛

박찬은

국가미술전람회장엔 전시된 수많은 그림들 가운데서 조선화 《금강산》은 류달리 관람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섬세하고도 우아한 필치로 그린 대폭의 미술작품은 사람들의 마음을 황홀하게 했다. 독특한 필법과 형식을 모색하여 훌륭하게 완성시킨 《금강산》이었다.

이 그림앞에 키가 크고 머리가 희숙해진 한사람이 오래도록 서있었다. 술한 관람자들이 오고가고 이따금 자리가 뜰해지기도 했으나 그는 종시 자리를 뜨지 않는다. 그림을 보다가는 또 창가로 돌아서서 명상에 잠긴 눈길로 화려한 수도의 거리를 내다보군한다. 이 그림과 관련하여 너무도 깊은 추억을 간직하고있는 사람이었다. 지금 그의 눈앞에는 피눈물나던 지난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러가고있었다.

…한껏 신록이 우거진 우중충한 정원속에 위세를 뽐내듯 호화로운 2층벽 돌집이 거만하게 앉아있었다. 집앞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곳에는 잔잔한 인공못이 정적에 잠겨 누워있는데 일본광주 구로다의 끝없는 허영의 상징인듯 넓고도 깊었다. 살찐 잉어들이 욕실거리는 풍치좋은 못은 처세와 탐욕으로 눈동자가 흐려진 주인에게 있어서 자연정서를 안겨주기에는 너무도 과남하다 할것이었다.

검푸른 나무잎들이 맥없이 늘어져 조으는 한낮이었다. 청금단처럼 깔린 못가의 보드라운 잔디판에 눈부시게 화려한 꽃무늬옷으로 단장한 일본인 소녀가 한가로이 퍼더앉아 그림을 그리고있다.

그옆에는 람투를 걸친 소녀가 값진 양산을 펼쳐 들고 서서 그들을 지어주고있었다. 거무스레하게 빛이 바랜 깡통한 몽당치마를 입고있어 무릎아래가 드러난 그 소녀를 두고 구로다광주의 딸 아끼꼬는 늘 입버릇처럼 《까투리》라고 불렀다. 하지만 소녀에게도 부모들이 지어준 예쁜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었다.

못가에는 하얀 들장미가 흐드러지게 피어나 한점 바람이 불어도 상긋한 향기를 풍기며 연한 꽃잎을 분분히 날리군했다. 잉어가 꼬리를 치며 뛰여오를 때 거울같은 수면에 뜬 꽃잎들도 일렁일렁 춤을 추었고 물속에 비친 두 소녀의 모습이 서로 찹싸우듯 부딪치고 뒤섞이고 하였다.

얼마동안 열심스레 연필을 놀리던 아끼꼬가 무어라 종알거리더니 화판우의 그림종이를 뜯어내어 와락와락 꾸겨서 못에 던져버린다. 그때 유유히 노닐던 잉어들이 좋은 먹이라도 떨어진줄 알고 덤썩덤썩 고괘뿔을 하는 꼴을 보고 《소녀화가》는 더 약

이 오르는지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예쁜이는 얼굴에 송골송골 내뿜은 땀방울을 흠쳐 낼념도 못하고 아끼꼬의 파들쭉거리는 얼굴에 그늘을 던져줄라 화판에 그늘을 지어줄라 여간 마음을 쓰지 않았다. 말쑥한 얼굴에 햇빛이 닿지 않도록 신경을 쓰다나니 그만 화판에 뽕별이 잠깐 비쳐들었다. 아끼꼬의 얼굴은 당장 독오른 고추빛이 되었다. 마치도 그것이 자기의 그림솜씨에 대한 모욕이거나 한것처럼.

《요 까투리아, 요게 요게…》

아끼꼬는 쥐고있던 연필끝으로 예쁜이의 발잔등을 야멸차게 찔러댔다. 예쁜이가 이쪽 발을 들면 저쪽 발을, 또 이쪽 발을… 그가 아픈 발을 엇바꿀 때 연필끝은 부러져나갔고 발등에선 피가 흘렀다. 하지만 예쁜이는 신음소리 한마디도 내지 않았다. 독이 오른 눈길로 아끼꼬를 쏘아보던 그는 양어장너머로 시선을 돌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억울하고 분하여 한방울의 눈물이 소리없이 떨어졌다.

이때 가까운 백양나무뒤에서 이 모양을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는 한 소년이 있었다. 구로다광주네 집 잡부인 예쁜이의 오빠 강천호였다. 열여섯나이에 비하여 퍼그나 더 숙성해보였다. 순박함이 어린 커다란 두눈은 유순했다. 그는 지금 주인집이 있는 여기 시내로부터 20여리 떨어진 구로다광산에 심부름을 갔다오던길이었다.

《네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걸 집안에선 누구도 몰라. 내가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는건 널 생각해서 그런거야. 난 너를 내 두팔처럼 여기구 앞으로 어데가든 데리구 다닐테야!》

(예쁜이를 영원히 데리구 다녀?!)

천호는 깜짝 놀라 가슴을 두근거리며 이제 예쁜이가 무슨 말을 할가 기다리고있는데 아끼꼬가 또 말했다.

《너두 내가 올해 전람회출품작품때문에 얼마나 애를 태우는지 알지? 요 까투리아, 그런데 눈치없이 보고만 있을래? 네가 누구때문에 그림을 배웠는지 알기나 해?》

예쁜이는 양어장 푸른 물위에 시선을 띄우고 비웃는듯한 목소리로 침착하게 말했다.

《홍, 내가 <양어장풍경>을 그렸다가 들키면 어쩔테니? 너의 부모가 혼내올텐데…》

《그건 절대비밀이다. 걱정말어…》

고개를 수긋하고 서서 귀를 기울이던 천호는 주먹을 꼭 쥐며 아끼꼬를 노려보았다.

(거마리같은년, 마지막엔 그림까지 도와달래?)

그는 동생이 애처로울수록 아끼꼬가 끝없이 얄미웠다.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는 자신의 처지가 더없이 애달팠다.

예쁜이보다 한살 우인 15살난 광주 의 딸은 소학교 6학년, 천호의 누이동생은 이 집 세식구의 몸종이었다.

천호는 자신보다도 동생이 받고있는 시달림이 늘더 가슴아팠다.

몇시간전만 해도 예쁜이가 그 술한 방들과 가족들, 안마당과 정원을 쓸고 닦느라고 땀을 흘리고있는데 아끼꼬가 《까투리-물!》 하고 소리치며 자기 방으로 쪼르르 들어갔다. 그림을 그리겠다는 소리다. 예쁜이가 물종지에 물을 떠가지고 들어가면 벌써 개별수업을 주는 미술선생이 아끼꼬에게 혼시를 시작한다. 예쁜이는 그들결에서 연필들을 깎아서 놓아주고 선생이 담배를 뽑아들면 성냥을 켜준다. 아끼꼬가 그림에 색칠을 시작할 땐 순서에 따라 붓들을 씻어놓아주곤했다.

천호는 구로다광주가 무남독녀 아끼꼬를 《명문거족》의 《구수화가》로 키울 결심을 내리고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원래 명예를 황금처럼 여기는 구로다가 젊은 시절 한때 《동양미술계의 혜성》이 된답시고 붓자루를 비질하듯 휘둘러본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잔뜩 허영과 공명에 들떠서 이름이나 한번 내보자고 어찌다 잡아보았던 붓은 당초에 그의 허영에 만족을 줄만큼 얕잡한 사치품이 아니었다. 워낙 게으름으로 굳어진 비계덩이에 불과한 구로다로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다가 일찍부터 조선땅에 와서 광주노릇을 해먹던 늙어빠진 애비한테서 재산을 상속받게 되자 별안간 미술이고 뭐고 다 걸어치워버렸다. 더구나 처세술이 밝아 목돈맛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무섭게 금욕이 동해올라 백만장자를 꿈꾸기 시작했다. 그는 돈이라면 어떤 못할 짓도 마다하지 않는자였다. 그러면서도 구로다는 애비때문에 할수 없었으니말이지 계속 미술공부를 했더라면 꼭 큰 화가가 됐으리라고 은근히 자랑하기를 즐겼다.

그런 구로다여서 처음엔 《명문가》의 허세를 보이노라고 아끼꼬에게까지 미술공부를 시키기 시작했다. 딸이 소학교에 입학하자부터 그는 시내에 있는 중학교 미술선생에게 개별수업을 의뢰했었다. 그랬는데 뜻밖에도 아끼꼬는 그림에서 남다른 재능을 나타냈다.

그때부터 구로다에게는 옛시절의 광기가 미련을 가지고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옳지, 네가 한번 세상에 대고 큰소릴 쳐봐라... 이런 마음으로 딸을 키워오는지 수년, 아끼꼬의 재능은 세월과 함께 자라서

작년에는 《전국학생미술전람회》에 수목화를 출품하여 2등을 했었다.

천호도 지금 아끼꼬가 여러날째 출품할 그림인 《양어장풍경》 초안작업에 골몰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하지만 예쁜이더러 도와달라고 하는데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종이와 수채화구를 물쓰듯하고 게다가 선생까지 붙여서 세상부러울것없이 그림공부를 시켜주고있는데도 남의 손을 빌자고하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인가. 바꾸어놓아 동생을 아끼꼬의 절반만큼이라도 그림공부를 뒤받침해준다면 예쁜이는 그 무엇이건 못그려내는게 없을것 같았다. 이런것을 생각하니 남몰래 가슴이 더 쓰리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도 모르고 들에 핀 꽃처럼 거친 바람에 시달리는 동생이 볼수록 불쌍하여 눈물이 났다.

발등을 찢리우면서도 어쩔수 없이 양산을 들고 서있어야 하는 예쁜이... 하다못해 동생의 이마에서 땀이라도 한번 씻어주지 않고서는 차마 그냥 갈수가 없어 천호는 그들결으로 다가갔다.

오빠를 보자 예쁜이는 얼른 고개를 수그리더니 발등을 안보이려고 한쪽 발을 살짝 이쪽 발등에 올려놓고는 반쯤 뒤집어놓는다. 그리고는 아무일도 없었다는듯이 오빠앞에 웃어보이려고 애썼다. 천호는 《예쁜아-》 하고 격정에 목메여 소리치고만 싶었으나 그도 강인히 마주 웃어주었다. 동그스름한 얼굴에 귀여운 방울코, 까만 눈동자가 명민하게 반짝이는 고운 눈은 볼수록 더 깊어만보여 애뜻한 정을 자아냈다.

천호는 팔소매로 예쁜이의 이마에서 땀을 훔쳐주었다.

발자취소리에 고개를 돌렸던 아끼꼬는 쉼쭈해진 얼굴로 천호를 올려다보더니 가시같은 시선을 쏘았다.

《쉬- 땀냄새... 이 더러운 호마야, 비켜!》

아끼꼬는 죽는 시늉을 하며 《사구라》꽃무늬가 박힌 손수건으로 오탁한 코를 짜낸다. 그리고는 못볼것이나 본듯이 황급히 뺄 돌아앉았다. 저도모르게 한발 물러선 천호는 등실한 얼굴이 꺾끗하게 굳어져 아끼꼬를 쏘아보았다. 그는 자기네를 《호마》, 《까투리》로 부를 때마다 뺨이 꿈틀거렸던 것이다. 천호는 어깨숨을 내쉬며 그러한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예쁜아, 조금만 더 참자. 몇달후엔 아버지가 꼭 돌아오실게다.)

잠간 서있던 천호는 사무치게 기다리고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눈앞에 그리며 다시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겼다.

× ×

구로다광산의 광부였던 천호의 아버지 강순보는

일찌기 안해를 병으로 잃었었다. 안해를 살려보려고 광산에서 빛까지 켜지만 허사였다. 그는 오직 남달리 총명한 오누이를 데리고 살아가면서 어린 딸이 곁에집 학생을 따라 그림그리기를 무척 좋아하고 류달리 손재간이 있는것을 기록히 여겼다. 그래서 이따금 연필이나 크레용을 사다주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해 봄, 광주는 전에없이 혹독하게 빗독촉을 했다. 광주놈은 빗을 갠든가 딸을 내놓든가 끝장을 보아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나서 좋은 수가 있다고 꾀었다. 일본에 있는 자기 친구가 새롭게 광산일을 벌려놓고 광맥을 잘 볼줄 아는 경험자들을 요구하는데 그곳에 가서 4년동안만 착실히 돌봐주면 한밑천 잡을수 있으므로 그리로 가라고 구슬렸다. 오누이는 제가 데려다 집일이나 시키겠으니 아무때건 와서 빗을 갠고 찾아가라고 했다. 빗주인의 말이 곧 법으로 되는 세상, 어쩔수 없이 일본으로 끌려가게 된 강순보는 열두살난 천호에게 4년 있다 오겠으니 기다리라고 신신당부했다. 예쁜이더러 자기가 올 때는 수채화수도 많이 사다주겠다며 웃어주기까지 했다. 강순보는 역시 처지가 비슷한 친구인 판석이와 같이 끌려갔었다.

그때로부터 금년이 4년째, 이해의 여름도 깊어가고있으니 설달그믐이면 아버지는 돌아오리라.

예쁜이는 이 집에 들어온 그날부터 아끼꼬의 곁에서 온갖 심부름을 다하면서도 선생의 그 신기한 설명과 놀라운 이야기들을 류다른 흥미를 가지고 들었고 한마디도 빠짐없이 머리에 새겨넣기 시작했었다. 더우기 소녀의 예린 마음이 남다른 유혹에 끌려 미술의 세계에 조심조심 끌려들기 시작한것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에서였다. 예쁜이에게는 어머니가 처녀시절에 찍었다는 돈있만한 사진이 있었다. 그는 얼굴조차 기억할수 없는 어머니지만 왜 그런지 커갈수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이상한 슬픔으로 바뀌어 가슴이 저리었다.

예쁜이는 자주 그 사진을 꺼내놓고는 어머니가 곁에 앉아있는것처럼 《어머니!》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불러도 보았고 자기를 모를가봐 알려주기도 하는듯 《어머니, 내가 예쁜이에요. 아이참, 왜 그렇게 보기만 해요.》하고 혼자서 말을 주고받아가는 애달픈 마음 이길데가 없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곤했다. 하나 사진속의 어머니는 너무도 매정했다. 웃지도 않고 목소리도 없다. 《어머니, 내 이름을 불러줘요. 한번만이라도 목소리를 듣고싶어요.》하고 애절한 음성으로 부르짖다가는 어깨를 떨며 흐느껴 울기를 그 몇번... 하지만 사진은 너무도 작고 퇴색한것이어서 들여다볼수록 오히려 안타까움만 자아냈다. 그때마다 예쁜이는 잠이 오지 않았고 자기 손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크게 그려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곤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어느날엔가 미술선생의 속사화첩을 보게 되면서 더욱 확고한 결심으로 굳어져갔다. 선생의 속사화첩에는 예쁜이가 알고있는 사람의 초상도 여러장 그려져있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후부터 소녀는 그 미술의 우아한 대문속으로 소리없이 빨려들어가기 시작했었다. 날이 갈수록 그림에 대한 애착은 불같이 뜨거워졌다. 그럴수록 알곳은 심사가 꿈쩍락거렸다. 그는 아끼꼬가 암치없이 우쭐거릴 때마다 《내가 인제 우리 어머닐 꼭 그려내는걸 봐.》 하고 속으로 버르곤했다. 무슨 그림이건 아끼꼬한테 지고싶지 않아 어떤 날은 일을 잘못했다고 매를 맞고 저녁은 굶고도 그림만은 그려놓고서야 자리에 눕곤했다.

벌써 여러해동안 예쁜이의 솜씨도 키와 함께 자라 지금은 무엇이건 그려놓으면 그것과 방불했다. 그런데 예쁜이의 장난질이 까딱 잘못해서 주인의 눈을 거슬리게 한다면 예상 못했던 불화가 생길수도 있을가봐 천호는 늘 동생에게 조심해야 한다고 타일려주곤했다.

...그날 저녁무렵, 심부름을 갔다가 대문안으로 들어서던 천호는 저도모르게 우뚝 굳어졌다.

하르르한 《기모노》를 입은 요시에가 깔끔한 눈매로 천호네 방문턱에 걸터앉아있었다. 그앞에는 부엌쪽으로 머리를 돌린 예쁜이가 끝은 자세로 서있다.

《요년, 바로 말해, 이걸 네가 훔쳤지?》

요시에는 양칼지게 쓰아붙이며 한손에 쥔 그림종이들과 붓을 교앞에 내뒀다.

《훔친게 아니예요.》

그래도 녀주인은 광주리만한 낭자를 흔들며 뻗소리를 지른다.

《거짓말 하는년은 허바닥에 못을 박을테다.》

《아끼짱이 전사해줬다 달라던거예요.》

《그 앤 전사할데가 없어서? 흥, 요 깜찍한년이...》

불살을 썰룩거리는 녀주인의 웃음이 얼음장처럼 차거웠다.

예쁜이는 낮에 아끼꼬가 억지로 말기다싶이하는 종이들과 수채화를 시답지 않게 자기 방안에 들여놓고는 물을 길었다. 그런데 요시에가 지나가던길에 열어놓은 방안을 들여다보았던것이다.

천호는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주춤주춤 안마당가로 들어갔다. 야합수 한그루가 서있는 아래층 현관앞에 왔을 때 주인의 찾는 소리가 들렸다.

뱀가죽같이 얼룩덜룩한 《유까다》를 입은 구로다광주는 종려나무화분이 놓인 원탁을 마주하고앉아서 앞에 서있는 갱내 책임감독들에게 무슨 이이기를 하고있었다. 앞섰이 터친 왜웃자락이 무릎아

래로 흘러내려 털이 꺼져분한 넓적다리가 그대로 드러났다. 좁은 이마아래로 머리칼이 숙붙어 답답하게 보이는데 불룩한 주머니처럼 처져내린 두볼에도 굴레를 씌운듯 털이 부르르하다. 그는 부리부리한 눈길로 천호를 내다보았다.

《무각터에 주주돌감들을 다 저다왔어?》

《예-》

《음- 년말엔 네 애비도 오겠지만 일을 잘해야 빚을 다 갚을수 있어.》

이윽하여 안마당에 나선 광주는 언지시 요시에 쪽을 바라보다가 엄엄한 목소리로 짹-고함을 질렀다.

《그건 또 뭔가? 엉? 뭔가말이야?》 하고는 이마살을 찌프리더니 주린 곰처럼 그쪽으로 어슬렁어슬렁 다가갔다.

《요 줌도적년을 며칠 굶겨야겠어요!》

천호는 호된 방망이에 맞은듯 눈앞이 아찔했다. 그는 더 서있지 못하고 요시에앞으로 달려가 《마님, 이 애가 무얼 잘못했는데요?》 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동시에 천호의 눈길은 멍든 흠집들이 찍힌 동생의 종다리로 끌려내려갔다. 구로다의 발자국소리가 가까와온다.

순간 그는 주인의 가족채찍이 또다시 저 가느다란 종다리를 물어뜯을것 같아 몸을 떨었다. 조금만 잘못해도 《버릇을 때준다》며 대뜸 채찍으로 치고 몇가씩 굶기는 주인이 아닌가. 요시에가 이렇게 양탈을 부리고있는데 보나마나 구로다는 예쁜이의 덜미부터 거머쥐고볼게다. 천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예쁜아, 주인놈의 모진매를 면하자!》

그는 저려드는 가슴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어쩔수 없이 동생의 뺨을 때렸다. 예쁜이의 복숭아꽃같은 한쪽뺨에 손자국이 인찍혔다. 천호는 손을 흠뻑했다. 파릿해진 얼굴을 쳐들고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예쁜이... 이것을 보고 손에 들었던것들을 놓고 일어서는 요시에의 요염한 눈에 알곳은 미소가 비쳤다.

《됐어! 네가 동생을 잘 신칙해라...》

구로다는 머리를 끄덕이고나서 《게다》를 끌며 돌아섰다.

천호는 예쁜이를 데리고 방안으로 들어왔다. 킁킁한 벽에 걸린 거뭇한 옷가지들과 껌짜우에 놓인 현 이불빼기 하나가 오누이의 재산의 전부였다. 천호가 방바닥에 주저앉자마자 예쁜이는 오빠앞에 어푸러지며 목놓아울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 하소연할데가 없어 동그란 어깨를 떨며 슬피 우는 동생을 보니 천호는 가슴이 찢기는듯 아팠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그득히 차올랐다. 낮에는 아끼꼬한테 발등을 찢리웠고 저녁에는 요시에한테 줌도적으로 물리웠고 또 오빠한테 뺨까지 맞았으니 예린가슴속에 아프도록 멍힌 피멍을 그 누가 풀어주랴!

(예쁜아, 오빠가 네 뺨을 때릴 때 내 가슴은 칼을 맞는것처럼 아팠단다...)

천호는 눈물을 후두두 떨구며 동생의 얼굴을 자꾸 어루만져주었다.

《예쁜아, 아팠지? 응? 아팠지?》

《아니... 아니...》

예쁜이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씻으며 머리를 흔든다. 천호는 울음섞인 목소리로 안타까이 뇌이며 동생의 어깨를 쓰다듬었다.

《예쁜아, 넌 뭘 그런 장난질을 몰래 하면서 욕을 먹구 매를 맞느냐, 응? ... 찍하면 때리구 밥을 굶기는데 너 매도 적게 맞구 밥도 한두끼만 굶어봤니? 글썽 종이는 왜 받았나말이다...》

《오빠, 난 정말 아끼꼬 보기 싫어 죽겠어... 이 집에서 나가 살면 좋겠어... 흑... 흑...》

천호의 음성은 다시 절절하게 울렸다.

《예쁜아 인제 설명절엔 아버지가 꼭 오실게다. 우리 빛때문에 이 집에 들어와있지 않니. 나가려면 몰래 먼곳으로 도망쳐야 하는데 그러면 아버지와는 영영 갈라지게 된단다. 아버지가 꼭 기다리라구 하지 않았니? 그저 참구 살아야 아버지를 만나구 이 집에서도 나가게 돼.》

그저 애달고 삶은 생각뿐이었다. 아버지만 생각하면 왜 그런지 자꾸만 눈물이 앞을 가리운다. 우리를 먹여살리겠다고 아글타글 애쓰던 아버지, 예쁜이의 그림채능을 보고는 돌아올 때 수채화구를 사다주겠다던 아버지... 천호는 한손으로 얼굴을 덮고 흐드득 느껴올었다.

《오빠, 내 인젠 아버지 오실 때까지 그림 안그릴게... 응? 정말 안그릴게...》

예쁜이의 두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방울져내리었다.

《예쁜아!》

《오빠!》

돌아오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한장한장 그림을 그려두고 그 종이장들이 두터워갈 때 아버지에게 드릴 기쁨의 무게를 가늠해보던 동생이 아니냐... 하나 예쁜이의 재능이 미구에 어떤 불행을 몰아올는지 그것을 천호가 어떻게 알수 있었으랴!

×

×

그후 어느날 밤, 늦도록 바깥일을 본 천호가 방문을 열고 들어설 때였다. 동생이 껌짜속에 무엇을 집어넣다가 뚜껑도 못닫은채 황급히 일어나는것이였다. 얼굴이 진달래빛으로 물든 예쁜이는 공연히 웃고름을 만지작거리며 생긋이 웃어보이였다. 무안을 당한듯 어색해하는 예쁜이를 보는 순간 얼른 천호는 같이 마주 웃어주었다. 그리고는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왜 그렇게 놀라니?》

《오빠한테 그림 안그리겠다구 하고두...》

《오빠가 네 마음을 모르는줄 아니? 요 깜찍한 것...》 하고는 동생의 귀를 살짝 잡아당겨주었다.

《그래 그게 뭐니? 나두 좀 보자꾸나.》

문턱우에 있는 방등불심지를 돈구어놓은 천호는 예쁜이가 꺼내놓은 큼직한 종이를 들여다보는 순간 두눈이 휘둥그레졌다.

(금강산! 아니 이 애가?!)

《너 금강산을 어데서 봤니?》

천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물었다.

《머칠전에 <통천의원>집에 약심부름 갔다가...》

예쁜이는 큰 잘못을 저지른듯 눈을 살퐁이 내려 잔재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렇구나!)

천호도 이전에 그 의원집에 들어서 채색화로 그린 금강산을 감동에 젖어 눈여겨보았었다. 단풍으로 붉어진 금강의 봉우리마다 우줄우줄 키돋움하며 산악미를 자랑하는데 깎아세운듯 기묘한 바위들째에는 억세게 뿌리내린 소나무들이 흐르는 내물에 아지를 드리우고서 천호의 눈길을 놓아주지 않았다.

볼수록 그것은 액자속의 그림이 아니라 실물 그대로 부각되어왔다. 그는 지금도 그때 본 금강산이 눈앞에 삼삼했다. 예쁜이가 그린것도 분명 그 금강산이다. 아름다운 그림이었다. 단지 예쁜이의것은 채색화가 아니었을 따름이다.

오래도록 그림을 지켜보던 천호의 귀가에 별안간 《부사산》에 대하여 떠들어대던 주인의 목소리가 되살아났다.

한때 미술을 해봤다던 구로다광주는 아끼꼬의 그림공부를 위해서인지 2층응접실 넓은 벽들에 각종 명화, 명필들을 걸어놓게 하였다.

하지만 진주자개를 박은 족자속의 그림들은 이상하게도 천호의 눈을 끌지 못했다. 천호와 예쁜이는 매일 이 방을 청소하는데 구로다는 응접실에 손님들이 올 때마다 그들에게 신이 나서 《명화해설》을 해주기도 했다.

특히 구로다는 벽 한가운데에 걸은 요꼬야마 다이강의 《일류명작 <부사산>》에 대하여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곤 했다. 그러나 천호에게는 아무리 구로다가 《부사산》의 기상과 아름다움에 대하여 력설하였어도 그의 말에 전혀 흥미를 느낄수가 없었다. 눈시울이 아프도록 매일 보아도 수묵화로 그린 《부사산》은 꼭지 쯤 살부채를 거꾸로 세워놓은것 외에 더 다른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아마 예쁜이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는지 부사산을 그린것은 한장도 없었다. 주인이 그토록 가보로 아끼는 《부사산》보다도 예쁜이의 《금강산》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가!

천호는 지금껏 동생에 대해 너무도 잘못 생각하고있었다는 자책감을 느끼며 예쁜이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들춰보았다. 그러다 어머니의 초상이 그려진 한 그림을 보는 순간 그의 두눈은 번쩍 빛났다. 어머니의 모습이 신동했다. 인자한 얼굴, 부드러운 눈길, 무슨 말이라도 할듯 입술을 움직일것만 같다.

종이를 두손으로 받쳐들고 사무치게 그리운 다정한 모습을 살피보던 천호는 자꾸만 목이 메어올라 《어머니!-》 하고 마음속으로 뜨겁게 불러보았다. 그리고는 입술을 실룩거리며 동생을 보았다.

《예쁜아, 넌 어머니를 그리면서 몇번이나 울었겠구나!》

오늘이눈은 눈물이 글썽해서 한동안 마주보았다.

얼마후에야 천호는 다시 그림들을 한장한장 넘기었다. 그가운데는 장작을 패는 자기의 모양도 방불하게 새겨져있었다. 그는 느슨히 미소를 지었다.

《정말 네겐 놀라운 재간이 있구나!》

《꼭 오빠 같애요?》

《그럼... 이런걸 장난질로만 봤구나...》

천호는 동생을 애무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고개를 차붓이 숙이고있는 동생, 비록 헌웃을 입고있지만 얼마나 자랑스럽고 귀여운가.

《예쁜아, 그림을 그려, 자꾸 그려라!》

천호는 낮으나 웅글은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러자 놀란듯 고개를 쳐드는 예쁜이의 까만 두눈이 별빛처럼 반짝이였다.

《오빠!...》

동그스름한 얼굴에 넘쳐날듯 환하게 어린 웃음이 그대로 활짝 핀 꽃송이가 된듯하여 방안이 더 밝아지는것만 같았다. 천호는 것처럼 기뻐하는 동생이 너무 정겨워 한손으로 예쁜이의 흑공단처럼 칠칠한 머리태를 쓰다듬어주었다.

《오빠, 아버지가 설명절엔 꼭 오실가?》

《오구말구... 왜? 못오실것 같니?》

《아니... 어서 나가 살면 좋겠어요. 난 아끼꼬한테 그림그려주기가 죽기보다 더 싫어...》

천호는 동생의 심정이 이해되고도 남음이 있었다. 예쁜이의 재능은 결코 타고난것이 아니였다. 어머니의 모습을 제손으로 그려내고야말겠다는 굳은 마음이 앞서 처음에는 사금파리로 매끈한 기와장에 선을 그어보기 시작했고 다음엔 자기밖에 없는듯이 우쭐거리며 업수이보는 아끼꼬보다 기어이 제가 더 잘 그리겠다는 록록치 않은 마음이 있어서 잠도 안자고 그림을 그려온 예쁜이가 아닌가. 요시에가 종년이 밥을 많이 먹으면 미련해진다며 늘 배고프게 먹이고 생트집을 잡아 때리고 굶기기도 했지만 예쁜이는 손에서 그림을 놓지 않았다. 지금껏 동생은 아끼꼬가 까불대며 집어던진 콩다리연필을 좇아 뭉고 식모와 같이 푸주간에 고기를 사러 갈 때마다

몇장씩 남겨두곤했던 종이를 가지고 광주의 딸이 낮에 들국화를 그렸다면 그도 밤에 방등불아래서 선생의 설명을 되새겨보며 들국화를 그렸었다. 보석도 닦아야 빛이 나듯이 동생의 재능도 하구 많은 나날 얼마나 값비싼 땀의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진 것인가.

그런데도 인제는 자기를 부러먹다못해 재능까지도 다 제것으로 써먹으려 하는 아끼꼬의 얄미운 속심에 어찌 예쁜이로서 침뱉고싶지 않으랴. 하지만 이 집에 있는 이상은 어쩔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라도 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수 없는노릇이다. 짓밟히고싶지 않은 마음, 그래서 예쁜이는 어서 이 집에서 나가기를 바라는것일테지...

《오빠, 난 지금 할수없이 이걸 아끼꼬한테 그럭저럭주고있어.》

예쁜이가 그림들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우게 종이 가 좋은 한장의 그림을 뽑아 맨우에 올려놓았다. 수채화로 그린 아주 멋있는 양어장풍경이었다. 천호는 놀란 눈길로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버들가지 휘늘어진 잔잔한 못기슭에 한떨기 흐드러진 들장미가 피었는데 커다란 잉어 한마리가 꼬리로 세차게 수면을 때리며 뛰어올라 떨어지는 꽃잎을 덥석 받아무는 모양을 생동하게 형상해놓았다. 그림을 보니 이것을 아끼꼬에게 주기가 너무도 아쉬웠다. 천호가 이런진대 본인의 마음이야 어떠하랴. 이 그림도 돌아오신 아버지에게 보여드렸으면...

《아끼꼬는 <양어장풍경>을 그리지 않았니?》

《저두 그렸어요.》

《그럼 자기걸 전람회에 보내면 되겠는데 이젠 또 해서 무얼한다던?》

《물라요. 그저 잔소리말구 그리기나 하라구 두말도 못하게 해요.》

《에잇, 그까짓... 인제 아버지 오신 다음에 더 좋은 그림을 그리자꾸나.》

《오빠, 아버지도 지금 내내 우릴 걱정하구계시겠지?》

《그러실거다... 참, 내 알아보니 같이 갔던 판석이야저씨 왔다는 말도 있더라.》

《아저씨가요?! 그럼 아버지도 오신대요? 야-참, 아버지 언제 오신대요?》

예쁜이는 너무도 기뻐서 천호의 무릎을 쥐여흔들며 생글생글 웃었다.

《판석이아저씨가 자기네 고향으루 온것 같다는 소문이 도는걸 보니 아버지도 곧 오실것 같애... 내 인제 이 소문을 좀더 잘 알아보구 그 아저씨 찾아가볼테다. 그러니 예쁜아, 그림을 더 잘 그려서 돌아오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자.》

《그건 제가 다 하겠어요, 오빠, 난 아끼꼬를 이길

자신이 있어.》

《오냐, 이기자, 우리 꼭 이기자! 이 <금강산>그림에 색칠만 하면 더 훌륭하겠구나.》

천호가 《금강산》을 들여다보며 아쉬운 표정을 짓자 예쁜이의 맑은 눈에 눈물이 가랑가랑 어리었다.

×

×

이때로부터 한달이 지나간 어느날 아침, 달포전에 총독부산업국에 올라갔던 구로다광주는 어깨가 으쓱 돌아서 집으로 내려왔다. 주인을 맞은 요시에는 잘룩한 허리를 살살 비꼬으며 호들갑을 떨었다.

사실 구로다는 작년부터 총독부출입이 더 잦았다. 일제는 저들이 벌여놓은 태평양전쟁에 더 많은 무기조달을 위해서 군수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마침 구로다광산이 중석광이므로 산업국에서도 깊은 주목을 돌리고있었다. 이럴 때 구로다가 가만히 앉아만 있을리가 없었다. 그래서 또 올라갔던 주인이었다.

구로다는 방안에 들어와 앉기도 바쁘게 감개무량한 목소리로 떠들었다.

《여보, 이번에 열린 <전국학생미술전람회>에서 수채화로 그린 아끼꼬의 <양어장풍경>이 1등을 했소! 그것두 하나밖에 없는 1등이요, 영? 1등! 헤헤헤.》

구로다는 엄지손가락을 발작적으로 내흔들며 승계승계한 이발을 드러내고 너털웃음을 쳤다.

《아유-우리 요 재간둥이... 작년엔 2등을 타구 금년엔 1등을 하구...》

요시에는 곁에 앉은 아끼꼬를 끌어안으며 야단스럽게 노적을 떨었다. 그러는대로 아끼꼬는 까딱까딱 웃으며 교태를 부리고 어리광을 떤다. 주인의 방안엔 웃음꽃이 가득 찼다. 구로다가 아끼꼬에게 가지고온 선물을 안겨주자 요시에게 또 《조리》를 짹짹 끝머 자기 방으로 나가더니 값진 비단옷을 들고와서 내놓았다.

《오늘 밤엔 연회를 차리자구요.》

《집안의 명예인데 차려두 크게 차려야지.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벌써 준비 다 해가지구 내려왔어.》

구로다는 커다란 나무함뚜껑을 열더니 그안에서 그림을 넣은 액자를 하나 꺼내놓았다. 《양어장풍경》이었다. 요시에는 그 액자를 쳐들어보며 빨간 혀를 내두른다.

《아이, 멋있어라, 색사진으로 찍어가지구 왔군요요!》

《그걸 <도꼬노마>에다 척 걸자구.》

구로다는 안락의자에 반쯤 기대누우며 담배를 피워물었다.

《요시에, 참말 우리 아끼꼬의 재능이 보통이 아

니야. 난 처음 전람회장에 들어갔을 때 기쁘기보다는 놀라기부터 했더랬소, 달포전에 내가 아끼꼬의 그림초안지들을 다 보구 떠났는데 출품된 작품은 아주 다르더라말이야. 그래 그사이 또다시 그린것이라고 생각했지.》

《온 참, 그날 당신은 취했던게군요.》

《취하다니... 그때 초안지엔 잉어 몇마리가 그저 달리구만 있었구 세군데에 그린 들장미는 피어만 있었어, 그렇지?》

구로다가 아끼꼬를 쳐다보자 딸은 새무룩해서 머리를 까딱한다.

《보라구, 현대 저 출품된 그림엔 굉장히 큰 한눈의 잉어가 물밖으로 뛰어올라 꽃잎을 받아물지 않는가? 또 들장미도 한군데에만 탐스럽게 그리구 꽃잎들을 물우로 날리구있거던. 다르지 않아? 헤헤헤, 좌우간 좋다, 좋아!》

구로다는 방안이 무더워 선풍기를 틀어놓더니 《어- 맥주!》 하고 창밖에 대고 소리쳤다.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예쁜이는 얼른 부엌에서 맥주병을 들고 주인의 방으로 들어갔다.

《애- 너두 좀 보라. 우리 아끼꼬가 전람회에서 1등한 그림이다.》

구로다는 흥이 나서 예쁜이에게 턱짓을 했다. 예쁜이는 맥주병을 원탁위에 놓을 생각도 못한채 먼저 눈길에 그림액자에 가서 딱 박혔다. 그 순간! 예쁜이는 못볼것이나 본듯이 와들 놀라며 저도모르게 《아-!》 하고 외마디비명을 질렀다. 그리고는 엉겁결에 손뭉을 탁 놓았다. 그바람에 맥주병이 다다미우에 툭 떨어져 데굴데굴 굴었다. 그러자 구로다는 두눈이 갑자기 휘말통해져 엉거주춤 일어서기까지 했다. 요시에게 낮이 새파랗게 질려 죽일듯이 예쁜이에게 달려들어 마구 때리고 꼬집어뜯었다.

《요 생귀신같은년, 지랄을 부릴테야? 양? 썩 게 나가!》

하지만 벌써 류다른 기미를 눈치챈 구로다가 얼른 요시에를 밀막았다.

《아아, 떠들지 마오.》 하고는 은근한 목소리로 예쁜이를 구슬렸다.

《너 왜 그러냐? 양? 이 그림을 보구 왜 그렇게두 놀라니?... 일없다, 그 맥주병을 여기 올려놓구 어서 말해봐라.》

요시에게 아끼꼬는 살기띤 눈알로 소녀를 쏘아본다. 예쁜이는 동그스름한 얼굴이 백랍처럼 해쓱해졌다.

이때 현관복도에서 청소를 하고있던 천호는 예쁜이가 주인의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요시에게 양칼진 목소리가 울린것으로 보아 어떤 상스럽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것을 예감했다. 아끼꼬가 전람회에서 1등을 했다고 웃고 떠들던 소리도 푹 멎었다. 그는

더 서있지 못하고 출입문이 열려있는 구로다의 방에 소리없이 들어섰다.

별안간 천호는 두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렇게 아련하게만 보이던 예쁜이가 입을 꼭 다물고 도담한 자세로 서있지 않는가! 표독해진 얼굴에서 눈빛이 날카로웠다. 무슨 일이 있었을가? 천호는 잠깐 있다가야 액자속의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저 《양어장풍경》이 예쁜의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버젓이 1등이라고 아끼꼬의 이름이 새겨져있다. 그래서 예쁜이가 이려는구나! 천덕꾸러기라 해서 업수이보고 아무 꺼리낌도 없이 예쁜이의 그림에다 제 이름을 달아 바꾸어서 올려보내게 틀림없지 않는가. 도와달라구 해서 그려는 주었지만 이렇게까지 철면피한 짓을 할줄을 차마 몰랐다. 천호는 침을 뱉고싶었다.

《무슨 일인지 어서 말하란데두.》

구로다도 이미 아끼꼬의 초안그림과 출품한 작품이 다르다는것을 생각하고있던터이라 동생에게 바싹 다가들었다. 예쁜이는 아래입술을 꼭 깨물고 눈 한번 까딱하지 않았다. 말을 했다가는 어떤 불행을 당할지도 모를것이며 그렇다고 인제는 또 말을 안할수도 없게 되었다.

천호는 동생에게 사연을 까밝히라고 눈짓을 했다. 여지없이 짓궂히고 모욕당한 존엄을 그대로 가슴속에 묻어두기에는 너무도 강렬하게 자신이 자기를 용납해주지 않았던것이다. 천호는 결코 민족차별의 살인적인 질투심이 무서워서 동생의 재능을 묵묵히 왜놈의 희생물로 제공할수는 없다고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오빠의 마음을 읽은듯 이윽고 예쁜이의 목소리가 야무지게 울렸다.

《이 그림은 제가 그린것이예요!》

《요 양큼한년 빛이 어째? 네가 그렸어? 양?》

요시에게 또 혀끝에서 자개바람이 일게 악담을 퍼부으며 달려드는것을 구로다가 움찔 못하게 놀려놓았다.

《소란피우지 마오...》

그리고나서 구로다는 아끼꼬더러 예쁜이에게 《양어장풍경》 초안지들도 있겠는데 가서 그걸 다 뒤져오라고 일렀다.

잠시후 아끼꼬는 천호네 방 귀퉁속에서 예쁜이의 그림몽텅이들을 몽땅 들고 달려왔다. 그것을 보니 천호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다. 구로다는 오누이를 슬쩍 바라보며 능청스럽게 웃기까지 했다.

《겁나하지들 말아. 마음놓구 일들이나 잘 해라.》

(어느때같으면 채찍질을 하겠는데 오늘은 웬일인가?)

천호는 구로다의 《너그러움》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되어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오늘이가 나가버리자 구로다의 불편이 무섭게 푸들푸들 떨렸다. 방안에 피었던 웃음꽃은 떼서리를 만난듯 콩콩 얼어붙었다. 주인의 눈엔 독기가 어렸다.

《요시에, 이게 무슨 일이요, 엉?》

왜년은 할수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아끼꼬가 서로 다른 《양어장풍경》 두장을 가지고와서 보였을 때 예쁜이의 재능이 죽이고싶도록 미웠으나 종당에는 딸의 그림을 예쁜이의것으로 바꿔서 올려보냈던것이다.

《학교공부도 적지않게 한 사람이 왜 그렇게 어리석어? 응? 반도인의 재능을 끄당겨 우리것으로 만들어보자구? 천만에… 그런 짝은 애초에 무질러버려야 한다는걸 왜 모르는가?》

《난 고년을 그저 써먹자구만 생각하구…》

《흥, 큰일 날번 했어… 언제부턴 꿈쩍 무슨 말이 못나가도록 하구 이 일을 아주 조용히 처리해야겠소. 그래서 내 자꾸 떠들지 말라구 한거야.》

사실 구로다는 예쁜이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도 아끼꼬의 무서운 적수로 갑자기 나섰는지 이상스러웠고 그것이 목에 걸린 가시처럼 내려가지 않아 악이 발쳤다. 손찌검을 하는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만한 재능을 가지고있는가를 발가내야 한다. 그리하여 구로다와 요시에는 예쁜이의 그림들과 아끼꼬의 멋있는 화첩들을 펴놓고 학년과정별로 대조해보기 시작했다.

아니나다를가 두 소녀는 적수로서 등장했다. 그들의 예지는 서로 만만치 않았다. 5학년말기부터 예쁜이의 그림에서는 류다른 필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붓질을 적게 하면서도 현상의 본질들을 극명하게 표현해내는 기발한 수법이였다.

소박하게 생긴 녀인의 초상, 장작패는 천호, 물기는 아낙네의 모습 등 그림마다에서 인물들이 살아숨쉬고있었다.

(이건 무서운 재간이다.)

예쁜이의 《양어장풍경》 초안을 들여다보던 구로다는 주먹으로 원탁을 팡 쳤다.

《요시에, 우리는 수년동안 사꾸라꽃을 가꾼게 아니라 독초를 길렀어!》

요시에도 시기와 질투심으로 하여 이발을 악물었다.

《고 찰거마리같은년이 아끼꼬의 시중을 들면서 선생의 훈시를 말짱 익혔어요. 저 쓴 열매 이제 당장 그저…》

《사려깊은자는 서둘지 않는 법이야! … 요시에, 여기 인물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전부 천한 일하는 사람들인데 이걸 벌써 경향이 좋지 않다는걸 말하거던.》

《정말 등잔밑이 너무 어두웠어요.》

《옳소, 그년이 수년동안 보고 익힌 <부사산>은 한장도 그리지 않았는데 어찌다 본 <금강산>은 짝

어낸것처럼 그렸거던.》

《고따위 민족의 피는 무서운 전염병과 같아요.》

《옳은 말이야… 그럼에는 전염병과 같은 무서운 녀이 표현되고있소.》

구로다의 두눈에 잔인한 빛발이 스쳐지나갔다. 그는 조선사람들이 리성을 가지고 사는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단정했다. 뼈속까지 국수주의에 물젖은 구로다여서 조선민족은 노예이기때문에 그들의 녀을 사정없이 짓밟고 앗아내어 생각할 자유마저 주지 말아야 한다고 확신하고있었다.

(하지만 조선민족은 외유내강한 종족이다.)

구로다는 침통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요시에, 우리가 반세기동안이나 반도인들의 리성우에 몽매를 들썩우고있는데도 여러 방면에서 놀라운 수재들이 배출되고있소. 매우 신경에 거슬리는 일이야.》

《여보, 고년을 그저 각 죽여버렸으면…》

《음- 세상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고통이 있소. 물론 반도의 종년을 미술가가 되도록 내버려둘순 없지. 고년을 병신에 머저리로 만들어놔야 하우. 마침 일본 고바야시광산에서 한사람이 와있는데 잘했어.》

년놈이 이런 계락을 꾸미고있을 때 천호는 자기 방에서 길떠날 차비를 서두르고있었다. 이곳 시내로부터 30여리 떨어진 월산동철도공사판을 찾아갈 결심이였다. 그동안 자꾸 수소문해본 결과 판석이가 며칠전부터 이 공사판에 와서 일하고있다는 확실한 소식을 전해들었던것이다. 주인이 듣기 좋게 말은 했지만 장차 어떤 무서운 보복을 하겠는지 가늠할수 없는 일이여서 그저 불안한 생각뿐이였다. 만약 금년중으로 아버지가 못나온다면? 눈앞이 캄캄했다. 그리하여 천호는 판석이를 찾아가 아버지 소식부터 알아야 하겠다고 결심했던것이다. 예쁜이는 늦지 말고 오라고 몇번이나 당부했다.

그가 철도공사판이 내려다보이는 고개마루에 올라섰을 때는 저녁녘이였다. 그런데 천호는 예상외로 이 고개길로 마주 올라오는 키가 구척같은 판석이와 마주치게 되였다.

《아저씨!-》

《아니? 네 천호가 아니냐!》

천호는 와락 판석의 품에 안겨 설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를 만난듯 기뻐으나 왜 그런지 자꾸 눈물만 이 앞섰다.

《너희들은 그래도 살아있구나! 인젠 몰라보게 컸구만… 예쁜이도 잘 있겠지?》

《예, 우리 아버지 안오나요?》

《가만- 저기 잔디판에 좀 앉자꾸나.》

그들은 가지런히 마주앉았다.

《내 지금 너희들을 찾아가던길이었대. 오긴 두달 전에 왔지만 곁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에야 떠났구나.》

《우리 아버지 같이 못왔나요?》

《천호야, 놀라진 말아, 아버지 그만…》

《예?!…》

별안간 천호는 앞산이 와르르 무너져내리는 듯한 환각을 느꼈다. 운명의 동아줄이 끊어져나가는 것만 같아 눈앞이 새까맣았다.

《천호야,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 보따리를 풀어보니 이것뿐이더라. 예쁜이 줘라.》

판석이가 떨리는 손으로 내밀어주는 것은 수채화 한판! 천호는 그것을 받아들며 땅이 꺼지게 통곡을 터뜨렸다.

《아버지-!》

천호의 두볼로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내린다.

《천호야, 우린 일본엘 죽으러 갔댔다. 거기 고바야시광주님이 폐경했던 중석을 다시 캐자구 조선에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고굴에 들어가는 <선발대>란걸 만들었더구나. 알고보니 구로다님이 목돈을 받아먹고는 우릴 그곳에다 팔아먹지 않았겠니… 그렇게 끌려온 <선발대>가 모두 항거해서자 놈들은 총칼로 우릴 고굴에 들이몰았는데 그만 무섭게 봉락이 돼서 너의 아버지와 술한 사람들이 죽었구난 몇몇 사람과 같이 겨우 죽다가 살아나왔어. 두달 전에야 간신히 그곳에서 도망쳐왔다.》

천호는 불덩어리같이 이글거리는 눈길로 먼 허공을 쏘아보고있었다.

이윽고 천호의 이야기를 듣고 난 판석은 격노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죽일놈들, 가자, 예쁜이를 빼오자!》

두사람은 구로다네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얼마후 시내어귀에 다달은 그들이 역전쪽으로 나가는 길목에 이르렀을 때였다. 한 너인이 소리없이 눈물을 흘리고 서있었다. 천호는 무뎠던 식모아주머니임을 대뜸 알아보았다.

《빨리 정거장으로 나가봐요. 예쁜이가 일본으로 팔리워가있어요!》

《뭐라구요?!…》

《아까 예쁜이가 나보고 주인이 웃으면서 <금강산>그림을 도로 주더니 자기더러 닷새동안 금강산에 가서 그림을 더 잘 그려오란다구 하지 않겠수. 그런데 예쁜이 데리구 금강산에 간다는 낯선 왜놈이 주인놈하구 쑥덕거리는 소릴 내가 엿들었어요. 어서 나가봐요.》

너인은 안절부절 어쩔바를 몰랐다. 하나 천호는 사랑하는 예쁜이가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은 그 광산으로 또 팔리워간다는 것까지는 알리가 없었다.

바람처럼 역전으로 달려간 천호와 판석이가 구내로 나갔을 때였다. 방금 출발을 알리는 남행열차가 목메여 흐느끼듯 기적을 울리었다.

《오빠-》

저 앞쪽 승강대우에서 왜놈에게 손목을 잡힌 예쁜이가 먼저 천호를 보고 소리쳐불렀다. 그는 죽어

라 뛰어갔다.

《예쁜아- 넌 일본에 팔리워가있어- 그림 그리러 금강산에 가는게 아니야!…》

천호가 쫓아가며 다급하게 웨치자 예쁜이의 한쪽 손에 들려있던 자그마한 종이마리가 승강대아래로 떨어졌다. 그 다음 소녀는 무섭게 몸부림쳤다. 자기를 붙잡고 선 놈뎡이를 암팡지게 떠박지른다. 막 뛰여내리자고 덤빈다. 그놈은 동생을 무지하게 나꾸렸다. 차는 떠나기 시작했다. 힘에 밀린 소녀는 몸을 비틀더니 그놈의 손등을 사정없이 물어뜯는다. 왜놈의 짜진 비명소리- 탕! 출입문이 굳게 닫혀졌다. 뒤미처 판석의 서리찬 목소리가 울리었다.

《천호, 예쁜이걱정 말구 기다려라!》

돌아보니 어느새 판석이가 마지막승강대에 번개처럼 뛰어올랐다.

기차를 잡아세울듯이 뒤쫓던 천호는 레루에 걸쳐여 폭 쓰러졌다. 호주머니에서 아버지가 보내준 수채화판이 떨어지며 침목우에 찌르르 흩어져 덩굴었다.

검푸른 하늘에는 별무리가 수없이 깔리었다. 하늘땅을 메운 캄캄한 장막속에서도 오히려 그 무슨 희망에 넘친 눈동자인양 반짝이며 이 밤의 어둠을 비웃는듯 찬란하게 빛나는 별빛들! 그렇다. 예쁜이는 저 하늘의 별들처럼 슬기로운 빛발이 되어 이 암흑의 세상을 이겨내리라!

벌떡 일어난 천호는 예쁜이가 떨구고 간 종이생각이 나서 그리로 뛰어가 펼쳐들었다. 그것은 색칠 못한 동생의 그림 《금강산》이 아닌가! 천호는 그 종이를 접어 호주머니에 넣고는 두주먹을 부르친 채 구로다네 집을 향해 맹렬한 기세로 달리기 시작했다. 주인집 안마당가에 뛰여든 그는 손에 잡히는 대로 몽둥이 하나를 거머쥐었다.

(이 악독한 원썬놈, 네놈의 숨통이 붙어있을줄 아느냐!)

구로다놈과 사생결단을 각오한 천호의 두눈에서 린광같은 불길기 펄펄 타올랐다.

…국가미술전람회장 창가에 서서 여기까지 생각을 더듬어온 ㅸ광산 강천호지배인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땐 내가 철이 없었지. 힘을 합해서 원썬들과 싸워야 이간다는걸 몰랐겠거던… 하긴 감방에 붙잡혀가서야 그걸 알았으니까…)

이때 저쪽 출입문가에서 한 중년부인이 웃음어린 얼굴로 사뿐사뿐 걸어왔다.

《오빠, 아직도 여기 계시요?》

《예쁜이, 난 너의 이 <금강산>을 보면서 우리의 기막혔던 지난날을 회고해보았어.》

《저두 그러시리라구 생각했어요… 인젠 집으루 가지자요.》

오늘이가 전람회장을 나섰을 때는 수도의 하늘에 장미빛 저녁노을이 곱게 비기었다.

금별이 빛난다

-조선혁명박물관에 있는 김종태영웅의 금별메달을 두고-

백의선

통일의 아침 축포터지는 광장으로
새옷 입고 어버이수령님 뵈우려 갈 때
함께 가고싶구나, 저 금별을 단 영웅과
내 마음
영웅이 가슴에 없어보지 못한
금별을 쓰다듬는다

그대 피흘리던 캄캄한 지하감방속
한줄기 빛이 그리워 가슴타던 나날에도
이고 자란 조국의 푸른 하늘
마지막으로 바라보던 그 순간에도
영웅은 오고싶었다
어버이수령님 계신 평양
목란꽃 만발한 이 강산에

오고싶었다
첫땀이 올 때까지 흰눈을 밟으며
아지트의 창문을 지켜주던 정다운 안해와 함께
투쟁의 랑만에 찼던 통일혁명당창건의 그 새벽
어깨걸고 노을속을 거닐던 동지들과 함께

영웅은 지금 어디에 있는것인가
위대한 수령님을 통일의 광장에 모시자고
비내리는 남해부두, 눈썹인 태백의 산발을 넘어
남녘땅 천만사람의 앞장에 선 그대였건만
어찌하여 이 자리엔, 아, 그대가 없단말인가

혁명을 위하여선 하루에 천리길도 걸더니
영광의 금별이 기다리는 이 자리론
선뜻 가슴펴고 달려오지 않았구나

영웅이여, 통일의 해돋이를 부르며 나래치던
아, 혁명의 불새여
그대 걸은 충성의 그 자욱자욱을 이어
무수한 통일혁명당원들이 걸어가고있거니
그대의 금별을
이 마음에도 지니고 간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영원한 금별의 생애를
천만심장이 받아안고 간다

못잊을 그리움에 너를 부른다

김영근

이 가슴에 아픈 마음 애써 달래며
못잊을 그리움에 너를 새겨본다
소녀야
한장의 사진속에 울고선 원한의 모습아,

울분이 굵이치는 영산강기슭
저 샅김매는 밭이랑 한끝에
굽힌 허리 못퍼는 어머니를 지켜보며
우는 아기 등에 업고 서있는 소녀,
아기를 달래며 어머니를 기다리며
해저무는 언덕우에 울고 섰구나

-고운 꽃 꺾어주마, 울지를 말아
풀매미를 잡아주마, 울지를 말아...
배고파서 우는 아기 설움으로 달래는
너의 애타는 그 목소리
이 가슴에 울리며 피가 끓는다!...

아, 원한 많던 그 세월에
나도 밭고랑에 태를 뚫은 몸,
너처럼 작은 등에 나를 업어키우다
열두살에 빗값으로 팔려간 누이-

눈물속에 끌려간 설움의 언덕길은
아직도 마음속에 젖어있고
고역에 지쳐 숨지은 누이의 생각
아픈 이 가슴에 맺혀있는데
소녀야, 잊지 못할 누이의 모습으로
오늘은 내앞에 네가 서있구나.

꽃피는 이 땅엔 노래소리 넘치고
내 프락프르 몰아 푸른 벌을 다룬건만
풍년나락 가꾸는 어머니를 찾아서
꽃수레 애기차가 달려나오고

달같은 애기들이 반겨웃건만
 소녀야
 내 피눈물속에 헤쳐온 원한의 그 들길우에
 여원 등에 동생 업고 울고섰느냐?

머슴살이 피땀으로 이랑을 적시며
 지주놈 눈총에 쫓기는 어머니
 석자 너의 띠개를 풀어주지 못하는
 설움에 찬 그 원한을 분노로 새겨안는다

아, 수난의 그 세월에 누이 잃은 아픔은
 참아 한가슴에 달래일수 있었건만

갈라진 조국의 절반땅을 두고
 몸부림치는 이 괴로움속에
 소녀야 너는 또
 아픈 상처로 이렇게 서있어야 하느냐?!

띠개를 풀어라 소녀야
 너를 불러 락원의 봄꽃을 피우고
 너를 불러 새집의 큰문을 열며
 띠개를 풀어 어머니의 단젖을 줄
 크나큰 사랑의 손길이 여기에 있다
 아, 사회주의 이 강산
 어버이수령님의 넓으신 한품에!...

해가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김응하

해가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가슴속에 묻어둘수 없는
 쓰라림이, 분노가 더 아프게 머리를 든다
 아, 갈라진 조국의 아픔아

만풍년의 로적가리를 구름우에 높이 쌓고
 행복의 창문을 더 밝게 닦을 때마다
 문득 버릇처럼 멀리 바라보는
 남녘의 하늘아, 피가 흐르는 땅아

부르면 지척에서 화답하고
 팔을 내밀면 손에 닿는
 한강아, 남해가의 설레는 대숲아
 세월이 흐를수록 너는 멀어져가느냐

나루배로 잠깐 나들이를 갔다오고
 기차로도 몇시간이면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낮익은 그 고장, 그 땅이
 이제는 그리도 몰라보게 변했다말인가
 해가 바뀔수록 질어만가는
 악취 풍기는 양풍과 왜색에 얼룩이져-

헤어져 서른해가 넘어
 전라도가 고향인 나의 친구는
 이제는 눈을 감고 오래 생각해야
 동생의 그 모습이 떠오른다며
 눈물이 글썽해지군한다

아,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행복의 요람에서 단꿈을 꾸는 내 어린것과 동갑인
 서울의 햇빛은 아이들

이 밤도 남의 집 처마밑에서 찬비를 굶고있는데
 파쑈의 칼부림밑에 형제들이 피를 흘리고있는데

나는 그들을 부르며 가슴만 쳐야 하느냐
 어버이수령님의 해빛이 밝은 이 땅에서
 넘치는 행복을 혼자 누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언제까지 안고있어야 하느냐

아니다, 오, 아니다
 피가 흐르는 이 고통을 안고
 세월이여 너는 너무도 많이 흘렸다
 오는 날과 날이 분별의 아픔만을 가져온다면
 해야 뜨지 말라, 별이여 웃지 말라

미제와 박정희피뢰가 빚어내는
 분별의 욕된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남녘의 형제들아
 부르며 화답하자 부르며 화답하자
 싸움의 길에서 손을 잡자

한 피줄을 이은 뜨거운 마음들이
 해가 바뀔수록 더 간절해지는
 그리운 마음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실
 그날에 모이고 그날에 함께 살아

흐르는 세월, 흐르는 해와 달로도
 가를수 없고 멀게 할수 없는 하나의 민족이
 삼천리 이 강토에 살고있다
 해가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 가까와지는
 형제로!

조국은 멀고 멀어도

김대경

맵짠 바람만이 휘몰아치던
일본의 북변 탄광마을에도
4월의 봄은 찾아왔어라
하늘에는 종달새 우짖으며 날아돌고
실안개 드리운 산과 들에
정향꽃 향기 목메일듯 풍겨오고

양지바른 우리 학교 꽃밭에
만경봉의 봄향기 가득찼구나
붉게 핀 진달래, 철쭉꽃은
어버이수령님 보내주신 사랑의 꽃송이
송이마다 떨기떨기 웃음짓누나

아, 위대한 수령님 보내주신 교육원조비로
탄재만이 홀날리던 황량한 폐허우에
오늘은 새 교사가 추녀높이 솟아
나들이 새옷을 곱게 차려입고
개교식 꽃대문으로 들어서는 아이들

하루에도 그 몇번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더니
작은집 단간방에서도 정성담아 가꾼
청청한 소나무 화분을
어버이수령님 초상화앞에 드리는 할아버지도
새 교사 기둥을 부여안고
방울방울 눈물 흘리는 아낙네들도
새로 입학하는 우리의 꽃봉오리들도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며
산골짜기가 터질듯 부르는 만세소리

버림받던 이역땅 북변의 외진곳에
해빛은 따사로이 비쳐들어
하늘은 유난히도 푸르렀는데
《김일성장군의 노래》소리가
하늘땅을 뒤흔들며 울려퍼지누나

예가 진정 이역땅이란말인가
수천척 지하막장에서 생매장당하면서도
고국산천 그리워 눈을 못감던 고장이란말인가
이곳에 새 교사만이 아니라
사회주의조국의 따사로운 품이
영원한 사랑으로 펼쳐지고
반짝이는 교실유리창너머로
조국의 찬란한 해빛이 비쳐드누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만경대의 흙과 삼지연의 맑은 물엔
조국과 다리를 놓은듯
령뿜한 칠색무지개 곱게 비끼고
알른알른 윤기도는 책상에선
어버이수령님의 전사로 씩씩하게 자라는
희망찬 어린이들의 얼굴이 마주 웃누나

웃음속에
흐르는 눈물이어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해외공민의 영예를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
그 사랑에 목이 메고 가슴이 불타올라
어버이수령님 한분만을 모시고 살려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의 마음들이
학교마당에 차넘치는 이 봄날

아, 이역땅 버림받은
북변의 한끝 탄광마을에도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꽃들은 붉고
따사로운 해빛을 안은 탄광마을사람들
환희와 행복에 들끓고 흥성거리니

조국은 바다건너 멀고 멀어도
어버이수령님 품에 안겨사는
여기도 조국땅 한복판인것 같구나
조국의 행복한 시간속에 우리 살고있구나

동화창작에서 환상의 진실성문제

김우경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72년 1월 24일에 하신 강령적교시를 심장으로 받든 우리 작가들은 아동문학의 주제와 양식을 다양하게 확대하면서 아동들에 대한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이바지할 훌륭한 작품들을 창작하였는바 아동문학의 기본양식중의 하나인 동화분야에서도 보람찬 전진이 있었다.

최근에 발표된 동화 《떠돌아다니던 물음표》(허원길)와 동화 《되돌아온 오리》(배풍)를 비롯하여 사상에술적으로 일정한 성과를 거둔 작품들이 창작되었을뿐만아니라 동화창작의 량적장성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시대 아동들의 높은 지향과 미학적요구에 비해볼 때 극히 초보적인 성과에 불과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1972년 1월 24일 교시에서 아동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동화와 우화를 창작할데 대하여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아동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작품을 창작한다는것은 아이들이 흥미있게 읽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작품에서의 흥미란 그 작품이 독자들에게 어느 정도로 읽히우는가 하는 문제인바 이는 진실성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의도 없으며 또 불가능한 일이다.

작품에서의 진실이란 읽고난다음 독자들의 공감을 어느 정도로 불러일으키는가 하는 문제이다.

동시에 그것은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고있는가 하는 형상성문제로 될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로 많은것을 론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동화창작에서의 환상의 진실성 문제에 대한 몇가지 소견만을 말하려 한다.

동화는 다른 모든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생활적진실로써 독자들을 교양한다.

그러나 그것은 동화가 펴놓은 허구적인 환상의 밑바닥에 강한 생활적진실이 깔려있어야만 가능하다. 성공적인 동화는 레외없이 모두가 현실에 대한 예술적재현으로만 가능하다.

이런 동화적환상은 우리의 어린독자들의 시야를 넓혀주며 미래에 대한 꿈을 길러주며 탐구욕을 적극 조장시켜준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을 매혹시키는 동화들엔 어린이들의 생활을 지도하고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확대시켜주는 동화고유의 환상, 동화적

인 날개가 있는것이다.

어린이들은 흥미있는 동화들을 읽는과정에서 상상하는 힘과 상상하는 힘을 얻게 된다. 그렇기때문에 동화가 주는 교양적힘은 작품에 도입되는 환상의 계기와 그 환상의 전개, 그리고 환상처리의 진실성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진실성을 안받침한 환상-바로 이것이 동화를 더 많이, 더 좋게 써야 할 동화작가들이 해결할 문제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동화에서의 환상은 물론 현실생활 그대로가 아니며 이것은 작가의 허구에 기초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어떤 가공적이거나 허황한것이 아니라 생활을 안받침하고 이루어지는것이다.

여기서 환상에 대한 범주를 반드시 훨훨 날아다니고 조화를 부려 기상천외한 일이 생기고 방망이를 한번 휘두르면 희망하는것이 다 쏟아져나오는 그런것만이 아니라 의인화까지도 환상으로 넣고 론하려 한다.

우리 동화작품들에 도입되고있는 이런 환상은 주로 생활에 기초를 둔 절절한 념원, 열렬한 희망과 기대, 주인공의 감정의 축적과 그 폭발 등으로 이루어지는 시적인 환상과 과학적예견 또는 실생활을 종합집약하는데서 얻어지는 상징화, 그리고 동식물과 물체에 인격을 부여한 의인화 등에 기초를 두고 전개되며 처리해결된다.

즉 옛이야기와 이를 개작발전시킨 동화들은 당시 인민들의 념원을 환상에 도입하고있으며 오늘 우리 당 정책이 구현되는 현실생활을 반영한 작품들과 과학적환상을 동화화한 작품들은 우리 인민들의 념원과 과학적인 예견성에서 환상을 찾고있으며 동식물과 무생물체에 활력을 부여하여 의인화한 동화들에서는 상징적인 수법으로 흔히 환상을 전개하며 처리하고있다.

중편동화 《도끼장군》(리원우)에서 도끼장군이 들, 냇, 여덟으로 많아지는 환상은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사랑하는 조국땅을 지켜내려는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과 희망에 기초를 두고있으며 동화 《떠돌아다니던 물음표》에서는 문법에서 쓰는 부호인 물음표(?)와 감탄표(!)를 인격화하고 환상을 펼쳐 오늘 우리 시대의 위대한 변혁과 인간들의 정신을 상징적인 수법으로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또한 어떤 작품들에서는 오늘 현실을 반영하면서 그 환상의 계기를 시적인데서 찾고있다.

가령 영웅들의 녀이 깃들여있는 조국땅-수려한 산밭을 바라보는 시인의 눈은 나무의 설레임소리,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소리에서 가릴처절했던 전화의 나날 인민군용사들이 부르던 노래소리들, 그들의 웨침소리를 가늠해 들을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동화작가는 이런 시적인 계기로부터 영웅고지에 뿌리를 박고 자라난 나무들과 메꽃들과 바위들이 부르는 노래소리와 미제를 절규하는 웨침소리를 듣고 볼뿐아니라 그속에 들어가 직접 그 나무들과 그 메꽃들과 그 바위를 부둥켜안고 말도 하고 주인공과 함께 행동하고 살고있으며 환상을 발전시켜나가고있다.

또한 동화작가는 하늘높이 줄줄이 뻗어간 송전탑의 고압선을 보고 시인과 마찬가지로 어린 배전반공처녀가 하늘중천에 커다란 가야금을 걸어놓고 시대의 노래를 탄주하는것으로 느끼면서도 한걸음 더 나아가서 환상의 나래를 펼쳐야 하며 거기에서 동화적인 형상을 창조해야 한다.

그 어떤 측면에서 환상을 도입하던간에 동화에 취급되는 환상은 반드시 필연적인 계기로서 전개되어야 하며 또 해결처리해야 한다.

아이들은 주위세계 즉 자연과 사회를 혼자서 이해하고 평가하고 추리해내는 능력이 부족하며 현실세계에 대한 견해도 전일적으로 형성되어있지 못하기때문에 환상의 계기문제는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만약 환상의 계기문제를 잘 설정해주지 못하고 억지가 있고 무리가 생기고 비진실하게 되면 그로부터 작품의 사상에술적질이 낮아지는것은 물론 세계관의 골격을 세워나가는 단계에 있는 우리의 어린 독자들은 진실하지 못한 환상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될것이며 그로부터 혁명적세계관형성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케 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교육사업과 문화예술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것을 자기의 기본과업으로 내세워야 하며 그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교육부문일군들은 교육교양의 모든내용과 방법이 학생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 지향되도록 하여야 하며 작가, 예술인들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할 혁명적인 문화예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필봉을 들어야 할것입니다.》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 동화작품이 가지는 의의는 자못 크다.

동화작품의 교양적의의는 그 사상적내용과 함께 동화에 도입되는 의인화를 포함한 환상의 진실성여부에도 많이 관계된다.

동화 《떠돌아다니던 물음표》가 아이들에게 애독되고 독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는것은 바로 진실성문제와 관련된다.

생활의 변화에 대하여 언제나 의문과 의혹에 빠져 동요하는 인물로 의인화된 주인공물음표의 진실한 형상은 사회주의대건설현실을 동화적으로 보여주면서 환상을 진실한 생활적바탕을 깔고 전개해나가고있다.

혈떡구배와 벌목장, 그리고 감탄표를 밀어내고 제가 들어가려다가 망신을 당하는 주인공 물음표의 형상은 얼마나 진실하고 생동하게 안겨오는가.

이것은 작가가 현실을 동화적눈으로 깊이있게 관찰하고 탐구한 결과이다.

동화에서 아무런 생활적계기도 없이 문득 환상의 세계가 펼쳐지는 경우가 없지 않다.

실험실의 현미경앞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먼 앞날의 미래로 날아가는 이런 기초가 없는 환상은 독자들을 아연케 하며 아무리 환상을 잘 전개해나갔다고 공감할 줄수 없다.

우리는 대담하게 틀을 마사버리고 무한한 공간과 무제한한 시간속에서 환상이 나래치게 해야 한다.

동화에서의 환상은 하나의 형상수단으로만이 아니라 주제와 사상을 천명하는 내용과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자기의 형상적효과를 충분히 나타낼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환상이라고 말하는 기상천외한 일, 날아다니는 마술과 같은 힘 등 모든 허구와 과장들이 주제를 해명하는데 이바지되는것일 때 더욱 진실한것으로 되는것이다.

《도끼장군》에서의 환상장면과 《행복의 열쇠》(강효순)에서의 환상장면이 참으로 진실하게 느껴지게 되는것은 이 환상들이 작품의 주제를 해명하는데 이바지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 환상은 다 철학적인 깊이와 내용이 담겨져있다.

동화에서의 환상은 맹목적이 아니고 반드시 의도적이며 그 환상의 밑바닥에는 철학적인 생활의 교훈이라든가 생활의 진리가 넘쳐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환상은 의인화로만 씌여진 작품을 내놓고는 많은 경우 시적인 환상에 기초를 두고있다. 의인화로만 씌여진 동화인 경우에도 그의 진실성여부와 함께 다른 형태의 문학작품과 마찬가지로 심오한 철학성을 요구한다.

동화에서의 환상도입은 또한 계기의 필연적제시와 함께 인물들의 성격제시도 요구한다.

물론 소설에서처럼 세밀한 초상묘사와 정황묘사가 동화에서는 제기되지 않는다.

그것은 동화에서는 환상적없음세에 의거하면서 내용을 발전시키는것이기때문에 그처럼 성격규정을 위한 묘사가 특별히 중요하게 제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화에서의 인물들의 성격은 환상적정황

의 선택, 사건제시와 발전과정을 통하여 제시되는 것이다.

작가는 반드시 인물들의 성격을 고려에 넣어야 한다.

우리 동화들에는 동물을 의인화한 작품들이 많다. 동물을 생활에 인입한다는 그 자체는 선택에서 벌써 성격화를 의미한다. (물체를 의인화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동물의 습성에 대한 고려는 주어진 환상 세계를 더욱 실감있게 만든다. 그러면서 이 습성들은 습성제시에 머무는것이 아니라 인간성격의 어떤 측면을 보여주는데로 나아가게 하는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동화들이 류사성을 띠는 원인은 바로 동물들의 습성만을 제시하고 그 습성을 통하여 인간성격의 어떤 측면들을 보여주지 못한데 있다.

동화 《떠돌아다니던 물음표》에서 주인공 물음표는 보수적이면서 경망하고 자존심이 강한 성격의 체현자로서 생동하게 그려지고있기때문에 독자들의 인상에 오래동안 남아있게 된다.

동화에서의 환상전개과정은 흥미를 주는 문제와 절실히 관련된다.

동화 《성적증에서 쫓겨난 점수들》(김재원)에서 낮은 점수들의 형상을 그리는데서 엉뚱하면서도 환상을 진실하게 무리없이 끌고나감으로써 흥미를 주고있다.

환상은 제시만하거나 비유에만 그치지 말고 주어진 조건들을 다 리용하여 환상을 생활에 철저히 밀착시키면서 주제해명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발전시켜나아가야 한다.

또한 동화에서 환상이 메마르지 않고 딱딱하지 않기 위해서는 인식적인 세부들이 주제적교양성과 배합되는 한도에서 많이 삽입될수록 좋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우수한 동화들은 그 어떤 모토든지 사회에 대한 지식은 물론 자연과 과학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주고있다. 즉 식물과 동물, 자연현상과 자동화세계 등에 대한 지식을 주고있는데 이러한 인식적측면들에 대한 고려는 동화를 흥미있게, 환상적내용을 풍부하게 해주고있다.

동화 《개미네 꿀목장》(차용구)에서 좋은 측면은 이러한 인식적인 측면의 풍부성이 교양적인것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유기적으로 결합시킨것이다. 이것은 작가의 생활에 대한 깊은 리해로부터 우려나오는것이다.

이와 같이 동화를 진실한것으로, 흥미있는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환상처리에서의 계기성, 성격, 환상의 발전문제들을 세심하고 구체적인 탐구를 거쳐 심중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동화작가들은 아동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더욱 생활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한다. 또한 생활속에 잠기는것으로만 그칠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동화적인 눈이 준비되어있어야 한다.

생활에서 동화의 종자를 찾기 위해서는 작가의 정치실무적자질이 준비되어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동화적눈을 가지고 우선 생활을 관찰해야 하며 미학적충동을 느껴야 한다. 그리하여 그 충동을 심화하는 내부체험과정을 거쳐야 동화적환상이 발현될것이다.

동화작품의 종자는 환상의 나래를 활짝 펼수 있는 생활적인 계기가 들어있어야 한다.

가령 우리는 생활속에서 차디찬 얼음도 뜨겁게 느끼는 경우가 있다.

심심산골 깊은 산간오지에 사는 자그마한 림산마을의 몇몇 사립을 위해서 우리의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는 먼바다에서 잡아온 물고기를 랭동배와 랭동기차, 랭동자동차 그리고 랭동비행기에 실어보낸다. 이때 랭동한 물고기를 받아안은 가슴들이 그것을 뜨거운 얼음으로 느끼지 않을수 있겠는가! 수천수만리 먼먼길을 뜨거운 사랑을 안고 달려온 그 얼음들은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뜨거움을 불어넣어주는 것이다.

《뜨거운 얼음》-바로 여기에는 얼음세상과 얼음 《병정》들의 관계로써 환상을 펼칠수 있는 생활적 계기가 들어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찬양하는 동화작품의 사상적알맹이가 있다. 이런 생활적인 계기가 들어있는 동화작품의 종자를 우리는 주위생활에서 얼마든지 찾을수 있다.

동화 《떠돌아다니던 물음표》가 일정한 성과를 거둘수 있는것은 작가가 들끓는 현실을 동화적인 눈으로 보았으며 그 과정에 종자를 바로잡고 그 종자를 자래우고 형상의 꽃을 피우는 과정, 즉 내부체험과정을 거쳐 환상의 나래를 펼기때문이다.

그러나 동화에 구만리 창공을 날으는것 같은 환상의 날개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러한 환상들을 아무 원칙도 없이 생각나는데로 만들어서는 안될것이다.

환상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계급적립장을 견지하면서 환상의 날개를 펴야 한다.

그러면서 그 환상들이 우리 시대 어린이들의 생활과 사상을 반영하는, 그러면서 그들의 공상과 환상을 자극하고 확대시켜주는 역할을 노는 그러한 새로운 환상으로 엮어졌을 때 우리 어린 독자들은 그 동화를 흥미있게 읽을것이며 어른들도 읽을것이다.

우리 아동문학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문예사상과 독창적인 문예방침을 높이 받들고 혁명적인 동화창작에 정진하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관철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싸우는 전사들이 우리 문학의 주인공이다

《조선문학》에서 진행하는 지상토론들을 읽으면서 나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한 우리 시대의 주인공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보게 되었다.

나는 여기에 대하여 자기가 실지 보고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지상토론 연단에 참가하고자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지금 온 나라가 창조적정열로 들끓고있으며 이르는곳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작가, 예술인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이러한 벽찬 현실과 인민들의 영웅적투쟁을 형상한 작품을 많이 창작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까.》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온갖 희생성을 다 발휘하며 영웅적으로 투쟁한 한 사로청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주체형의 주인공은 어떠한 인간으로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 의견을 말하려고 한다.

스무살이였던 사로청원 전경수동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사회주의대건설에서 희생성을 발휘하고있는 사로청원을 주인공으로 할 때 참말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전형적특성을 생동하게 말할수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1968년 8월에 신도 갈밭건설을 위한 간석지공사에 동원되었을때 일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일생에 한번밖에 없을듯싶게

보람차고 량만적인 일이었다. 조국의 바다가 좋아서만이 아니며 조국땅이 넓어진다는 기쁨때문만이 아니다.

남녘땅 인민들에게까지 더 좋은 옷감을 더 많이 입히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한 현지교시단위에 돌격대로 앞장서게 된 기쁨이 무엇보다 컸기때문이다.

우리 작업장에서 얼마 떨어져서는 도 돌격대의 한개중대가 개고작업을 하고있었다. 각 군에서 지원하여온 스물두세살안팎의 사로청원들이었다.

이들과는 아침저녁마다 외발자욱이 난 감탕길에서 한번 두번 만나는 사이에 점차 친숙한 동무가 되었다.

돌격대원들속에는 저녁때면 새끼로 화독을 동여메고 노래 《우리는 혁명하는 젊은 세대들》을 목청껏 불러넘기면서 동쪽길을 걷던 한 동무가 유별나게 눈에 띄우곤했다. 이 동무가 바로 전경수동무였다.

어느날 오후였다.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들은 개고작업장으로 달려갔다. 작업장에서는 가렬한 전투를 련상시키는 희생적인 투쟁이 벌어졌던것이다.

랑쪽에서 막아오는 동쪽사이가 4~5미터에 이르는 개고 좁은 구멍으로 밀려드는 물의 압력은 큰 산악도 삼킬 기세였다. 짧은 시간에 들어오는 밀물을 막아내지 않으면 수십만공수가 들어간 천여미터의 동쪽이 터진다. 이렇게 되면 위대한 수령님께 심

려를 끼쳐드린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건설자들이기에 사업소 지배인으로부터 돌격대식당 취사원아주머니까지 개고공사장으로 달려왔던것이다.

돌격대원들은 겹겹이 어깨를 겹고 개고를 막아섰고 여러 작업장에서 달려온 지원자들은 가마니에 흙을 넣어서 개고를 막았다. 밀물은 사람성벽을 삼켜버렸다.

물속에서 누구인가 《20분만을 견디자!》, 《리수복영웅처럼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자!》라고 웨치였다. 전경수동무였던것이다.

사람으로 엉킨 뚝은 끝내 물과의 싸움을 이겨냈고 물길은 수그러들었던것이다. 돌격대장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이 동쪽으로 철수해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힘이 약하거나 처음부터 물속에 들어갔던 동무들 가운데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물에 떠오른 사람들은 나무 질통을 잡고 나오게 하는 한편 돌격대원들을 구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뛰어들었다.

물속에서 나온 전경수동무는 가물가물해지는 정신을 가다듬고 두번 세번 뛰어들어 동무들을 구원했다. 동쪽에서 인원검열을 하니 노래책임자동무가 없었다. 그러자 전경수동무는 사업소지배인이 붙잡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속에 뛰어들어 노래책임자 박순금동무를 찾았다. 돌격대대장도, 사업소지배인도, 당비서도 다 물에 뛰어들어 순금동무를 찾았다.

전경수동무는 《동무들, 동쪽을 부탁해요!》라는 말을 남기고 물에 뛰어들었던것이다.

그는 헌신적인 투쟁으로 물을 먹고 정신을 잃은 채로 물결에 휘감긴 순금동무를 끝내 찾아 동쪽가

까이로 밀어내어 구원했던것이다.

하나 전경수동무는 다시 물속에 솟아오르지 못했다. 동쪽에 벗어놓은 전경수동무의 옷주머니에 있는 수첩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있었다.

《내 희망은 오직 하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신도 땅에서 조선로동당원이 되고싶노라!》

나는 이런 동무들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는 주체형의 주인공의 원형으로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이런 동무들이야말로 우리 시대 주체형의 주인공의 성격적특질을 갖춘 새형의 영웅들이기때문이다. 실로 이런 동무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티없이 깨끗한 양심을 지니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바쳐 5명의 생명을 구원함으로써 자기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인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이 아니겠는가.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서슴없이 바치는가 하는것을 당앞에 최종적으로 검열을 받은 사람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빛내이기 위하여 자기의 육체적생명까지 서슴없이 바친 위대한 수령님의 이름없는 전사들에게 우리 문학은 주인공의 첫자리를 주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들의 생활을 탐구한다면 아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얼마나 감동적인 사실들이 많을것인가!

나는 작가들이 이런 주인공의 생활을 더욱 깊이 탐구하고 형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인혁